

발간등록번호 11-1241019-100001-01

청년 삶의 질

Young Adult Well-being in Korea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발간사

우리 사회의 빠른 구조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층은 교육·일자리·주거·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로, 생애사적으로 변화가 매우 큰 시기입니다. 청년을 둘러싼 다차원 영역에서 이행과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2022년, 2025년 발간하였으며, 이번에는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삶의 질 보고서는 건강, 여가, 고용·임금, 신뢰·공정, 주거 등 12개 영역에서 각 영역을 대표하는 62개 지표를 선별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의 일상과 선택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년 삶의 질 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의 나열을 넘어서, 청년의 현재를 그대로 비추고, 미래 정책의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역별 지표 분석 이외에도 청년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 ‘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의 이슈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작성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세정 연구위원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청년 삶의 질 지표작성에 도움을 주신 청년분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영역의 청년 삶의 질 측정 결과가 청년의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 수립 과정에 널리 활용되어,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국가통계연구원장

가진

CONTENTS

PART 1 개요

01 작성배경 및 목적	6
02 청년 연령	7
03 청년 삶의 질이란?	8
04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9
05 지표체계	12
06 지표 선정 과정	14
07 활용자료	15
08 청년 삶의 질 향후 제언	17

PART 2 영역별 지표

01 인구학적 배경	21
02 건강	27
주관적 건강평가	29
신체활동 실천율	30
비만율	31
번아웃 경험률	32
우울감 경험률	33
자살률	34
03 교육	35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37
교육 이수율	38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39
대학 졸업 취업률	40
04 여가	41
여가시간	43
여가비용 충분도	44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45
여가생활 만족도	46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47
05 고용·임금	49
고용률	51
실업률	53
첫 취업 소요기간	54
시간당 임금	55
업무자율성 정도	56
일자리 만족도	57

06 소득·소비·자산	59
가구 중위소득	61
가구부채 비율	62
상대적 빈곤율	63
소득 만족도	65
소비생활 만족도	66
07 가족·공동체	67
사회적 교류	69
사회적 지지	70
외로움 경험률	71
대인관계 만족도	72
가족관계 만족도	73
08 시민참여	75
선거투표율	77
정치활동 효능감	78
자원봉사 참여율	79
기부 참여율	80
09 신뢰·공정	81
대인신뢰도	83
기관신뢰도	84
공정성 인식	85
계층이동 가능성	86
차별 경험률	87
10 주거	89
1인당 주거면적	91
주택 이외의 거처	92

주택임대료 비율	93
통근통학 시간	94
주거환경 만족도	95

11 안전	97
야간보행 불안 인식	99
범죄 불안 인식	100
강력범죄 피해율	101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102
교제폭력 입건 건수	103
12 주관적 웰빙	105
삶의 만족도	107
삶의 자율성 인식	109
삶의 가치 인식	110
미래실현 부정 인식	111

PART 3 이슈 분석

01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	114
02 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	134

부록

지표정의서	152
(청년분과)삶의 질 지표 검토위원회	169

PART. 1

개요

- 01 작성배경 및 목적
- 02 청년 연령
- 03 청년 삶의 질이란?
- 04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 05 지표체계
- 06 지표 선정 과정
- 07 활용자료
- 08 청년 삶의 질 향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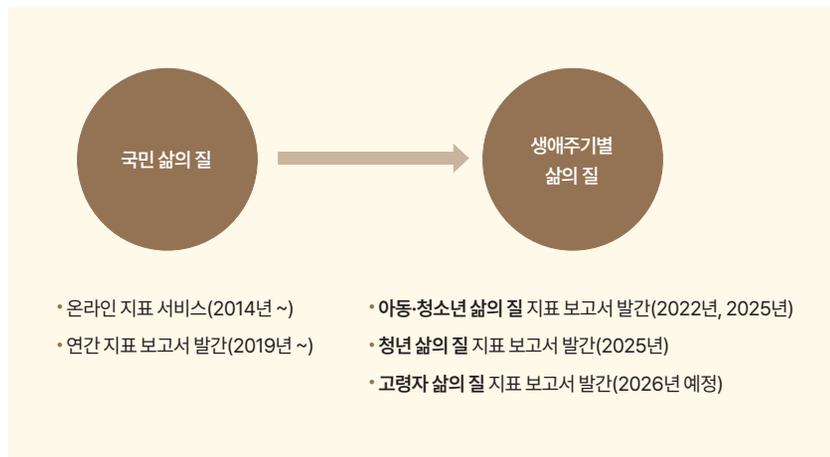
01

작성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개선은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체감도 높고, 활용성 높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으로 주목받던 아동·청소년, 고령자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기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매우 변화가 큰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 세대로부터 정서적·경제적 독립이 이뤄지고, 이러한 이행의 단계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존재한다. 동시에 청년기는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를 가족형성기로 부르기도 한다. 즉 청년기는 노동시장으로 이행, 결혼과 출산 등 생애사적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는 급변기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 간 청년층 관련 일자리, 주거, 관계,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다차원의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및 고용 불안정, 관계, 번아웃, 주거 취약성 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의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청년기본법(2020년) 제정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20년 12월)을 통해 ‘청년’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참여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수립 및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책적 환경 변화는 청년의 삶의 질이 우리의 미래세대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청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질 현황을 집약하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청년 삶의 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지표보고서가 작성되어, 시계열 및 하위속성별 분석을 통해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은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02

청년 연령

이 보고서에서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의 연령 범위는 법률, 정책 및 통계 등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국내 법률 및 제도 기준으로는 「청년기본법」(2020년 시행)에서는 19세~34세를 청년으로 규정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및 통계 기준으로는, 경제활동이나 고용 측면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구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19~34세로, 주거·복지 정책 측면에서는 39세까지 확장하여 보기도 한다.

종합하자면, 청년의 연령은 단일한 기준이 아닌 시대나 국가, 그리고 청년의 이행기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취업, 가족형성 등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가 탈표준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은 시기나 지역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 및 취업 시기 고려 시 18~29세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정책적 관심의 청년지원사업에 주목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15~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18~34세) 등 다양한 연령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²

이 보고서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은 생애주기 상 성인이 되어 교육, 일자리, 결혼 및 출산으로 이행하는 청년층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청년이행기 특성의 포착이 가능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를 청년 삶의 질 지표 작성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영역별 다양한 자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각 개별 지표별 연령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자료마다 조사대상의 연령 기준이 다르거나, 제공되는 자료의 연령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국제기구의 Youth 연령 정의

국제기구	연령
UNESCO(유네스코)	15~24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5~24세
ILO(국제노동기구)	15~24세 또는 15~29세
EU(유럽연합)	15~30세

1 지자체 조례로 39세나 45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년)

03

청년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객관적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와 관계되어 있고, 상태와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특성과 규범적인 특성을 지닌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웰빙^{well-being}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은 주된 관심 대상은 아니었다. 과거 사회정책의 관심은 개인의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득창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청년 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청년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고용, 주거 등 이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³

청년의 삶의 질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 삶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원과 영역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청년의 삶의 질이란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개념이다. 주된 측정의 영역은 경제적 기반, 교육 역량, 건강, 사회적 관계, 주관적 웰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청년의 삶의 질은 현재의 만족과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균형을 이루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년)

04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구축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하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는 이론 중심의 접근, 데이터 중심의 접근, 청년 중심의 접근 등 종합적인 방법이 고려되었다.

이론 중심 접근

-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에 반영
-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연구」(우한수 외, 2023, 통계개발원),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2023년 연구용역, 한국삶의질학회) 연구에서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 특성 도출

데이터 중심 접근

- 이론 중심으로 구축된 지표체계를 현재 작성 중인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 지표를 구축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지표 도출
- 「청년 및 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2024년 연구용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영역별 승인통계 및 지표의 시계열 검토과정을 거쳐 영역별 지표 선정

청년 목소리 중심 접근

- 청년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표체계에 반영
- 청년층 FGI를 통해 도출된 입시와 취업준비, 취직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인한 스트레스, 주거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등을 지표에 반영

청년 대상 FGI 결과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



출처 우한수 외(2023). 청년층 삶의 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주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구성했다. 거시적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인구학적 배경과 함께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내면적 삶, 삶의 역량, 물질적 삶, 사회적 삶, 삶의 환경의 5개 차원에 해당하는 11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시간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 초기 청년 등 청년의 세부 연령별 특징과 중단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비교

- 국민 삶의 질과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비교하면,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청년의 주요 관심사와 삶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체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
- 사회적 삶 차원에서 신뢰·공정 영역이 추가되었고 삶의 환경 차원은 주거와 안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학적 배경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없지만, 청년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포함하였다. 오늘날의 청년이 있는 사회와 환경을 이해하고 청년 삶의 질 지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내면적 삶은 주관적 웰빙 영역으로 측정하며 삶의 역량은 건강, 교육, 여가 영역으로 사회적 삶은 시민참여, 가족·공동체, 신뢰·공정, 물질적 삶은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삶의 환경은 주거, 안전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 비교

차원	국민 삶의 질 지표	청년 삶의 질 지표
배경지표	-	인구학적 배경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역량	건강	건강
	교육	교육
	여가	여가
물질적 삶	고용·임금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사회적 삶	가족·공동체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시민참여
		신뢰·공정
삶의 환경	주거	주거
	안전	안전
	환경	

05

지표체계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 12개 영역 62개 지표

영역	지표명	출처	대상연령
인구학적 배경	청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19~34
	청년 가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34
	혼자 사는 청년 비율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34
	청년 인구 순이동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19~34
	시도별 청년 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19~34
	청년 혼인상태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34
	초혼연령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첫 출산연령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짝수 연도)	19~34
	신체활동 실천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39
	비만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39
	번아웃 경험률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우울감 경험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39
	자살률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19~34
교육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8~21
	교육 이수율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5~34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대학 졸업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여가	여가시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39
	여가비용 충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39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39
	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39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39
고용·임금	고용률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5~34
	실업률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5~34
	첫 취업 소요기간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15~29
	시간당 임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9~34
	업무자율성 정도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일자리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영역	지표명	출처	대상연령
소득·소비·자산	가구 중위소득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19~34
	가구부채 비율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19~34
	상대적 빈곤율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19~34
	소득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소비생활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가족·공동체	사회적 교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사회적 지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외로움 경험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39
	대인관계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가족관계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짝수 연도)	19~34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19~34
	정치활동 효능감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자원봉사 참여율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기부 참여율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신뢰·공정	대인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39
	기관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39
	공정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39
	계층이동 가능성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19~34
	차별 경험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8~39
주거	1인당 주거면적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9~34
	주택 이외의 거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9~34
	주택임대료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9~34
	통근통학 시간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19~34
	주거환경 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9~34
안전	야간보행 불안 인식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짝수 연도)	19~34
	범죄 불안 인식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짝수 연도)	19~34
	강력범죄 피해율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1~40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19~39
	교제폭력 입건 건수	경찰청,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삶의 자율성 인식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삶의 가치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39
	미래실현 부정 인식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19~34

06

지표 선정 과정

청년 삶의 질 지표의 각 영역별 지표목록은 기존의 작성중인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필요한 지표 목록을 정하고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기존의 승인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특히, 2024년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24)」의 청년 삶의 질 지표 체계 선정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국민 삶의 질 및 청년 분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 검토를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지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구학적 배경을 포함한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로 요약하였다.

타당성

전문가 대상 지표중요도 선정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청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높은 지표를 선택

대표성(신뢰성)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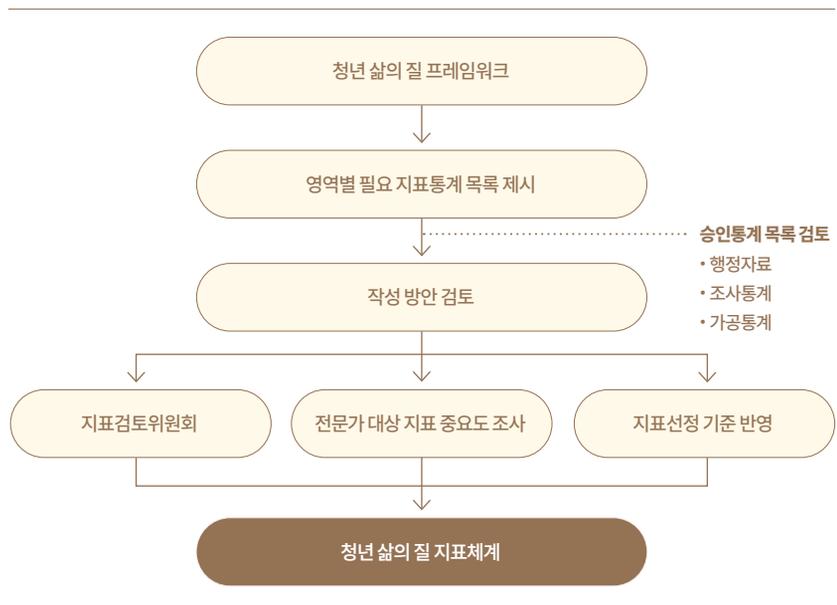
포괄성

19~34세를 가능하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 범위가 높은 지표를 선택

시의성과 작성 주기

가능하면 작성 주기가 짧고, 공표 시기가 빠른 통계를 중심으로 선택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 선정 과정



07

활용자료

청년 삶의 질 지표는 기존에 작성된 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된다. 활용된 통계의 작성주기, 조사대상 및 연령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표별 시점과 연령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청년 삶의 질 지표 활용자료의 작성주기는 대부분 1년이나, 2~5년 주기인 경우도 있다. 가령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거실태조사 등의 승인통계는 작성주기가 1년이며, 청년삶실태조사, 사회조사는 2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5년 주기로 자료가 산출된다.

청년 삶의 질 지표의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9~34세를 대상으로 한다. 가급적 연령 기준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원자료 확보의 한계 및 공표 수준의 차이 등으로 각 지표별 연령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청년삶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등은 19~34세를 대상으로 통계를 공표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19~29세, 30~39세 연령 단위로 공표한다. 다만 통계 공표범위가 19~34세가 아닌 승인통계 중 연령 세분화가 가능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9~34세를 추출하여 재가공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지표 구성 및 수치 산출 시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단일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지표를 하나의 단일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정책대상(청년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의 경우 연령 작성기준은 장기적으로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인구분야 자료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가 활용되었다.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고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거는 주거실태조사, 교육은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건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사망원인통계, 여가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안전은 범죄통계분석,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그 밖에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등이 청년 삶의 질 지표 작성에 활용되었다. 지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는 조사통계(13종), 보고통계(6종), 가공통계(2종) 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지표작성에 활용된 통계목록의 작성기관, 대상, 연령 등을 나타낸다.

통계명	작성기관	구분	대상 연령	지표 작성연령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전연령	19~34세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15세 이상	15~34세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보고통계	-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가공통계	전연령	19~34세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조사통계	1세 이상	19~39세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통계	15세 이상	20~39세
범죄분석통계	검찰청	보고통계	전연령	21~40세
사망원인통계	국가데이터처	가공통계	전연령	19~34세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통계	19세 이상	19~39세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13세 이상	19~34세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조사통계	19세 이상	19~39세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전연령	-
인구총조사(인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전연령	19~34세
인구총조사(가구)	국가데이터처	조사통계	전연령	20~34세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통계	18세 이상	18~39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조사통계	가구대상	19~34세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조사통계	19-34세	19~34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통계	-	-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보고통계	-	18~21세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경찰청	보고통계	-	-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통계	19세 이상	19~34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	19~34세

08

청년 삶의 질 향후 제언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지표정의 및 산출방안

청년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대학 교육, 고용시장 진입, 가족 형성 등 결정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계층이다. 이러한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차원적인 자료와 기준이 필요하다. 자료원에 따라 청년은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청년이 포함된 가구, 청년 개인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생애주기 상 이행과정에 있어서 부모동거, 1인가구, 독립한 1세대 및 2세대 가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청년의 특성이 지표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층 지표 생산·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 필요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를 생산·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별 청년 연령 세분화에 대해 국가데이터와 공공·민간 통계작성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통계별로 연령세분화 기준이 상이하여 다양한 출처의 통계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장차 청년층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외 동향(OECD 등)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년 삶의 질을 반영하는 데이터 생산

지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비진학 청년의 직업·훈련이나 청년들의 대학 및 평생 교육과정, 사회적 관계와 고립, 특히 청년들의 삶에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통계로는 최근 청년의 여가생활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변화에 민감한 청년층의 생활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규통계 생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특정집단, 주제별 심층분석

지표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봐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는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에 청년 삶의 질을 세밀하고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관 지표들 간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이를테면 소득 수준과 소득 만족도, 기관신뢰도와 대인신뢰도의 변화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의 해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개별 지표 이외에 이슈분석 등을 통해 심층적인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심층분석을 통해 개별 지표로는 도출해내기 어려운 특정집단(예를 들면, 가족돌봄청년, 은둔청년, 다문화, 장애 등)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PART. 2

영역별 측정 결과

- 01 인구학적 배경
- 02 건강
- 03 교육
- 04 여가
- 05 고용·임금
- 06 소득·소비·자산
- 07 가족·공동체
- 08 시민참여
- 09 신뢰·공정
- 10 주거
- 11 안전
- 12 주관적 웰빙



01

인구학적 배경

DEMOGRAPHIC BACKGROUND



인구학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청년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청년층 삶의 질을 거시적으로 구성하는 설명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구조 변화 이슈를 반영하여 청년 인구, 청년 가구주 비율, 혼자 사는 청년 비율, 청년층 순이동률, 시도별 청년 인구 비율, 청년층 혼인상태, 초혼연령, 첫 출산 연령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청년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청년기의 주요 생애 과정 이행(졸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을 이해하고, 다양한 청년 삶의 질 지표들을 해석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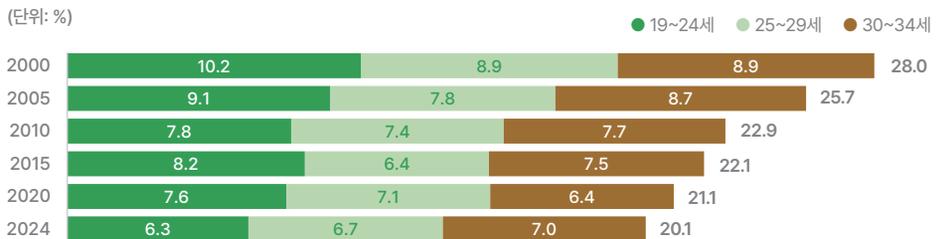
청년 인구

우리나라의 19~34세 청년 인구는 2024년 1,040만 4천 명으로 2000년 1,288만 3천 명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2024년 20.1%, 2000년 28.0%에서 2010년 22.9%, 2020년 21.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청년 가구주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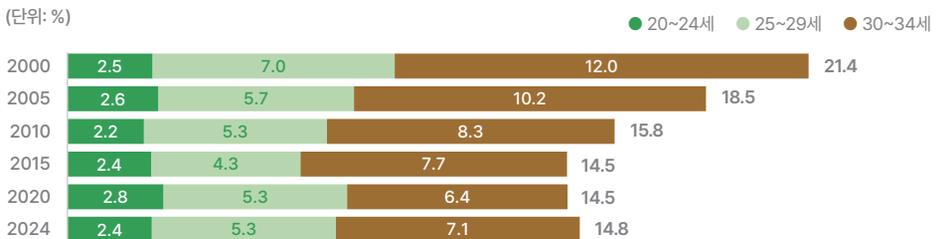
가구주 연령이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 비율은 2024년 14.8%로 2000년 21.4%에서 6.6%p 감소했다. 2000년 21.4%에서 2015년 14.5%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 청년 가구주 비율은 2%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30~34세 청년 가구주 비율은 2000년 12.0%에서 2024년 7.1%로 감소폭이 컸다. **그림 2**

그림 1. 청년 인구 비율(2000~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총인구 중 해당 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림 2. 청년 가구주 가구 비율(2000~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일반가구 중 해당 연령의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20~34세 청년 중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청년 삶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배경 지표이다.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2000년 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년 20.5%에서 2024년 25.8%로 4년간 5.3%p 증가하였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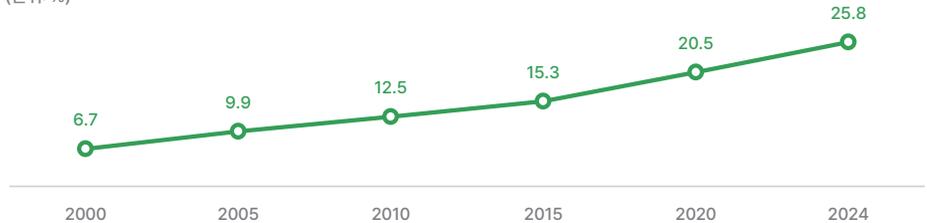
청년 이동 및 지역별 인구 비율

청년은 생애주기 상 학업,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이동의 유인이 많은 계층이다. 청년의 순이동(진입-전출)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눈 순이동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도권과 대전, 충남, 세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입이 더 많은 지역이고,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입이 많으나 최근에 순이동률이 낮아졌다. 대전은 최근 순이동이 정의 방향으로 바뀐 반면, 제주도는 최근 부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림 5**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률은 2012년 +17.6%, 2015년 +34.3%로 높은 순이동률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 +10% 이내로 낮아져서 2024년 순이동률은 +2.0%이다.

시도별 19~34세 청년 인구 비율은 2024년 서울이 24.0%로 가장 높고, 대전(23.3%), 광주(21.3%), 경기(20.3%)에서 20%를 상회한다. 전남(16.0%)과 경남(16.5%), 경북(16.9%) 지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17%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은 5%p 이상 감소하였다. 충남 지역은 5.3%p 감소하였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는 9%p 이상 감소하였다. **그림 4**

그림 3. 혼자 사는 청년 비율(200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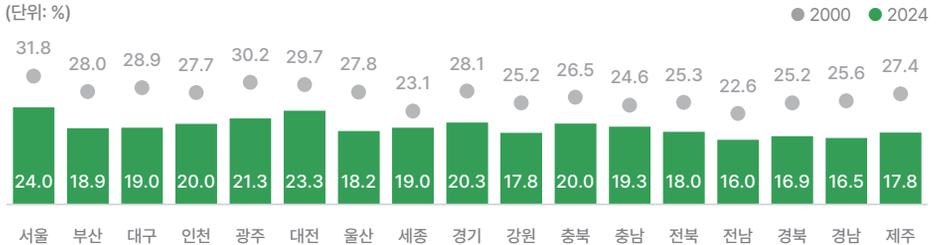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① $(20\sim34세\ 1인\ 가구원 \div 20\sim34세\ 일반가구원) \times 100$

②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 제외

그림 4. 시도별 청년 인구 비율(2000,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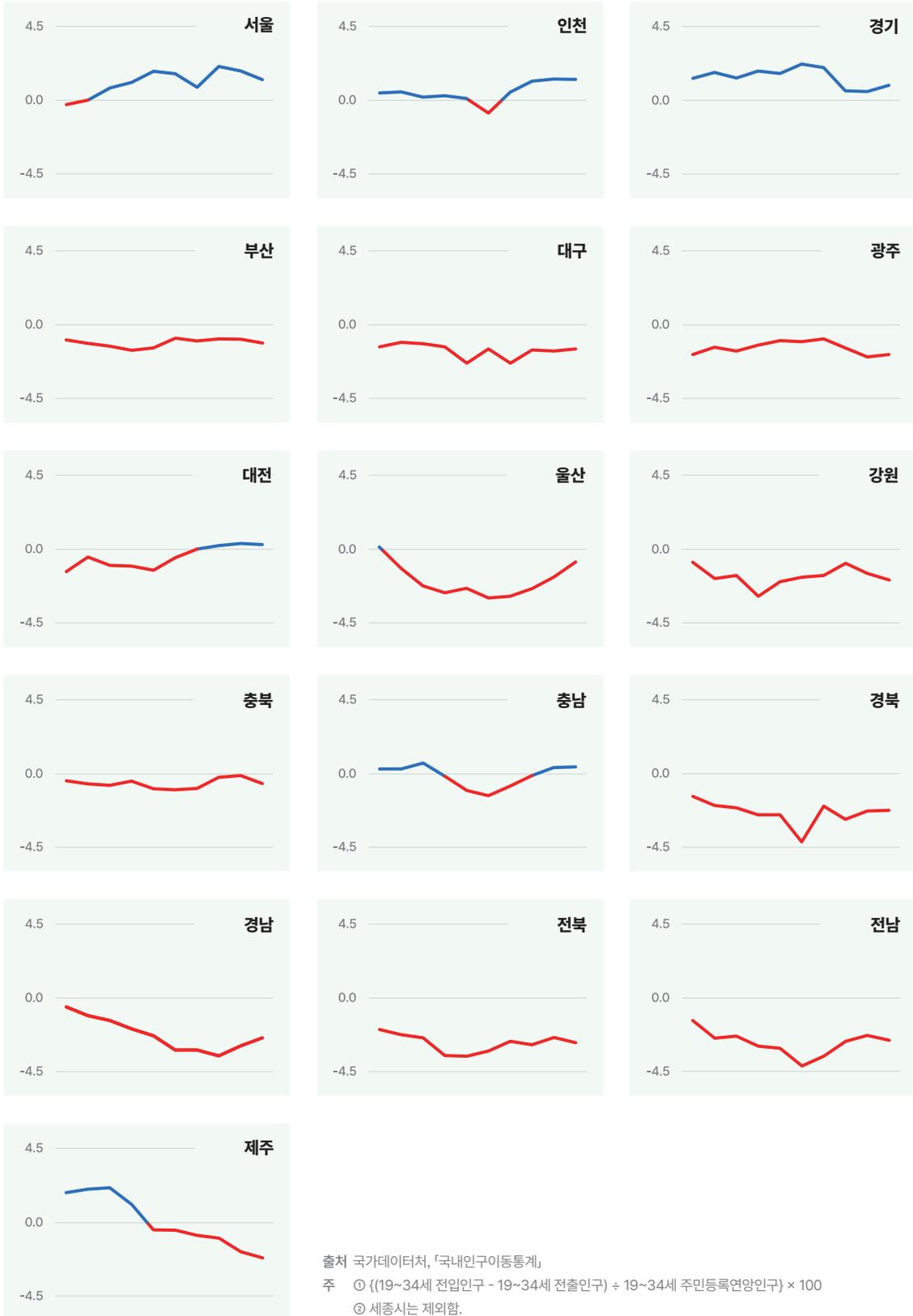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① 각 시도의 전체 인구 중 19~3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② 세종시는 2015년 수치임.

그림 5. 시도별 청년 순이동률(2015~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① $\{(19\sim34\text{세 전입인구} - 19\sim34\text{세 전출인구}) \div 19\sim34\text{세 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

② 세종시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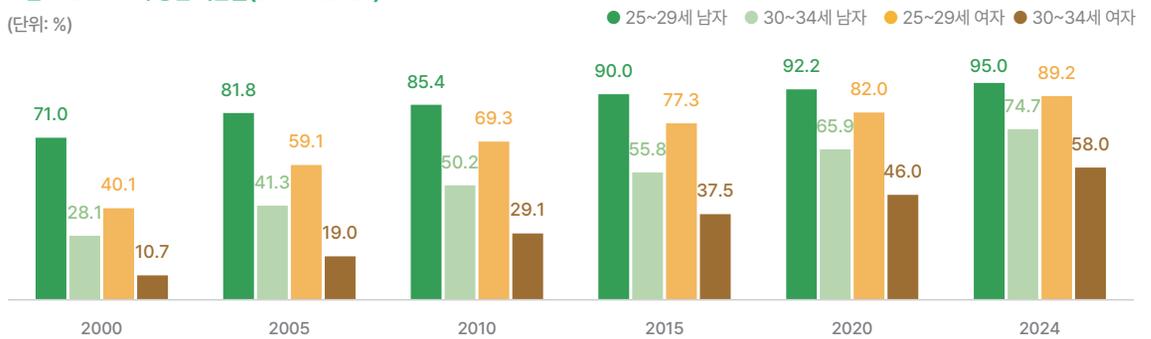
청년의 혼인과 출산

청년의 혼인과 출산은 청년기의 생애과정 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로 청년 삶의 시대적 특성 및 다양한 영역의 지표들을 연관하여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의 미혼 비율은 25~29세는 2000년 55.6%에서 2024년 92.2%로 증가하였으며, 30~34세 또한 2000년 19.5%에서 2024년 66.8%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4세 연령의 미혼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96%를 상회하였다. 25~59세 미혼율은 2000~2005년 사이 남성은 10.8%p, 여성은 19.0%p 상승하였으며, 30~34세 여성 미혼율은 2020년 46.0%에서 2024년 58.0%로 12.0%p 증가하였다. **그림 6**

25~34세 청년층의 미혼율 증가와 더불어 혼인시기 지연이 나타나며 초혼 연령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다.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던 초혼 연령은 2024년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각각 4.6세, 5.1세 증가하였다. 초혼 연령 상승과 함께 여성의 첫째아이 평균 출산 연령 또한 2000년 27.7세에서 2024년 33.1세로 5.4세 증가하였다. **그림 7**

그림 6. 25~34세 청년 미혼율(200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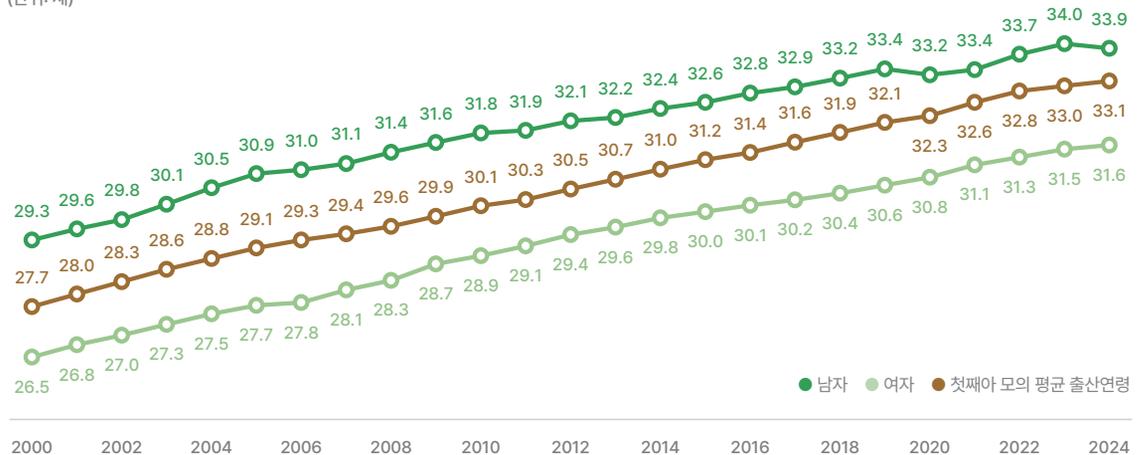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25~34세 미혼 인구 수 ÷ 35~34세 인구 수) X 100

그림 7. 평균 초혼연령 및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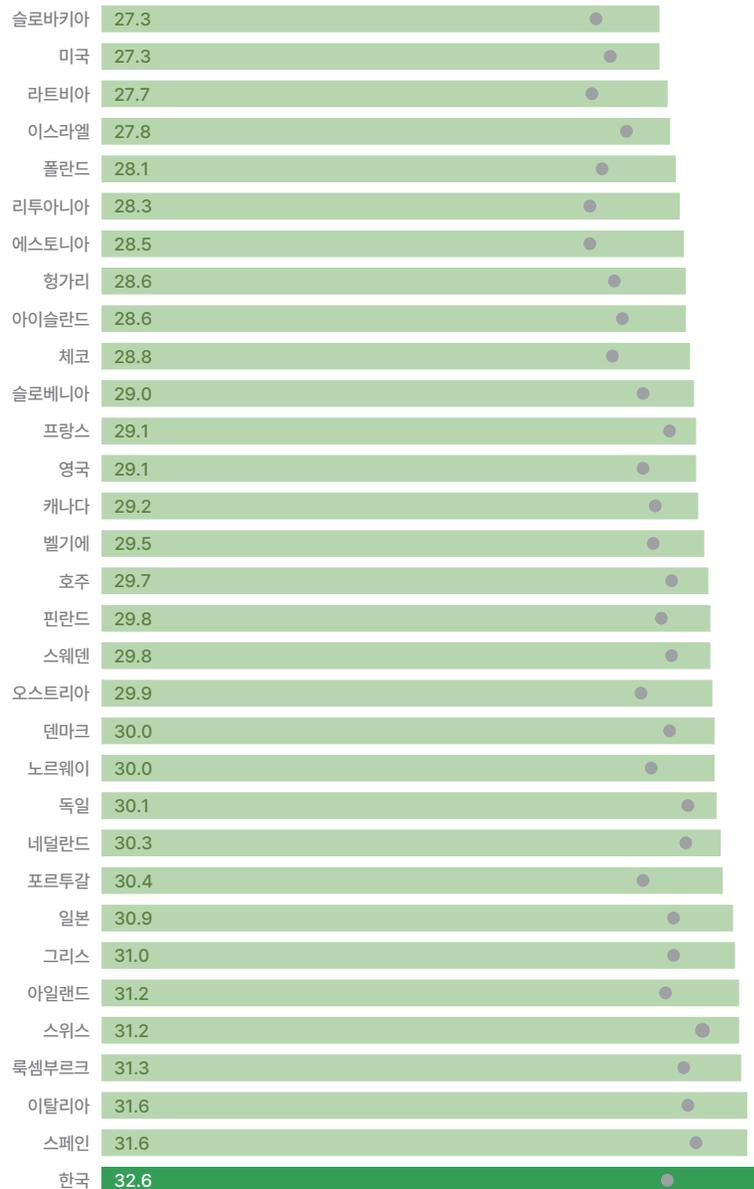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여성의 첫 아이 출산연령 증가 추세는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이 2021년 기준 32.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1.6세로 우리나라보다 첫아이 출산연령이 1세 낮다. 우리나라는 2000년(27.7세) 대비 2021년 4.9세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증가폭이 크다. 출산연령이 낮은 편인 리투아니아(+4.4세)와 에스토니아(+4.6세)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4세 미만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림 8**

그림 8. OECD 국가의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2000, 2021)

(단위: 세)

● 2000 ● 2021



출처 OECD, Family database(2025.10)

주 ① 2000년: 이탈리아 1997년, 스위스/룩셈부르크 2006년 호주/독일 2009년 수치임

② 2021년: 영국 2020년, 캐나다 2016년 수치임

02

건강

HEALTH

주관적 건강평가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번아웃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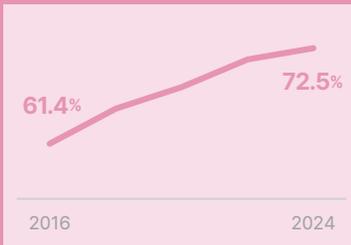


건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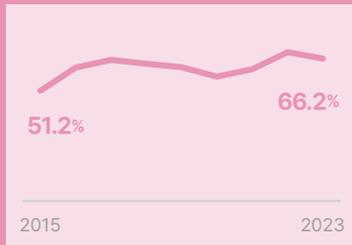
건강 영역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청년층은 생애주기 상 다른 연령에 비해 신체적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정신건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보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불안, 번아웃 등은 청년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청년 시기의 건강관리는 향후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영역에서 청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건강관리 측면을 보여주는 '비만율'과 '신체활동 실천율',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자살률', '번아웃 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평가를 보여주는 '주관적 건강평가' 지표를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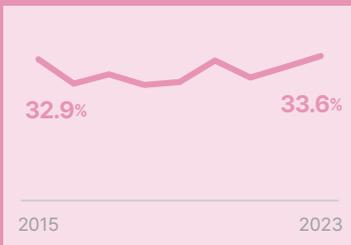
주관적 건강평가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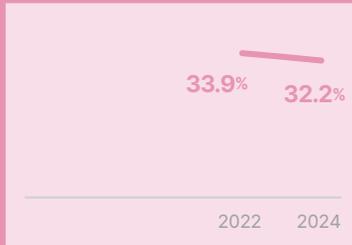
신체활동 실천율 (19~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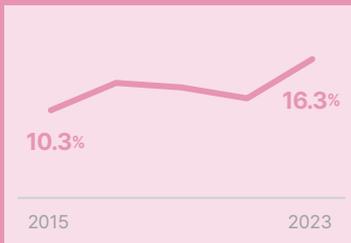
비만율 (19~29세)



번아웃 경험률 (19~34세)



우울감 경험률 (19~29세)



자살률 (19~34세)



주관적 건강평가

Self-reported Health

지표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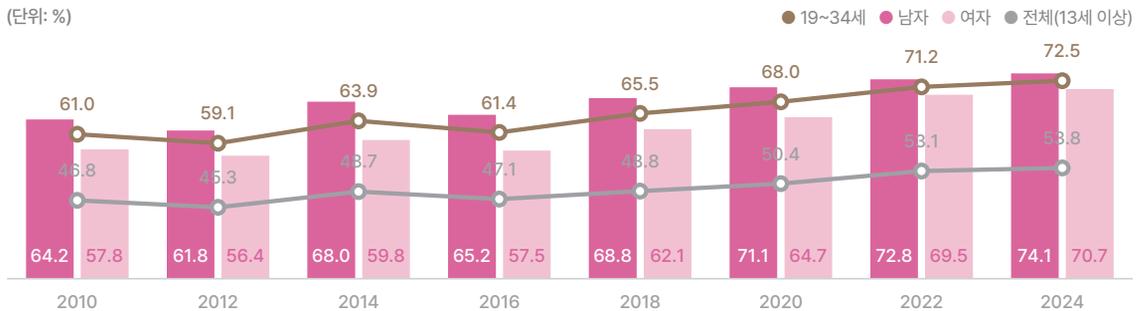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한지(5점 척도)에 대해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 청년층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다소 등락을 보이긴 하나 2010년 61.0%에서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72.5%로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개선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0~2024년 기간 중 전체 연령의 주관적 건강평가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거나 2024년 53.8%로 청년층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18.7%p 더 높다. 이는 생애주기 상 청년층이 신체건강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과 연관된다.
-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성별 격차가 줄어들어 2010~2020년까지 5~8%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3.4%p로 감소했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가 낮아져 2024년 19~24세는 76.6%이며, 25~29세 72.2%, 30~34세는 69.1%로 낮아진다. 2010~2016년까지 30~34세와 19~24세의 격차는 10%p 내외였으나, 2022년에는 4.7%p, 2024년 7.5%p로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평가(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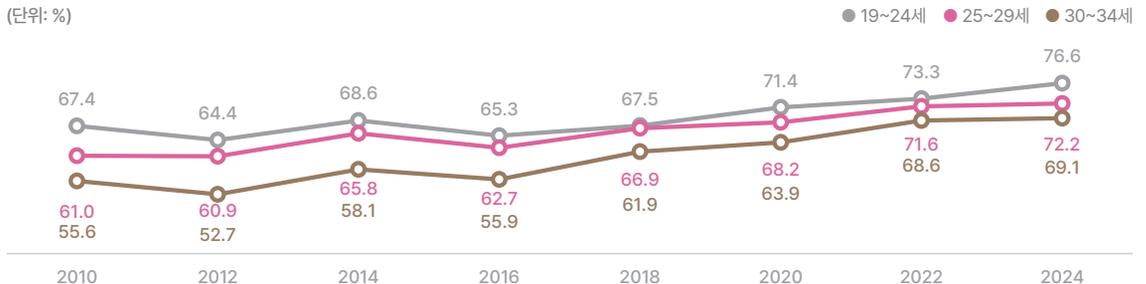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전체 인구는 2010년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임.

연령별 주관적 건강평가(2010~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신체활동 실천율

Physical Activity Rate

지표정의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한 청년 비율

해당연령 19~39세

측정방법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고강도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운동

중강도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운동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9~29세와 30~39세 신체활동 실천율은 8.2%p~18.1%p범위에서 19~29세가 30~39세보다 높았다. 연령별 차이는 2014년 14.3%p에서 2023년 8.2%p로 줄어 들고 있다. 19~29세의 경우 2023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19~29세와 30~39세 모두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2023년 남성의 경우 19~29세, 30~29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각각 69.6%, 62.1%인 반면, 여성의 경우 각각 62.5%, 53.6%로 남성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았다. 2014~2017년까지는 19~29세 여성이 30~39세 남성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2014~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2014~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정의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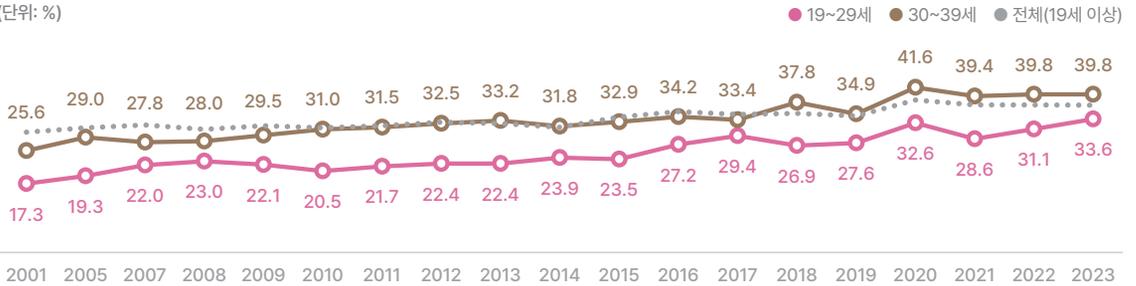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9세

측정방법 체중(kg) ÷ 신장(m)²이 25이상인 청년의 비율

- 청년층의 비만율은 다소 증감이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2001년 대비 2023년에 19~29세는 16.3%p, 30~39세는 14.2%p가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19세 이상 전체 비만율이 6.8%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에서 비만율 증가가 더 크다.
- 청년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9세보다 30~39세의 비만율이 높고 특히, 2018년 이후 30~39세의 비만율이 전체 비만율을 상회하고 있다.
- 성별로 살펴보면 각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대비 2023년에 19~29세 여성은 11.1%p, 30~39세 여성은 8.2%p 증가한데 반해 19~29세 남성은 18.4%p, 30~39세 남성은 15.4%p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비만율이 증가하였다. 30~39세 남성의 비만율이 가장 높아 2023년 기준 30~39세 남성 비만율은 50.4%이다. 19~29세 남성은 43.9%, 30~39세 여성은 27.3%, 19~29세 여성은 22.1%로 과거보다 성별 차이가 더 커졌다.

연령별 비만율(200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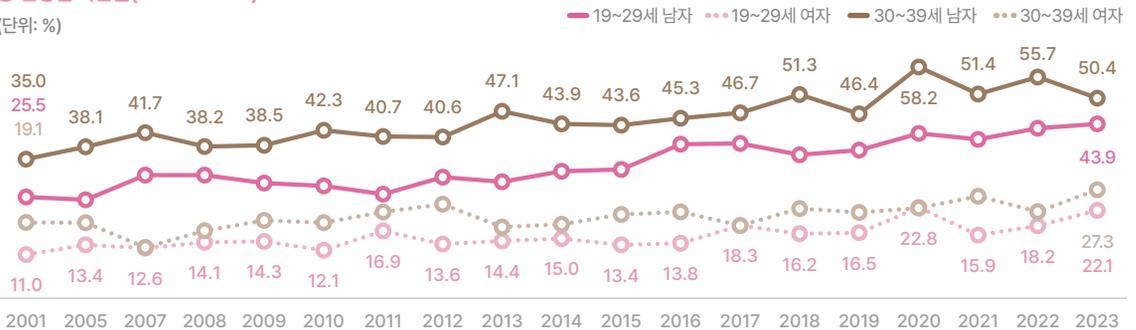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연령별 비만율(2001~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번아웃 경험률

Burnout Experience Rate

지표정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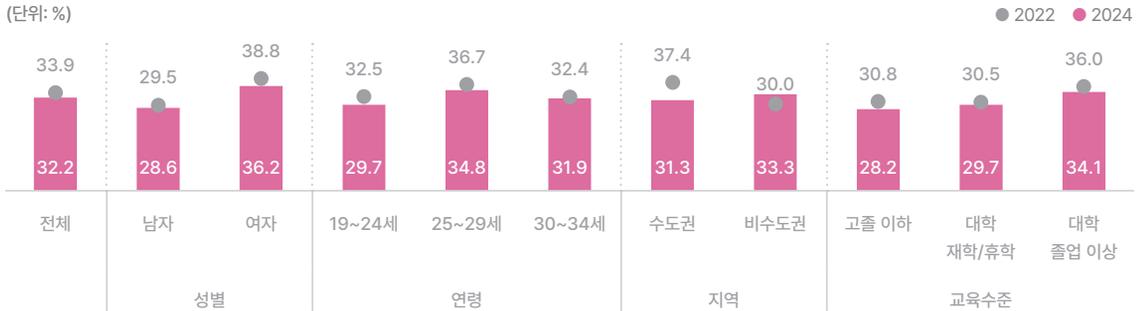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스스로 번아웃되었음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청년에서 번아웃 경험률은 2022년 33.9%에서 2024년 32.2%로 1.7%p 낮아졌다. 개인적 특성(연령, 성, 지역, 교육수준)에 따른 번아웃 경험률을 살펴봐도 전반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2022년 30.0%, 2024년 33.3%로 3.3%p 상승하였다.
- 2024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남성(28.6%)보다 7.6%p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2024년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4.1%로 고졸이하 청년(28.2%) 또는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보다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업무과중(18.4%)'과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진로불안'이 54.8%로 높고, 25~29세도 41.5%로 높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22%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번아웃 경험률(2022,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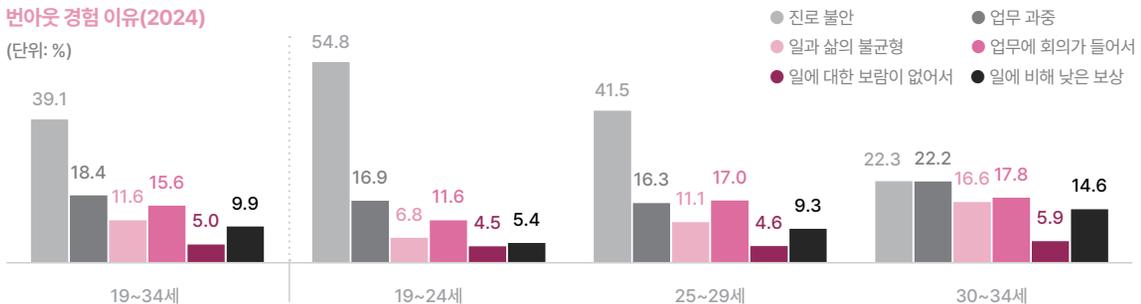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번아웃 경험 이유(2024)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의 주된 이유이며, 기타 0.4%는 제외하였음.

우울감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Depressive Symptoms

지표정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비율

해당연령 19~39세

측정방법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청년의 비율

-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감소하다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2023년 기준 우울감 경험률은 19~29세는 16.3%, 30~39세는 11.6%로 20대에서 더 높다. 19~29세는 2015년 14.9%에서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에 16.3%로 2021년 대비 4.6%p 증가하였으며, 30~39세는 2015년 10.3%에서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1년 12.8%로 2019년 대비 5.4%p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1.6%로 소폭 감소하였다.
- 30~39세는 2019년까지는 전체 연령(19세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1년부터 전체 연령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아졌다.
-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19~29세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다. 특히 2023년 22.8%로 2021년 대비 5.7%p 증가하였다.

우울감 경험률(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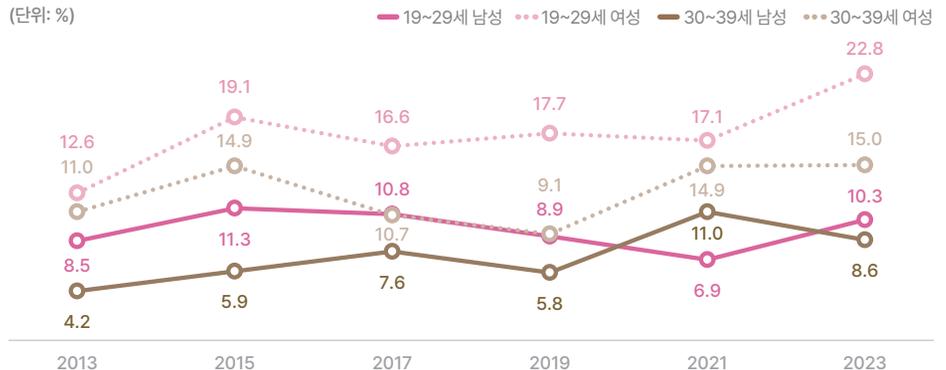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연령별 우울감 경험률(2013~2023)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정의 청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청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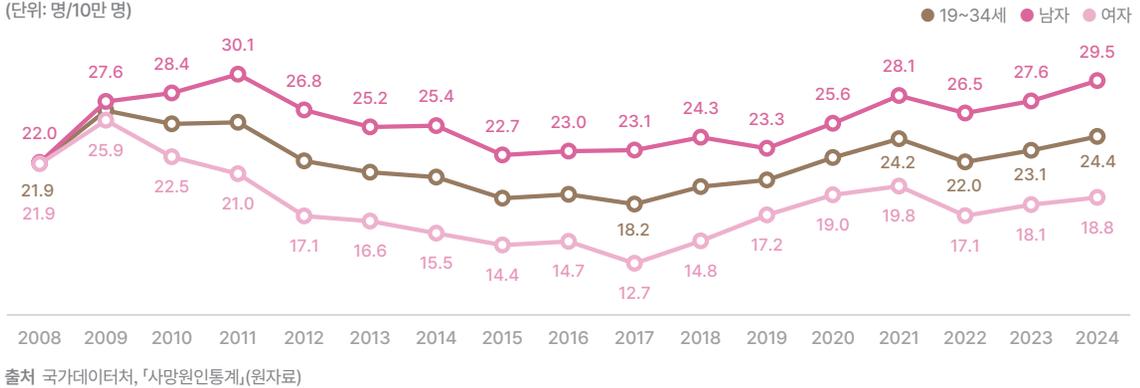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19~34세 자살자 수 ÷ 19~3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수)×100

- 청년층의 자살률은 2009년 10만 명당 26.8명에서 2017년까지 18.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4년 19~34세 청년 자살률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증가하였다.
-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10만 명당 6~10명 정도 성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2024년 청년층 남자 자살률은 29.5명, 여자는 18.8명이다.
- 30~34세의 자살률은 2009년 31.2명 이후 완만하게 줄었다가 2017년 23.3명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19~24세, 25~29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25~29세는 2021년부터 30~34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4년 기준 19~24세 자살률은 17.7명이고, 25~29세와 30~34세는 각각 26.5명, 28.5명으로 20대 초반과 차이를 보인다.

성별 자살률(200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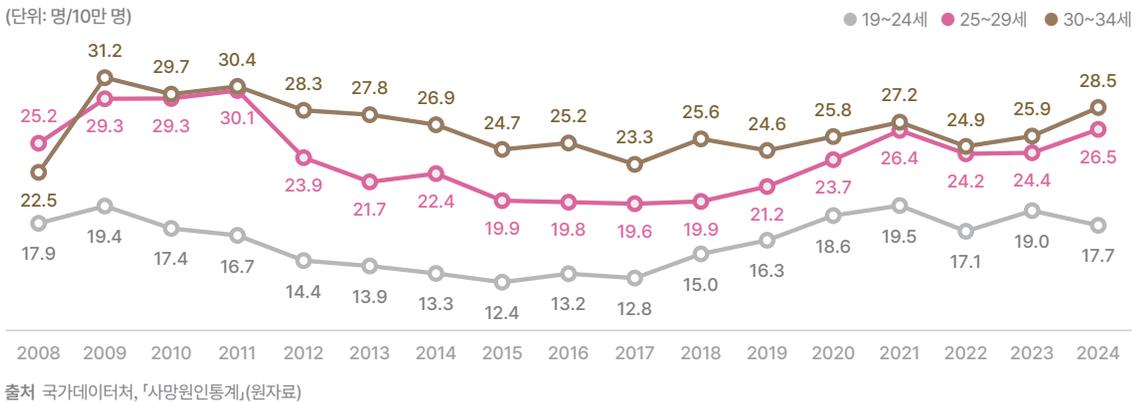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원자료)

연령별 자살률(2008~2024)

(단위: 명/10만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원자료)

03

교육 EDUCATION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교육 이수율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대학 졸업 취업률



교육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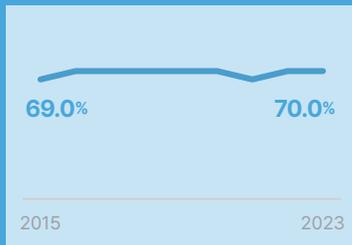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자기개발과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청년층의 교육수준과 취학여부를 보여주는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지표와 함께 교육이 직업으로의 이행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대학 졸업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나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역량 등도 필요한 부분이나 가용한 지표가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최근 추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8~21세)



고등교육 이수율 (25~34세)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직업계고 졸업 진학률



대학 졸업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Enrollment Rate in Tertiary Education

지표정의 18~21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해당연령 18~21세

측정방법 (18~21세 재적학생 수 ÷ 18~21세 인구수) × 100

- 청년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00년 52.5%에서 2008년 70.6%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 2018년(66.9%)까지는 소폭으로 감소 및 정체되었으나, 이후 증가 추세이다. 2020년 69.0%에서 2023년 74.9%, 2025년 76.3%로 최근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성별로 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0년 남자 57.2%, 여자 47.6%로 남자가 9.6%p 높았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감소하여 2015년 남자 67.1%, 여자 67.9%로 역전되었다. 이후로는 여자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남자보다 높아져 2025년 기준 여자가 78.5%로 남자(74.2%)보다 4.3%p 높다.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2000~2025)

(단위: %)

● 18~21세 ● 남자 ● 여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등이 포함됨.

교육 이수율

Educational Attainment Rate

지표정의 청년층의 고등학교 과정 미만, 고등학교, 고등교육 과정 이수율

해당연령 2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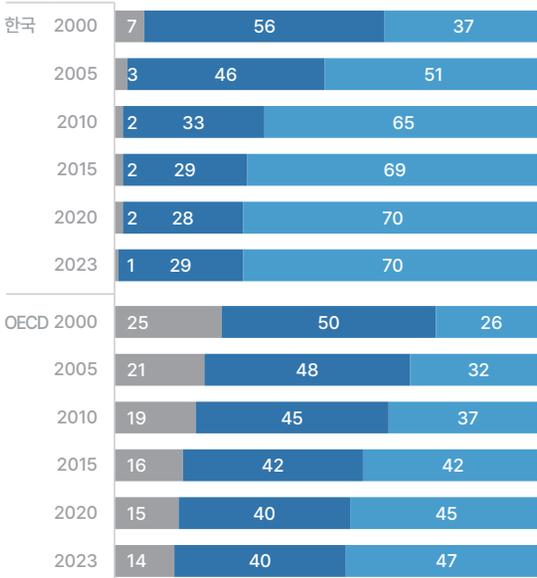
측정방법 (25~34세 해당 학력 소지 인구 ÷ 25~34세 전체 인구) × 100

- 청년의 단계별 교육 이수율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 37%에서 2005년 51%, 2010년 65%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으나, 2015년 이후에는 70% 수준을 유지한다. 후기중등교육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하인 비율은 2000년 7%였으나 2010년 이후 1~2% 수준이며, 후기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과정인 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 이수율은 2000년 56%에서 2015년에 29%로 감소하였다.
- 2023년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47%, 후기중등교육 미만의 비율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교육과정에서의 높은 이수율을 보여준다.
- 성별로 보면 후기중등교육 미만인 중학교 이하 이수율은 남녀 모두 1~2% 정도로 비슷하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3년 남성 63%, 여성 77%로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다소 높다. 이는 남성은 군대로 인해 여성보다 대학 졸업시점이 늦어지는 것과도 연관되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남성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65%에서 2023년 63%로 약 2%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15년 73%에서 2023년 77%로 약 4%p 증가하였다.

단계별 교육 이수율(2000~2023)

(단위: %)

- 후기중등교육 미만
- 후기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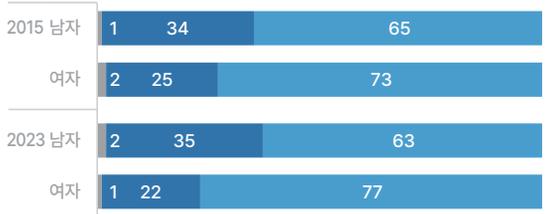


출처 교육부, 「OECD교육지표」

성별 교육 이수율(2015, 2023)

(단위: %)

- 후기중등교육 미만
- 후기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 고등교육



출처 교육부, 「OECD교육지표」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 **후기중등교육 미만(ISCED 0~2)**
중학교 이하
- **후기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ISCED 3 또는 4)**
고등학교, 고졸 이후 학위가 아닌 직업 및 기술 훈련과정
- **고등교육(ISCED 5~8)**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Employment(Enroll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지표정의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청년의 졸업후 취업 및 진학현황

해당연령 당해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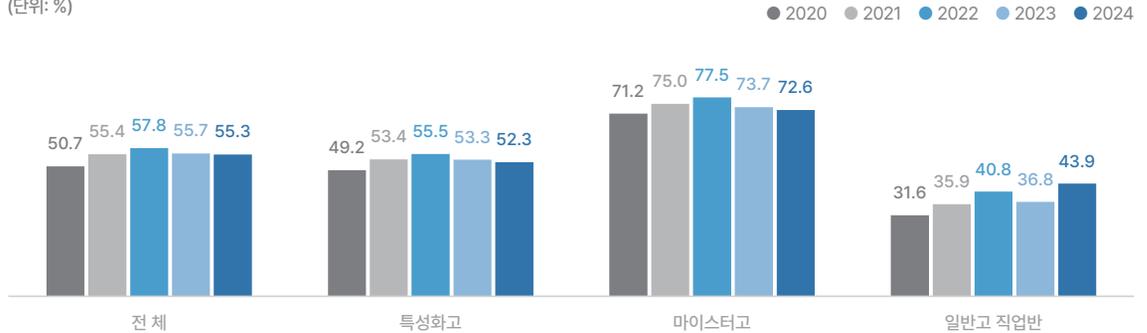
측정방법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 직업계고 청년들의 졸업 후 취업률은 2020년 50.7%에서 2022년 57.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4년은 55.3%이다. 이에 반해 진학률은 2020년 42.5%에서 2024년에 48.0%로 5.5%p 증가하였다.
- 학교별 취업률을 보면 마이스터고가 2024년 72.6%로 가장 높으며, 특성화고는 52.3%, 일반고 직업반은 43.9%이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2020년 31.6% 대비 2024년 43.9%로 12.3%p 증가하였다.
- 진학률은 일반고 직업반에서 2024년 62.8%, 특성화고 51.4%로 50% 이상이나 마이스터고는 7.6%로 낮은 편이다. 진학률은 직업계고 전체에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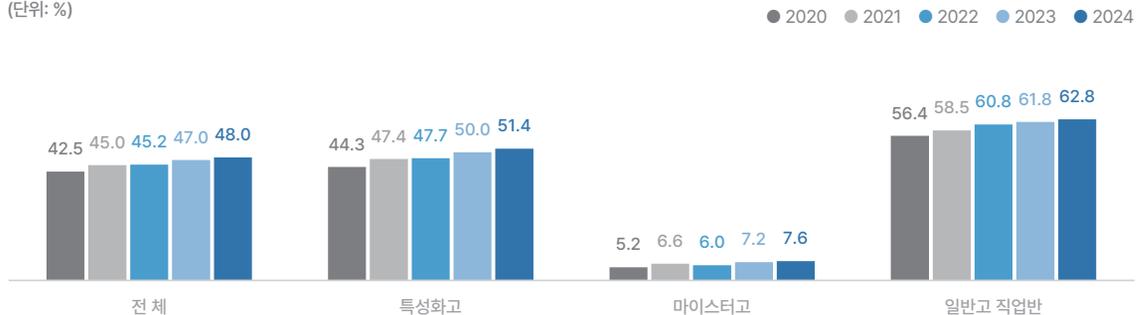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직업계고 졸업 진학률(2020~2024)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대학 졸업자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지표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등이 포함됨)

해당연령 당해연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측정방법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 유학생)

- 대학 이상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2011년 67.6%에서 2019년 67.1%로 큰 폭의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65.1%) 감소한 후 2021년부터 상승 추세로 2023년 70.3%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률이 최저였으나 이후로는 상승 추세이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성 대학 졸업자보다 지속적으로 높다. 남녀 취업률 차이가 2011년 6.2%p에서 2023년 3.9%p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격차는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취업률(68.5%) 보다 3.7%p 높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졸업자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남성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5.1%p 높은 반면, 여성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2.9%p 높다.
- 계열별로 보면 2023년 의약계열 졸업자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71.9%)을 제외한 다른 계열은 70% 미만으로 인문계열이 61.5%로 가장 낮다.

성별 대학 졸업자 취업률(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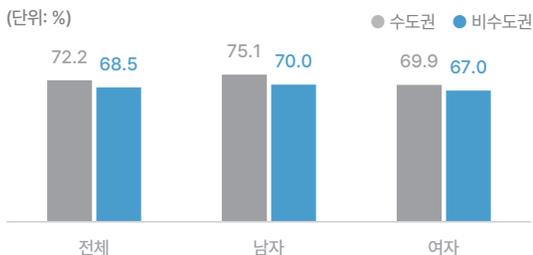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지역별 대학 졸업자 취업률(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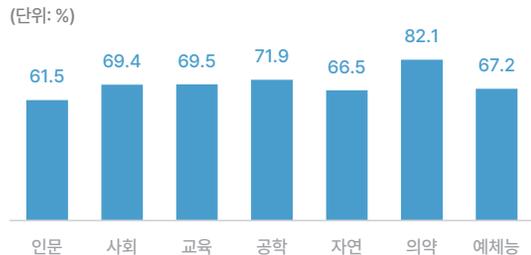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계열별 대학 졸업자 취업률(2023)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여가시간
여가비용 충분도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여가생활 만족도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여가란?

여가는 근로나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일-생활 균형 등을 포함하여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청년층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개인들이 원하는 여가향유와 충분한 휴식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며, 이를 통해 일이나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가나 문화활동의 내용보다는 적절한 여가시간의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여가생활과 일-생활 균형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가 영역에서는 여가를 보내는 시간의 총량인 '여가시간',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와 조건을 보여주는 '여가비용 충분도',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주관적인 만족 정도인 '여가생활 만족도',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지표를 포함한다.

최근 추세

여가시간 (20~29세)



여가비용 충분도 (20~29세)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20~29세)



여가생활 만족도 (20~29세)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20~29세)



여가시간

Leisure Time

지표정의 청년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 평균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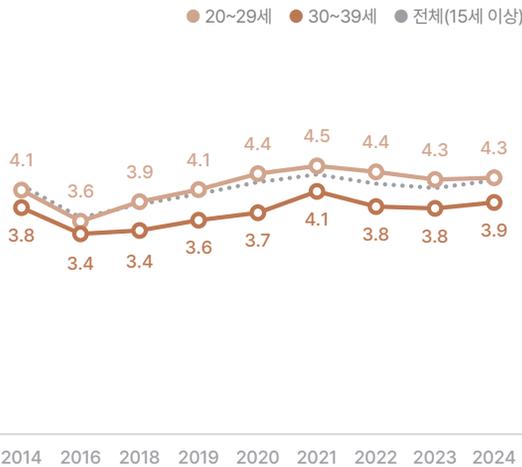
해당연령 20~39세

측정방법 {(청년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 × 5일) + (청년의 휴일 평균 여가시간 × 2일)} ÷ 7일

- 청년의 평균 여가시간은 20대가 30대보다 긴 편이다. 20대의 평균 여가시간은 2016년 3.6시간에서 2021년 4.5시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여 2024년 4.3시간이다. 30대의 평균 여가시간은 2016년 3.4시간에서 2021년 4.1시간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24년 3.9시간이다. 20대와 30대 모두 여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0~2022년 기간 중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가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 20대는 30대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두 연령대별 격차는 2020년 0.7시간으로 가장 많이 벌어졌으며 2024년에는 0.4시간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좁혀졌다. 2014년 이후 15세 이상의 평균 여가시간과 비교해보면 20대는 전체 평균보다 여가시간이 유사한 수준이거나 약간 더 긴 편이다.
- 성별로 비교해보면 2023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은 20대와 30대 모두 성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휴일 여가시간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휴일 여가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없으나, 30대의 휴일 여가시간은 남자 5.7시간, 여자 4.9시간으로 30대 남자의 휴일 여가시간이 0.8시간 더 길다.

평균 여가시간(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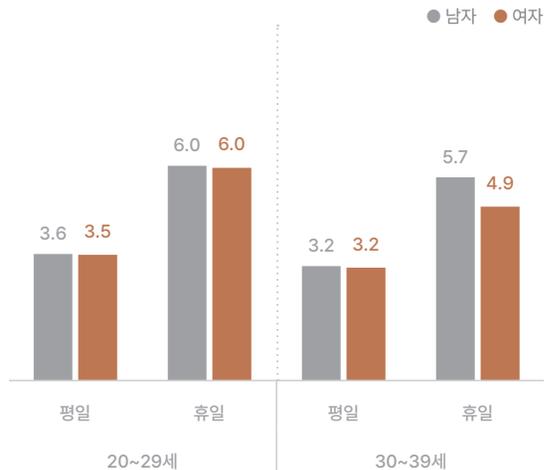
(단위: 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성별 여가시간(2023)

(단위: 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비용 충분도

Sufficiency of Leisure Expenditure

지표정의 여가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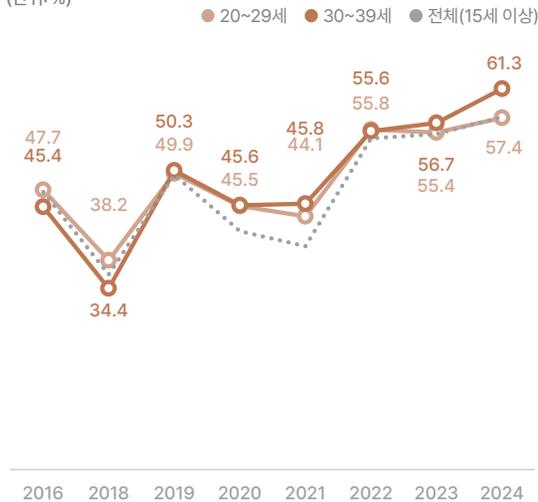
해당연령 20~39세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비용의 충분 정도(7점 척도)에 대해 '충분하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청년층의 여가비용 충분도는 지난 1년간 지출한 여가비용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준다. 여가비용 충분도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의 감소 이후 증가 추세이다. 15세 이상 전체 연령과 비교해보면, 20대와 30대 모두 코로나 19시기의 감소폭이 전체 연령에 비해 더 완만한 것을 보여준다.
- 연령대별로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0대는 38.2%, 30대는 34.4%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0대는 57.4%, 30대는 61.3%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이후로는 20대와 30대의 여가비용 충분도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0대가 20대보다 3.9%p 높다.
- 성별로 보면 2023년 기준 20대의 여가비용 충분도는 남자 56.1%, 여자 54.9%로 남자가 1.2%p 더 높고, 30대의 경우 남자가 58.9%, 여자가 54.3%로 남자가 4.6%p 더 높아 30대에서 성별 차이가 더 크다.

여가비용 충분도(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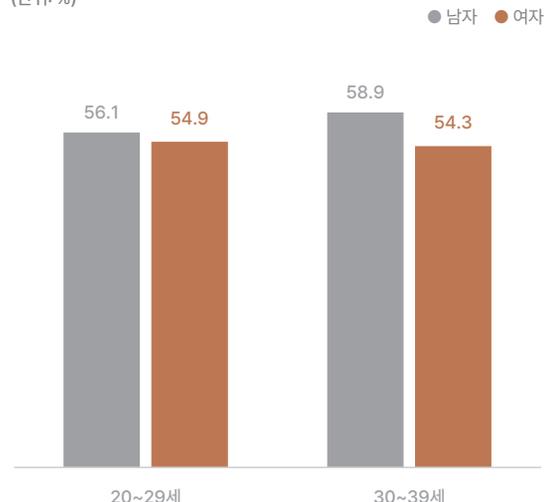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성별 여가비용 충분도(202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Accessibility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지표정의 공공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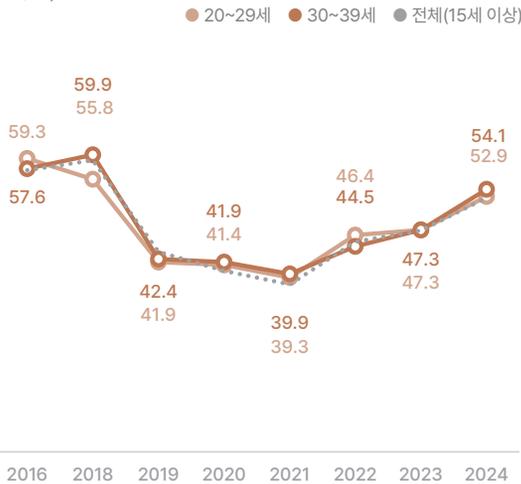
해당연령 20~39세

측정방법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은 이용하기에 충분한지(7점 척도)에 대해 '충분하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낮아진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대와 30대 청년층 뿐 아니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문화·여가 시설 충분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24년에는 20대 52.9%, 30대 54.1%로 20대, 30대 절반 이상이 문화·여가 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20대는 5.6%p, 30대는 6.8%p 증가하였다.
- 20대와 30대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20대는 남자 46.4%, 여자 48.1%, 30대의 경우 남자 45.9%, 여자 48.8%로 20대와 30대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문화·여가시설 충분도가 높은 편이다.

문화·여가시설 충분도(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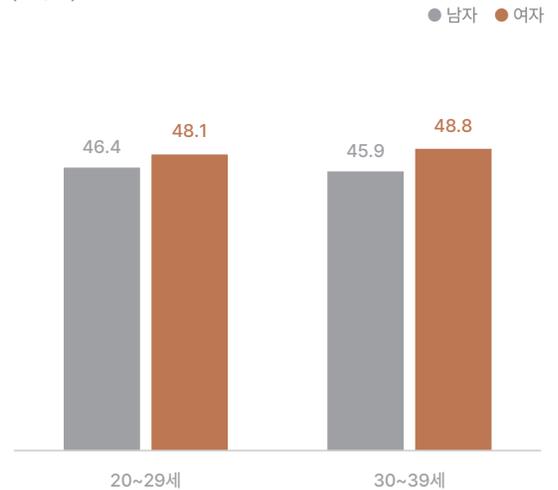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성별 문화·여가시설 충분도(202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 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지표정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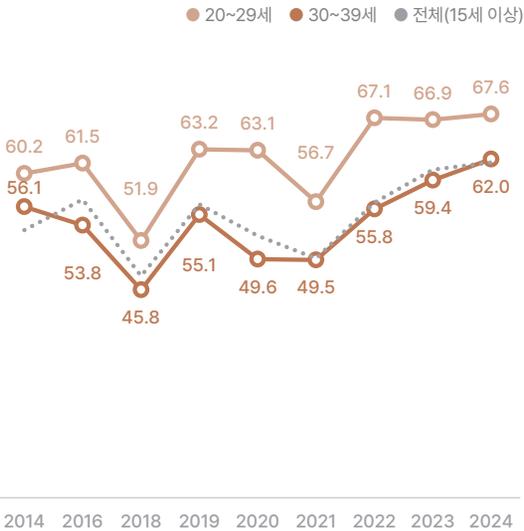
해당연령 20~39세

측정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는지(7점 척도)에 대해 '만족한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20대와 30대 청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15세 이상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시계열 추세가 유사하다.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두 차례의 감소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지 혹은 증가하고 있다. 감소 시기는 2018년과 코로나19 시기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회복하여 증가하고 있다.
- 연령별 만족도를 보면, 20대가 30대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30대와 15세 이상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여가생활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20대는 2021년부터 만족도가 감소하여 코로나19 시기 초기인 2020년에는 여가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성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대에 따라 남녀간의 여가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23년 기준 20대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남자 65.8%, 여자 68.2%로 여자가 2.4%p 더 높은 반면, 30대는 남자 62.0%, 여자 56.5%로 남자가 5.5%p 더 높다. 이는 휴일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충분도에서 나타나는 30대에서의 성별 차이와 유사하다.

여가생활 만족도(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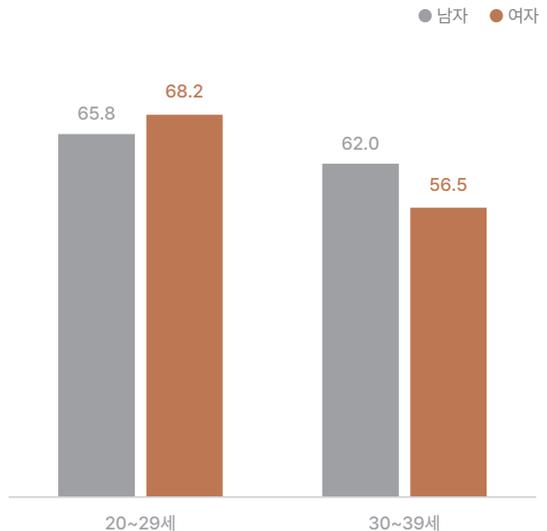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202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

지표정의 삶에서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대한 균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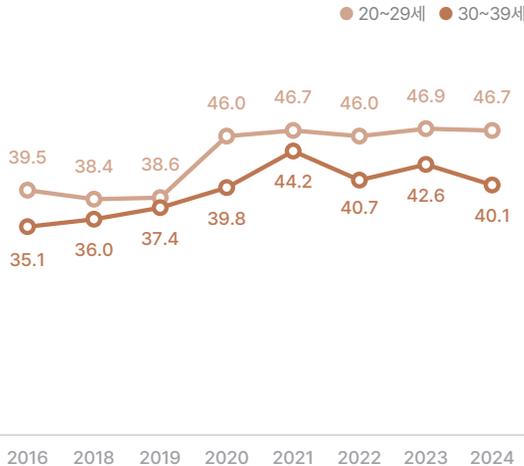
해당연령 20~39세

측정방법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7점 척도)에 대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일(학업)과 여가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20대는 46.7%, 30대는 40.1%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0대는 30대보다 일(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시계열로 보면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또한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을 보여주는 데 20대와 30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20대는 2020년에 46.0%로 전년 대비 7.4%p 증가한 이후 큰 변화없이 46%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0대는 2020년 39.8%, 2021년 44.2%로 증가하여 2021년에 증가폭이 오히려 더 크다. 이후 2022년 40.7%, 2024년 40.1%로 일(학업)-여가 균형 정도가 감소하였다.
-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20대와 30대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20대에서 성별 차이가 4.9%p로 30대(2.4%p)보다 더 크다. 성, 연령별 비교 결과, 20대 여성이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이 가장 조화롭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학업)-여가생활 균형(2016~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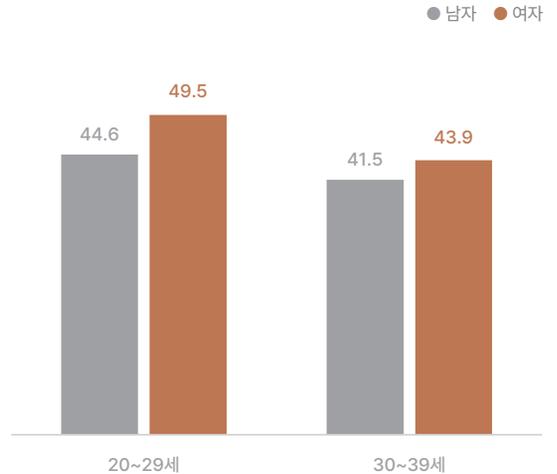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성별 일(학업)-여가생활 균형(2023)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05

고용·임금

EMPLOYMENT·WAGE

고용률

실업률

첫 취업 소요기간

시간당 임금

업무자율성 정도

일자리 만족도



고용·임금이란?

고용·임금은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여건과 관련된 영역이며,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층에게 더욱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와 고용 상황은 청년층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첫 일자리의 직업특성은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고용·임금 영역의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첫 취업 소요기간', '시간당 임금', '업무자율성 정도', '일자리 만족도' 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첫 취업 소요기간'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업무자율성 정도'는 청년의 역량 발휘, 자아실현과도 유관하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 만족도', '시간당 임금' 등의 지표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와 임금 여건의 거시적, 미시적 상황을 살펴 보았다.

최근 추세

고용률 (15~29세)



실업률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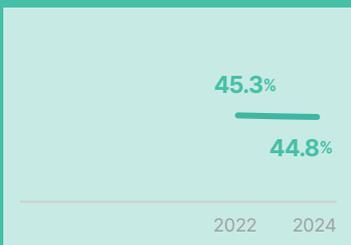
첫 취업 소요기간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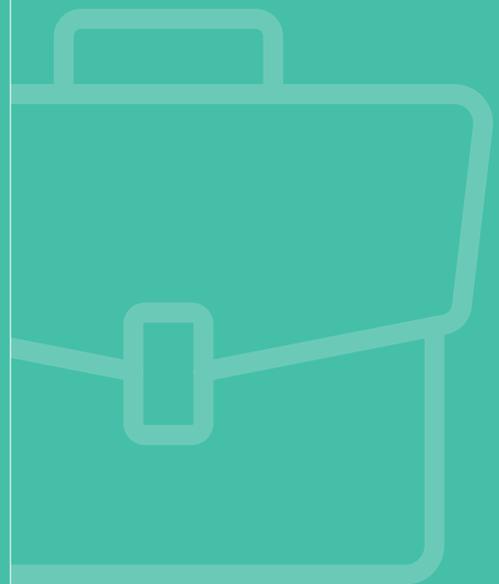
시간당 임금 (15~29세)



업무자율성 정도 (일하는 시간, 19~34세)



일자리 만족도 (19~34세)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정의 청년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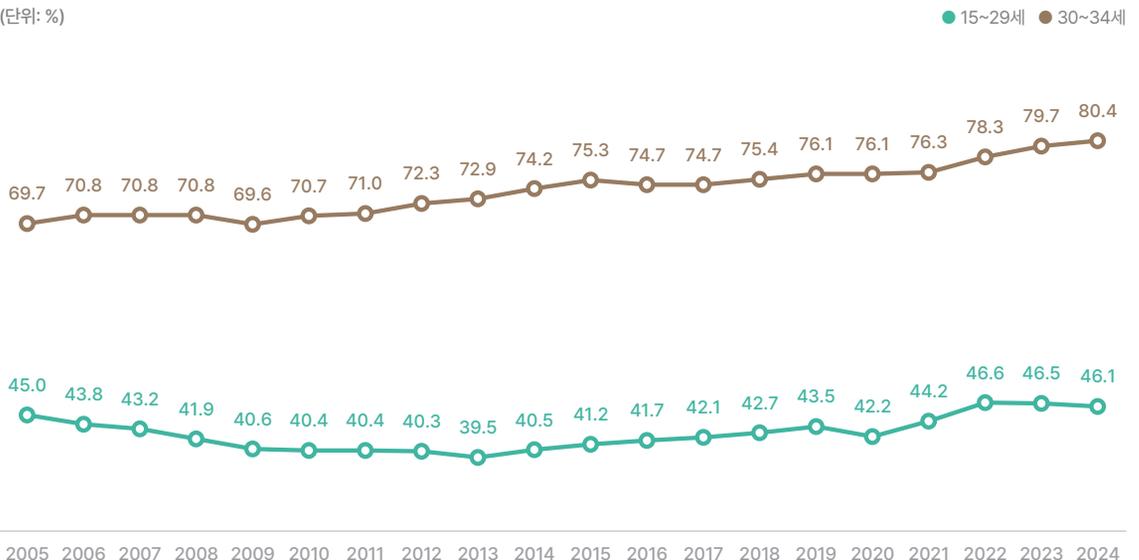
해당연령 15~34세

측정방법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포함)의 비율

- 청년 고용률은 청년 고용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적지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15~29세 고용률은 2005년 45.0%,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41.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39.5%로 최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2022년 46.6%, 2024년 46.1%로 나타난다. 30~34세 고용률은 15~29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2005년 69.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78.3%, 2024년 80.4%이다. 2024년 기준 두 연령집단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15~29세는 46.1%, 30~34세는 80.4%로 차이는 34.3%p 이다.
- 성별로 보면 15~29세는 아직 노동시장 진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단계로 특히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여성보다 늦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다. 15~29세의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남성은 43.7%, 여성은 48.4%로 여성이 4.7%p 높다.
- 30~34세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충분히 이뤄진 시기로 특히 남성의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89.8%, 2015년 90.0%, 2022년 87.0%, 2024년 86.6%로 2015년 최고점 이후 소폭 하락 추세이다.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48.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결혼·출산의 지연과 여성의 노동시장 적극적 참여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68.5%, 2024년 73.5%로 남성과의 격차가 많이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2005~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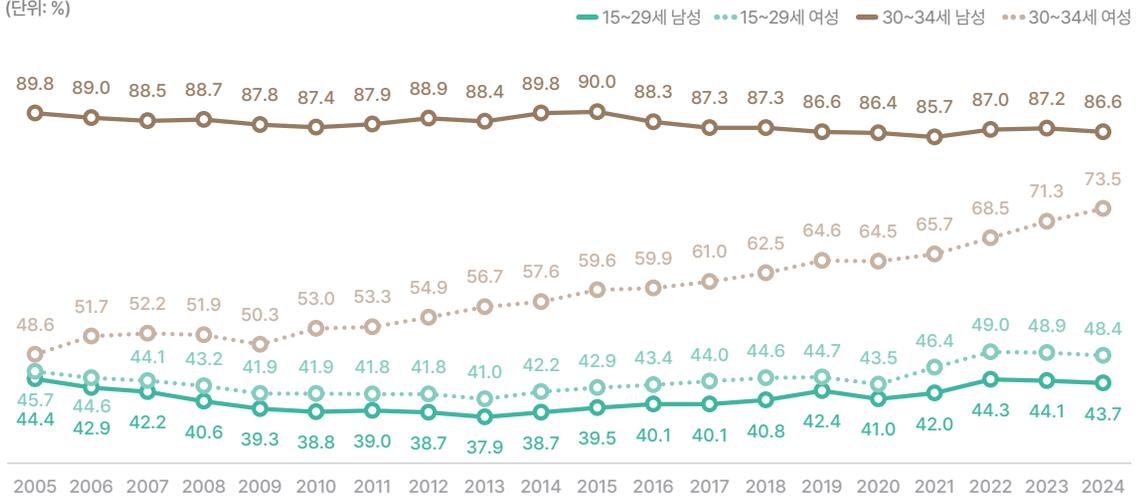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OECD 국가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23년 OECD 국가 15~29세의 평균 고용률은 55.3%, 우리나라는 46.5%로 1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79.9%), 아이슬란드(75.5%), 호주(72.0%) 등이다. 성별 OECD 국가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북유럽 및 영미국가들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국가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이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률이 4.8%p 높다.

성·연령별 고용률(200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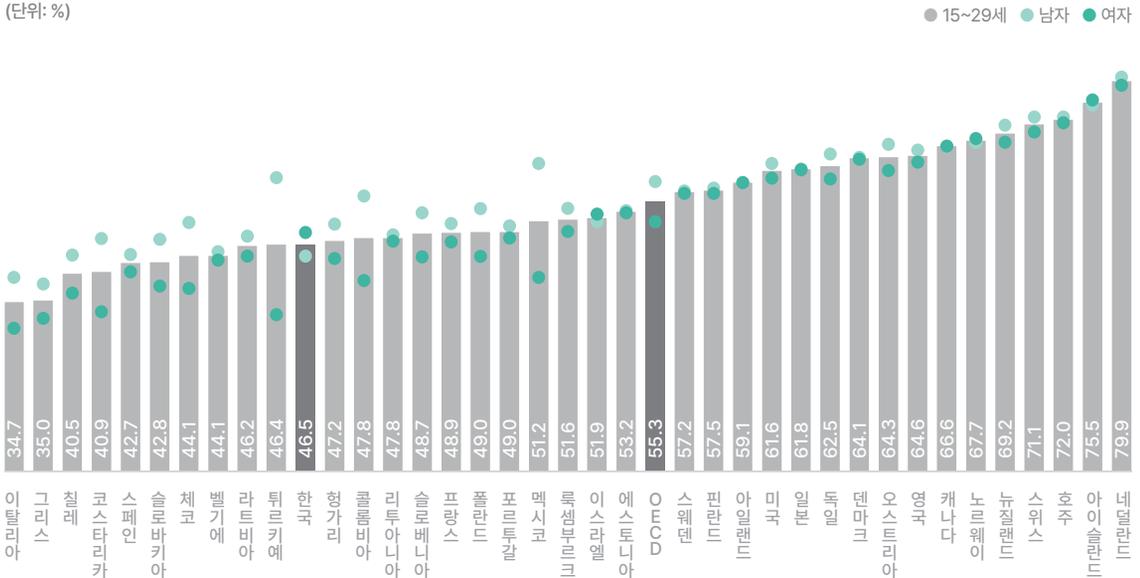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국가 15~29세 고용률(2023)

(단위: %)



출처 OECD, DATA(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정의 청년 인구 중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연령 15~34세

측정방법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청년의 비율

- 실업률은 고용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 준다. 15~29세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0%로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24년 5.9%이다. 성별로 보면, 15~29세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나 그 격차는 점차 감소하여, 2015년 2.7%p, 2024년 0.5%p이다.
- 30~34세 청년의 실업률은 3~4%대로 15~29세보다 낮은 수준이며, 성별 차이도 작은 편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5년에는 남성 3.3%, 여성 3.2%였으나,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실업률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을 추월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남성의 실업률(3.2%)이 여성(2.9%)보다 소폭 높다.
-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사람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15~29세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5.1%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4년 15.6%를 기록해 여전히 실업률과는 9.7%p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15~29세 실업률(2015~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 용어설명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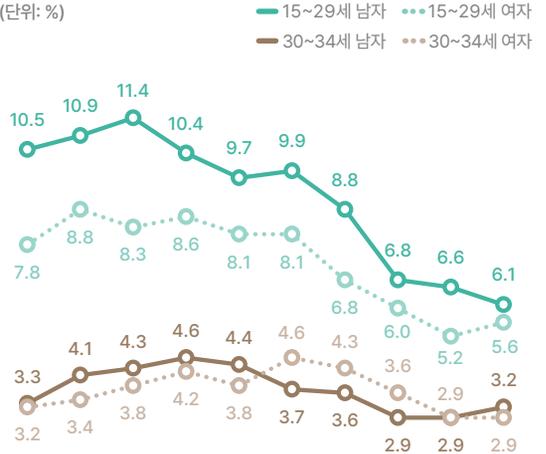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성·연령별 실업률(2015~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경제활동인구조사」

첫 취업 소요기간

Average Time to First Employment

지표정의 최종 학교 졸업(종퇴) 후 첫 취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해당연령 15~29세

측정방법 최종 학교 졸업자(종퇴자)의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개월 수

-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걸리는 평균 기간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긴 편이다. 이 지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학교 졸업자의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개월수로 산출하였다.
-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25년 11.3개월로 전년 대비 0.2개월 감소하였으며, 2015년(10.0개월)에 비하면 1.3개월 증가하였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여성보다 길었다. 격차는 2015년 4.7개월에서 2019년 2.3개월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격차가 다시 벌어져 2025년 3.8개월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대졸 이상보다 길었다. 2025년 첫 취업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가 16.5개월 대졸 이하가 8.8개월로 7.7개월 더 길다. 교육정도별 첫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는 2015년 9.6개월에서 연도별로 등락은 있으나 2024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성별 첫 취업 소요기간(2015~2025)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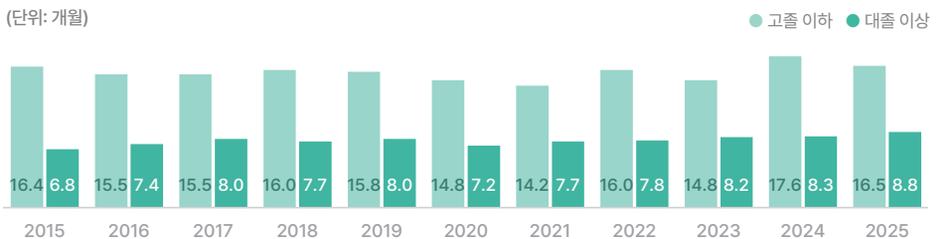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주 15~29세 대상 5월 기준 자료임.

교육정도별 첫 취업 소요기간(2015~2025)

(단위: 개월)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주 15~29세 대상 5월 기준 자료임.

시간당 임금

Hourly Wage

지표정의 청년의 성별, 교육정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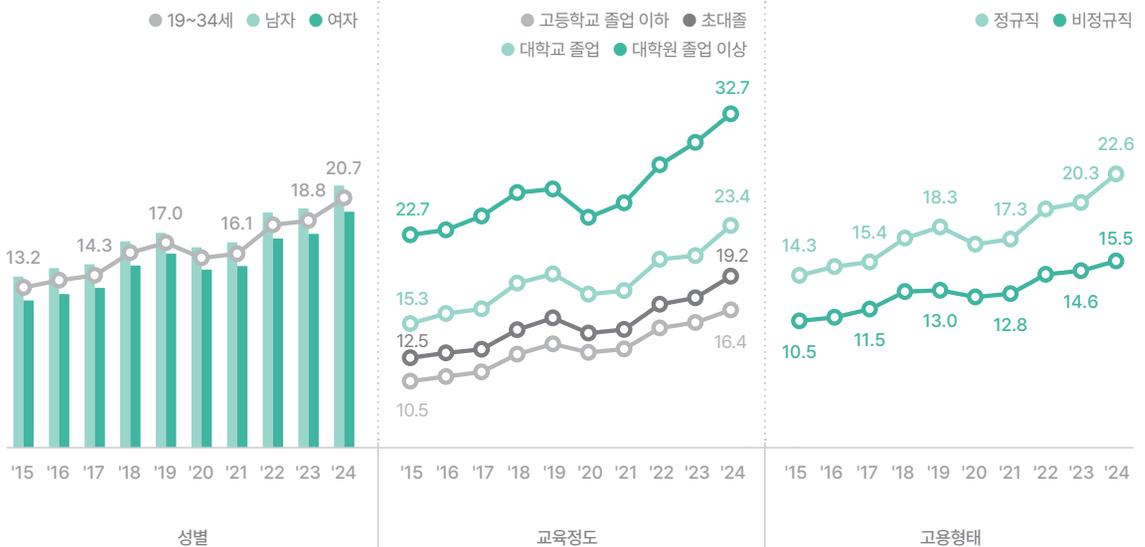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9~34세 근로자의 6월 기준 한달간 시간당 임금

-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청년층(19~34세)은 정규교육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로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청년층의 하위특성별 임금 수준을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청년층 월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4년 20,660원으로 2023년(18,799원)에 비해 1,861원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 교육정도별 시간당 임금은 2024년 기준으로 고졸 이하(16,442원), 초대졸(19,237원), 대졸(23,416원), 대학원 졸업 이상(32,657원)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대졸보다 9,241원 많고, 초대졸보다 13,420원 많다.
- 고용형태별로는 2024년 정규직은 22,644원, 비정규직은 15,459원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7,185원 더 많다. 201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73원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정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2015~2024)

(단위: 천 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

주 ① 시간당 임금총액(6월 기준) = 월 임금총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특별급여 ÷ 12)) ÷ 총 근로시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업무자율성 정도

Degree of Job Autonomy

지표정의 일자리에서 자신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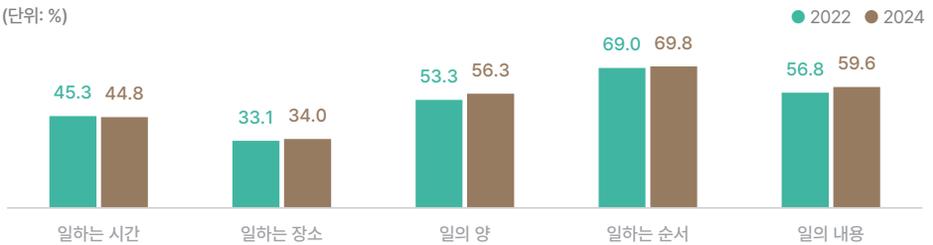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양, 일하는 순서, 일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 결정, 변경 불가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 전적으로 내가 결정)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 ⊕)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업무자율성이란 일자리에서 자신이 자율성을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 근로자의 자율성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업무자율성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삶실태조사’에서 일하는 시간, 장소, 양, 순서, 일의 내용에 대한 자율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 2024년 업무 자율성 항목 중 일하는 순서(69.8%), 일의 내용(59.6%), 일의 양(56.3%), 시간(44.8%), 장소(34.0%)의 순으로 높았다. 2022년 대비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자율성은 감소하였고, 다른 항목들은 증가하였으며, 일의 양(3.0%p), 일의 내용(2.8%p)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다.
- 업무 자율성 정도별 비율로 살펴보면, ‘회사가 결정, 변경 불가’는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우 각각 65.9%, 55.2%로 높은 편이며, 일하는 순서는 30.2%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다. ‘전적으로 내가 결정’ 하는 비율은 일하는 순서가 15.4%로 가장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의 내용과 일의 양은 각각 10.6%, 9.5% 정도이며, 일하는 시간과 장소는 각각 8.8%, 7.7%로 낮은 편이다. 일하는 장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비율도 19.8%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율성이 낮은 편이다.

업무자율성 정도(2022,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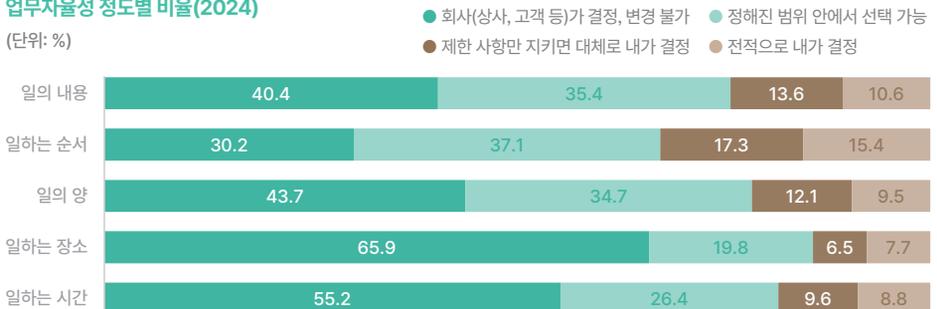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업무자율성 정도별 비율(2024)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지표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청년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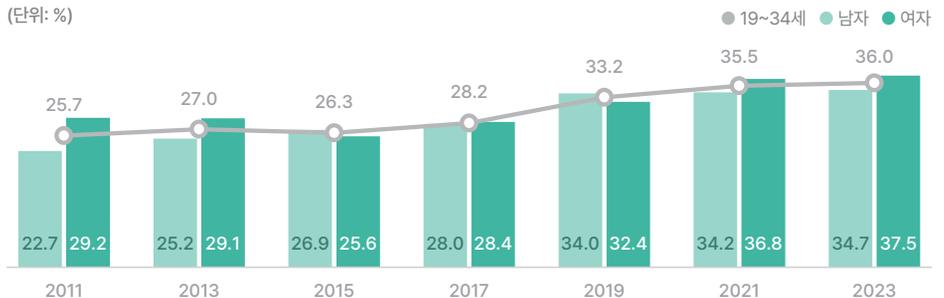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만족정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청년 개인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 만족도는 2023년 36.0%로 2021년보다 0.5%p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25.7%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 성별로 보면 2023년 남성이 34.7%, 여성이 37.5%로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으며, 2015년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는 25~29세와 30~34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23년에는 25~29세의 일자리 만족도가 36.0%로 30~34세(33.8%)보다 높다. 19~24세는 2013년 25.9%에서 2015년 21.5%로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로 2023년 39.8%로 증가했다. 2011~2019년까지는 청년층 중 가장 낮았으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일자리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 일자리 만족도(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임금근로자 대상임.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임금근로자 대상임.



06

소득·소비·자산

INCOME·CONSUMPTION·WEALTH

가구 중위소득
가구부채 비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소비·자산이란?

소득·소비·자산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청년의 물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속한 가구 유형의 특성과 소득(자산)의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이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구주인 경우 등 가구구성 형태가 다양하며, 소득이나 자산의 집계기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 수준에서의 소득과 자산을 개인단위로 환산하여 청년의 소득(자산)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가계의 현금 흐름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소득'과 '소비'를, 가계의 재무 상태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산'과 '부채'를 꼽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현금 흐름 및 재무 상태의 출발이 소득일 수 있다는 점을 이를 기반으로 '가구 중위소득', '상대적 빈곤율', '가구부채 비율'과 함께 소득과 소비생활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지표를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가구 중위소득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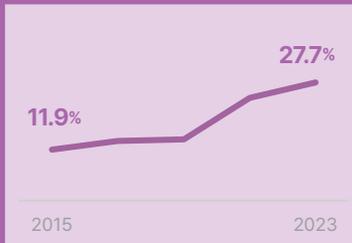
가구부채 비율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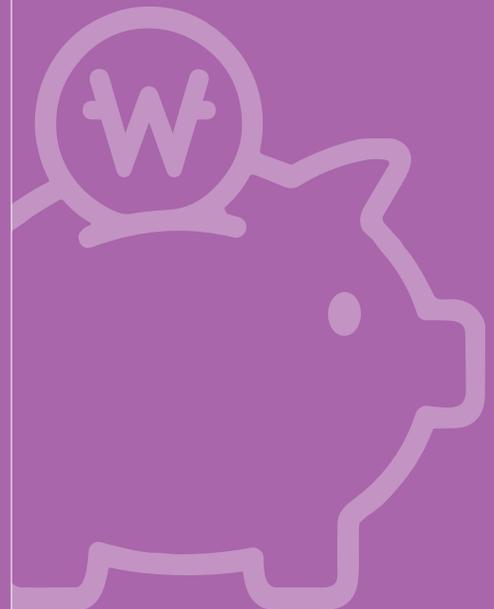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 (19~34세)



소득 만족도 (19~34세)



소비생활 만족도 (19~34세)



가구 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지표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값

해당연령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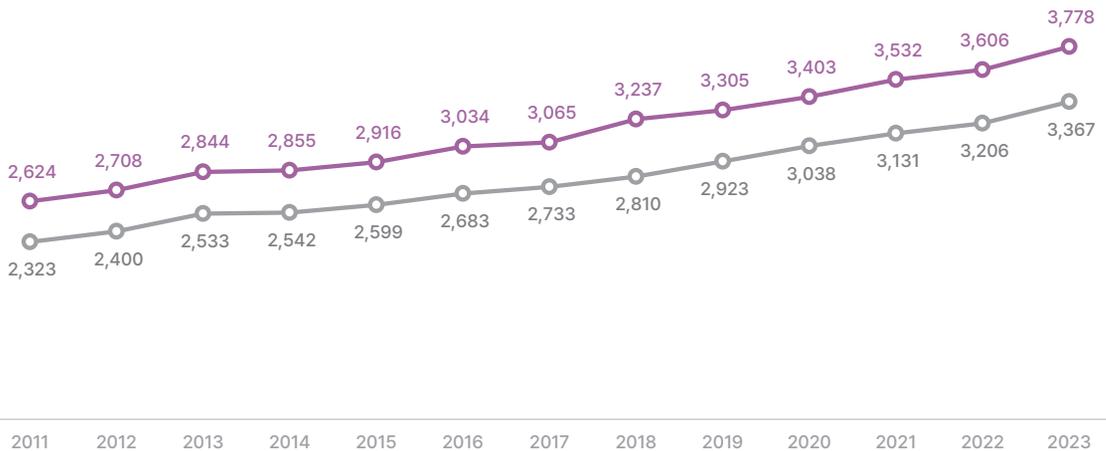
측정방법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금액의 19~34세 개인 단위 중위값임(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실질금액)

-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한 청년의 중위소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청년의 중위소득은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금액의 청년 개인 단위 중위값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연도 별 값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적용하여 실질금액으로 환산하였다.
- 청년 중위소득의 2023년 명목금액은 4,216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인 3,757만 원보다 많다.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자신의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고령층이 포함된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한 금액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 원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중위소득(실질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구 중위소득(실질 금액, 2011~2023)

(단위: 만 원)

● 19~34세 ● 전체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출처 ① 처분가능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금액임

②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적용한 실질금액임

가구부채 비율

Household Debt Rate

지표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구 부채총액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총액 평균 ÷ 청년 가구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평균) × 100

- 가계부채는 주택자금, 생활자금,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필요 시 해당 가구에 도움을 주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년의 가계부채는 청년의 현재 삶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적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청년 가구주의 가구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전년 대비 11.7%p 감소했다. 2012년 84.3% 이후 2021년 187.4%까지 빠르게 증가한 후 2022년 184.5%, 2023년 172.8%로 최근 2년간 감소하였다. 청년 가구의 부채 비율은 2012년 전체 가구소득 대비 부채 비율(156.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상승하여 2021년에는 전체 가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2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3년 기준 전체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 청년 가구주의 가구부채 비율은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3년 기준으로 남성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81.8%로 여성 가구주 가구(152.0%) 보다 높다. 2022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55.4%p 증가하면서 가구부채 비율의 성별 차이가 감소하였다.

가구부채 비율(2012~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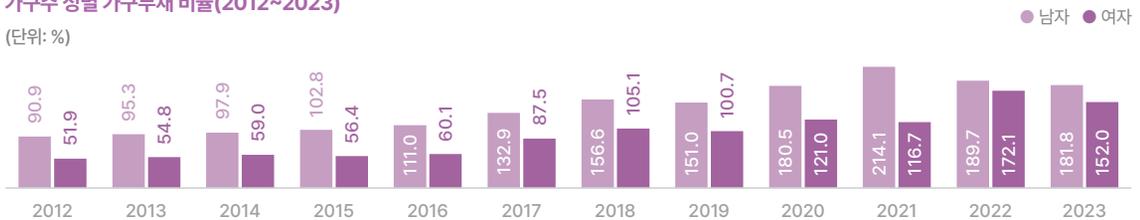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주 ① 19~34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② 연도는 부채측정 기준시점임.

가구주 성별 가구부채 비율(2012~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주 ① 19~34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② 연도는 부채측정 기준시점임.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정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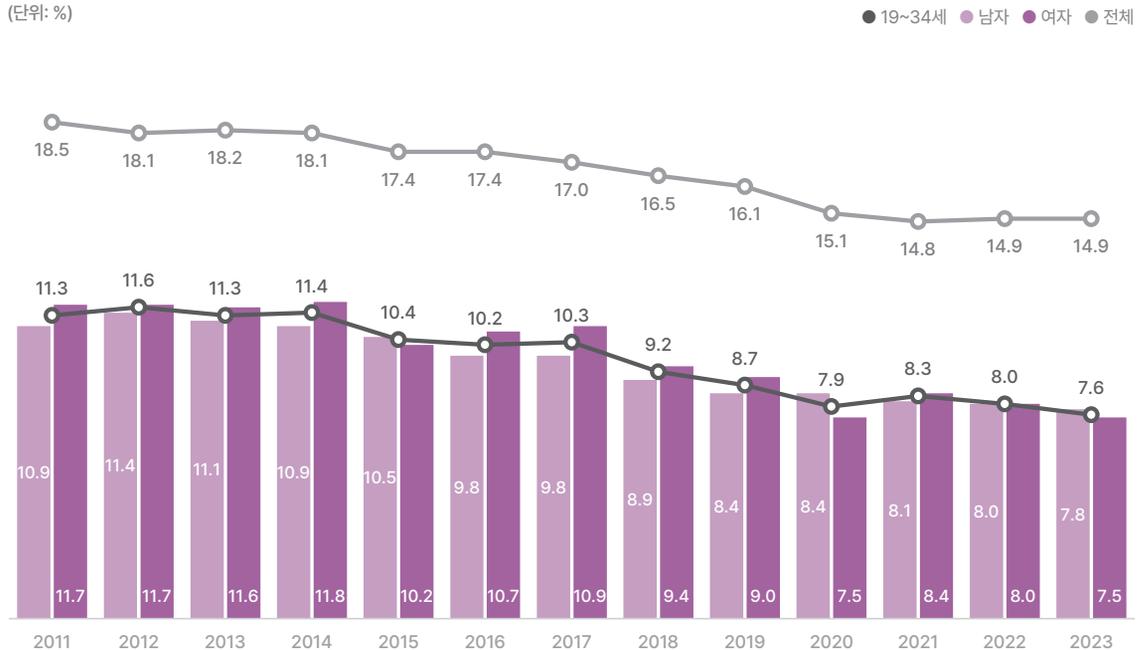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이하 청년 인구 ÷ 전체 청년 인구) × 100

-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 2023년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7.6%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4.9%보다 절반 가량 낮은 비율이다. 청년들은 생애주기상 학생에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포괄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소득도 있지만, 가구 전체소득을 개인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 2011년부터 전체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물론 청년의 상대 빈곤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의 상대 빈곤율은 2011년 11.3%에서 2023년 7.6%로 하락하였다.
- 청년 상대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으며 시기에 따라 남녀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 2020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다. 2023년 기준 남성 청년의 상대 빈곤율은 7.8%, 여성 청년의 상대 빈곤율은 7.5%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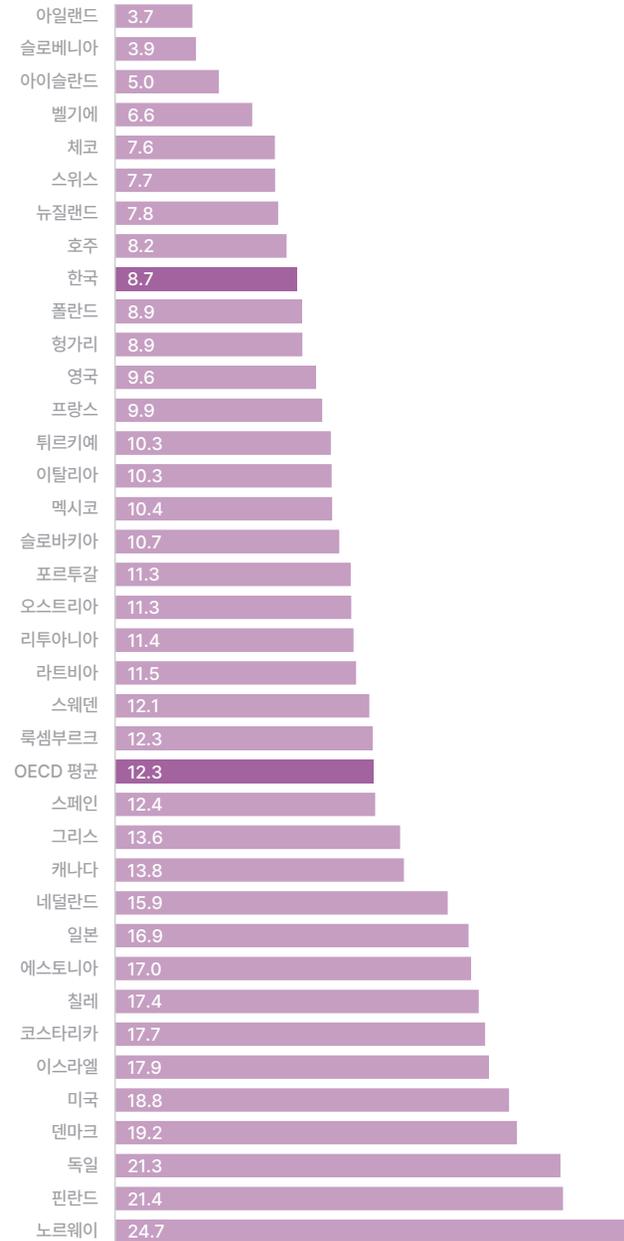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 18~25세 상대적 빈곤율의 OECD 국가 간 비교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는 8.7%로 OECD 평균인 12.3%보다 낮으며, 37개국 중 9위에 위치한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5% 이하로 낮은 편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은 20% 이상으로 높다.

OECD 국가 18~25세의 상대적 빈곤율(2022)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주 ① 18~25세 대상 상대적 빈곤율임.

② 아이슬란드는 2017년, 호주는 2020년, 일본 및 독일은 2021년 값임.

③ OECD 평균은 그래프에 제시된 3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평균한 값임.

소득 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지표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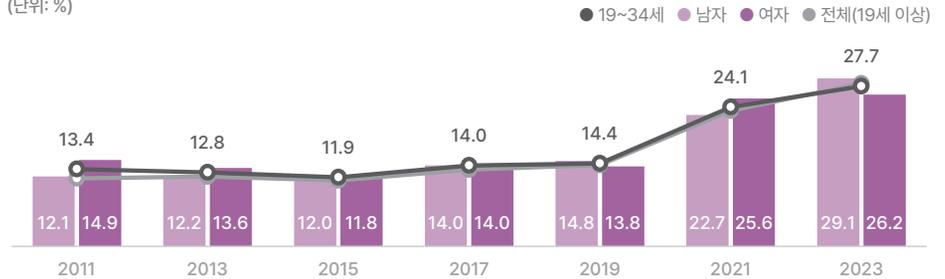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소득이 있는 청년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소득 만족도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만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 상 노동시장의 진입 초기 단계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청년들의 소득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정책적으로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 청년층의 소득 만족도는 2023년 27.7%로 2021년(24.1%)에 비해 3.6%p 상승하였다. 소득 만족도는 2011년 13.4%에서 2019년 14.4%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1년 24.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전체 인구(19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 변화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성별이나 연령별로 소득 만족도에서 일관된 차이는 없으며, 2023년 기준 남자의 소득 만족도는 29.1%로 여자(26.2%)보다 높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득 만족도가 2021년까지는 가장 낮았으나 2023년 29.6%로 2021년보다 7.1%p 상승하여 가장 높다. 반면, 30~34세는 2021년 가장 높았으나 2023년 26.3%로 1.0%p 증가에 그쳐 청년층 중 가장 낮다.

소득 만족도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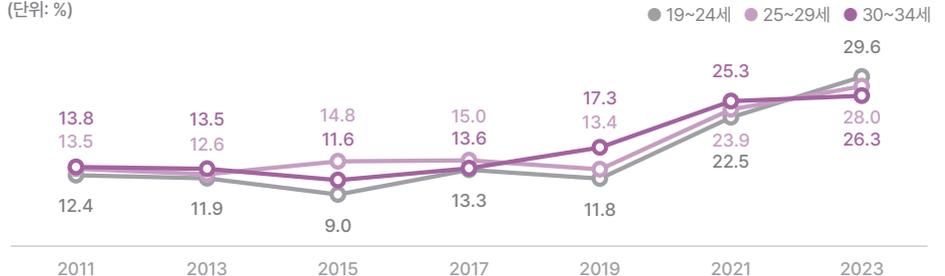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연령별 소득 만족도(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소비생활 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지표정의 자신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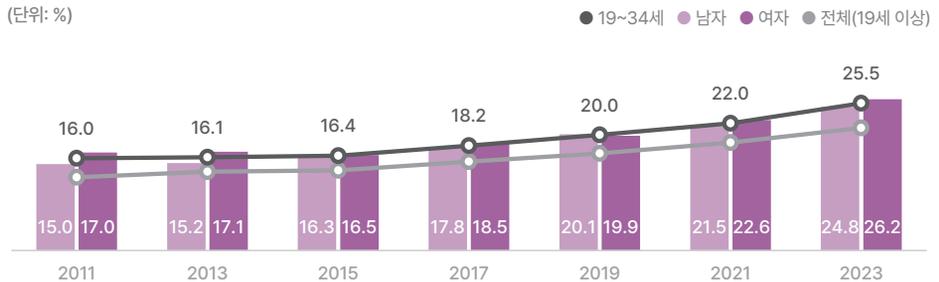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며, 나아가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고 독립적인 소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소비 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청년들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2023년 25.5%로 2021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소비생활 만족도는 2011년 16.0%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전체 인구(19세 이상)의 소비생활 만족도 역시 증가 추세이나 청년층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2023년 전체 인구는 21.2%, 청년층은 25.5%이다.
-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아 2023년 남자는 24.8%, 여자는 26.2%이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에는 28.8%로 나타났다. 25~29세와 30~34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을 전후로 과거에는 25~29세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최근에는 30~34세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아 2023년 25~29세 23.4%, 30~34세는 24.4%이다.

소비생활 만족도 (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연령별 소비생활 만족도(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사회적 교류
사회적 지지
외로움 경험률
대인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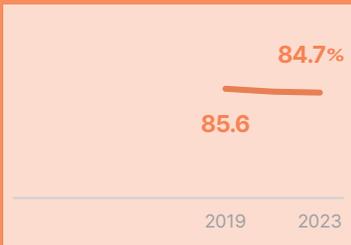


가족·공동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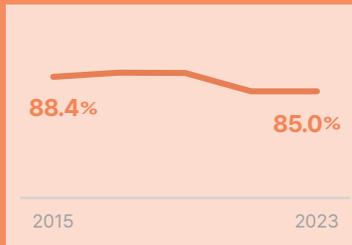
가족·공동체는 사회적 관계의 다차원적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청년세대는 일반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이 시작되고, 사회생활을 통해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관계의 양과 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폭은 좁더라도 주관적 만족감이나 지원은 충분할 수 있고, 넓더라도 만족감이나 지원이 미충족될 수도 있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양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교류', 사회적 관계가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관계의 결핍정도를 보여주는 '외로움 경험률',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인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최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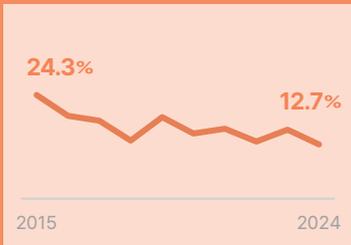
사회적 교류 (지인, 19~34세)



사회적 지지 (이야기상대, 19~34세)



외로움 경험률 (19~29세)



대인관계 만족도 (19~34세)



가족관계 만족도 (19~34세)



사회적 교류

Social Network

지표정의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을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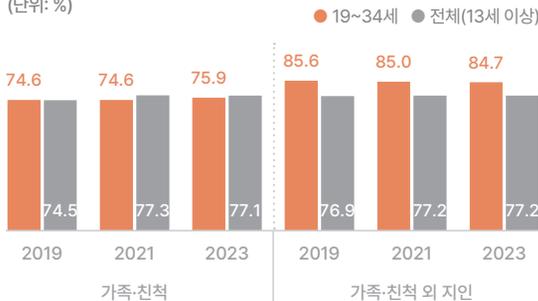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평소에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과 교류하는 평균 인원 수

- 사회적 교류는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 가족·친척과 교류하는 청년의 비율은 2023년 75.9%로 2019년 74.6%에서 증가하였으며, 지인과의 비율은 2019년 85.6%에서 2023년 84.7%로 0.9%p 감소하였다. 가족·친척보다는 지인과 교류하는 비율이 높고, 13세 이상 전체 인구와 비교해도 지인과의 교류 비율이 월등히 높다.
- 2023년 기준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친척은 3.1%p, 지인은 4.9%p 더 높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전후로 사회적 교류의 대상이 지인에서 가족·친척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친척과 교류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75% 내외였으나 30~34세에서 77.8%로 증가하고, 지인과의 교류 비율은 86%대에서 81.0%로 감소한다.
- 교류하는 사람의 수는 가족·친척은 3.0명이고, 가족·친척 외 지인은 4.3명이다. 남자는 교류하는 지인이 4.5명이고, 여자는 4.1명으로 교류 비율은 여자가 더 높지만, 교류하는 사람의 평균 인원은 남자가 더 많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류하는 지인의 수가 감소하여 19~24세는 4.7명인 반면 30~34세는 4.0명으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교류 비율(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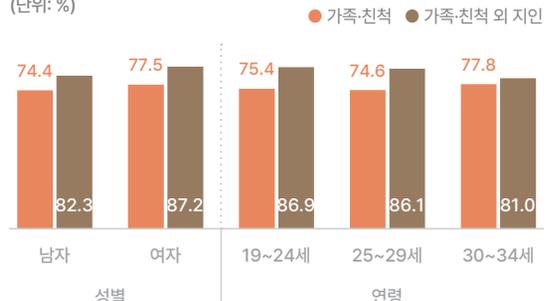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성·연령별 사회적 교류 비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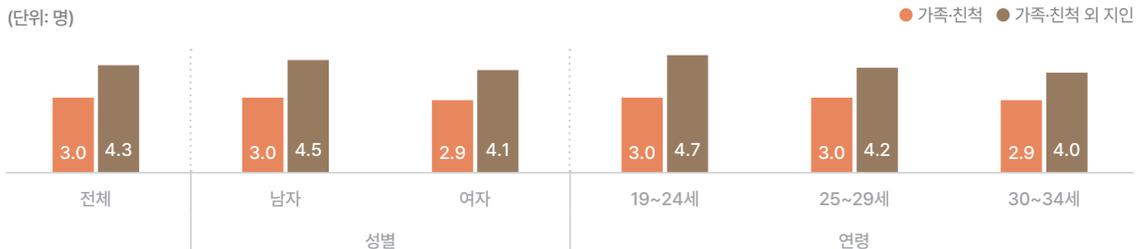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성·연령별 교류하는 평균인원(2023)

(단위: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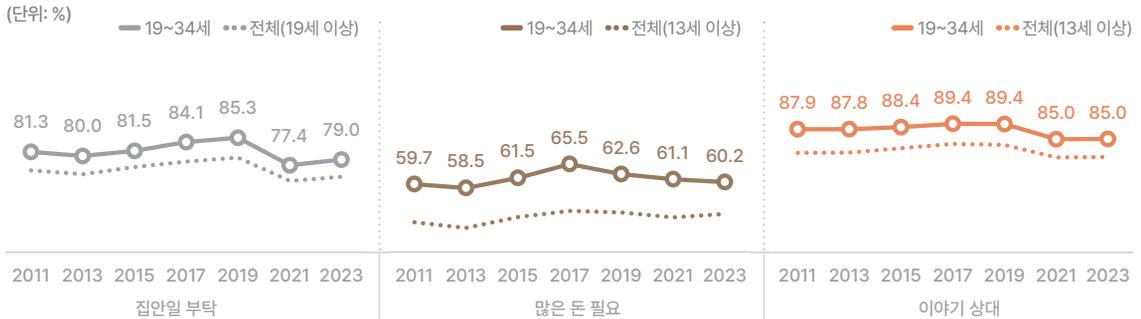
지표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갑자기 큰 돈이 필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 필요' 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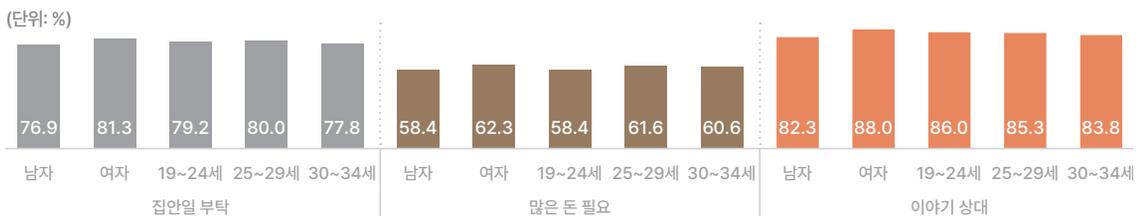
- 사회적 지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사람의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낙심/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가 가장 높아서 2023년 85.0%이고,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때'는 79.0%,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60.2% 순이었다.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지지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성별로 보면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집안일 부탁' 4.4%p, '많은 돈 필요' 3.9%p, '이야기 상대' 5.7%p 차이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각 상황에 따라 연령별 차이를 보여 '집안일 부탁'은 25~29세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80.0%로 높고, 30~34세는 77.8%로 낮은 편이다. '많은 돈 필요'한 경우에는 25~29세가 61.6%로 높고, 19~24세는 58.4%로 낮다. '이야기 상대'는 19~24세가 86.0%로 높고 30~34세가 83.8%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2011~2023)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성·연령별 사회적 지지(2023)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외로움 경험률

Loneliness

지표정의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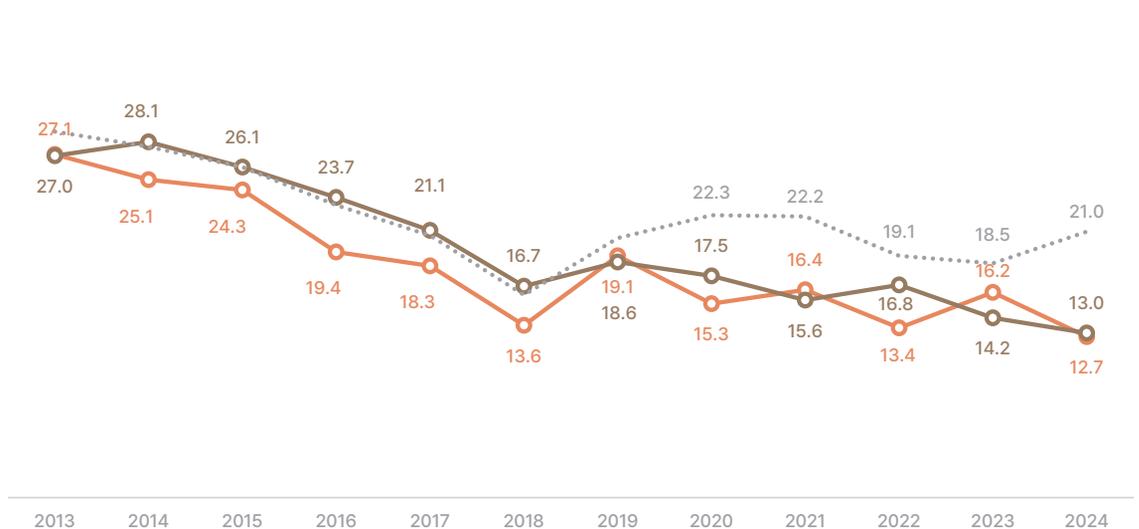
측정방법 '나는 외롭다'에 대한 질문(4점 척도)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연결 정도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연결이나 교류가 많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9~29세 27.1%, 30~39세 27.0%에서 2018년 19~29세 13.6%, 30~39세 16.7%로 최저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19~29세 19.1%, 30~39세 18.6%로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 등락의 변화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계열적 양상은 전체 인구(19세 이상)와도 유사하나 전체 인구의 외로움 경험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전체 인구(19세 이상)의 외로움 경험률이 2019년부터 증가하여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증가 추세였던 반면, 청년층은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을 보여준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이전에는 30~39세가 21.1%~28.1% 수준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19~29세(18.3%~27.1%)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 이후 19~29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9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낮다.

외로움 경험률(2013~2024)

(단위: %)

● 19~29세 ● 30~39세 ● 전체(19세 이상)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대인관계 만족도

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지표정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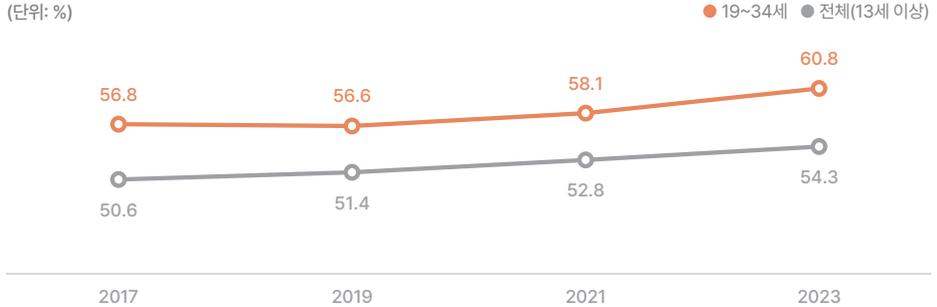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만족 정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청년의 비율

- 대인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관계의 질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관계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청년이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7년 56.8%, 2019년 56.6%, 2021년 58.1%, 2023년 60.8%로 절반 이상이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13세 이상)와 비교하여 약 6%p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 연령별로 보면, 2023년 기준 19~24세 66.6%, 25~29세 60.8%, 30~34세 55.2%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19~24세, 25~29세는 대인관계 만족도가 2017년 이후 상승 추세인 반면, 30~34세는 2021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7%p 상승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201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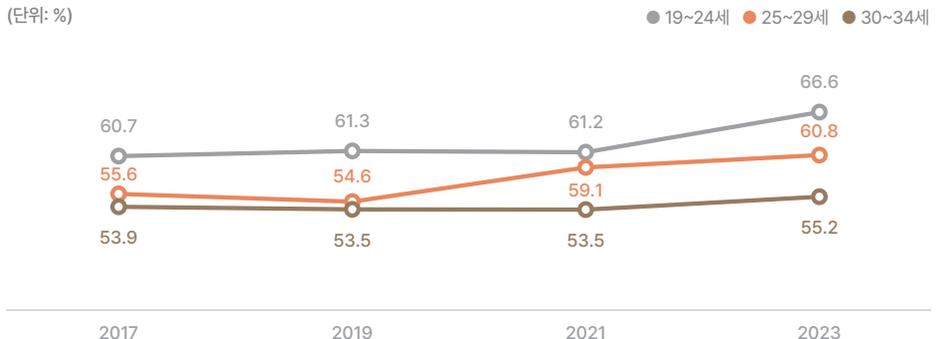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연령별 대인관계 만족도(2017~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가족관계 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지표정의 자신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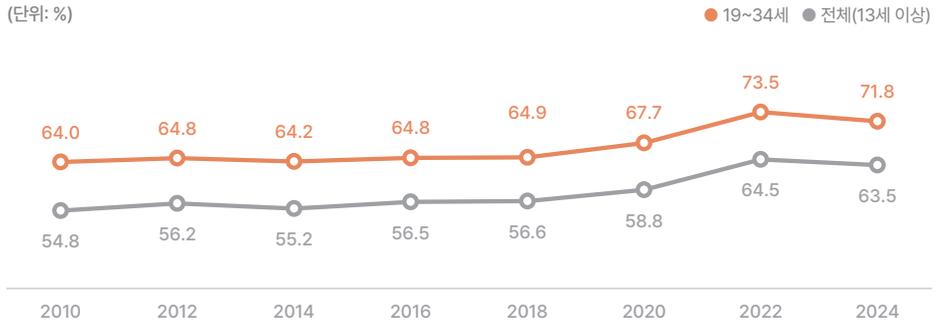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만족 정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청년은 기존 가족에서 독립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생애주기 단계에 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관계의 일부인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청년이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0년 64.0%에서 증가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73.5%로 가장 높았으며, 2024년 71.8%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70%를 상회한다. 13세 이상 전체 연령(2024년 63.5%)과 비교하면 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 청년의 세부 특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만족도가 75.1%로 25세 이상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5~29세와 30~34세의 만족도는 각각 69.7%, 70.8%로 비슷한 수준이다.

가족관계 만족도(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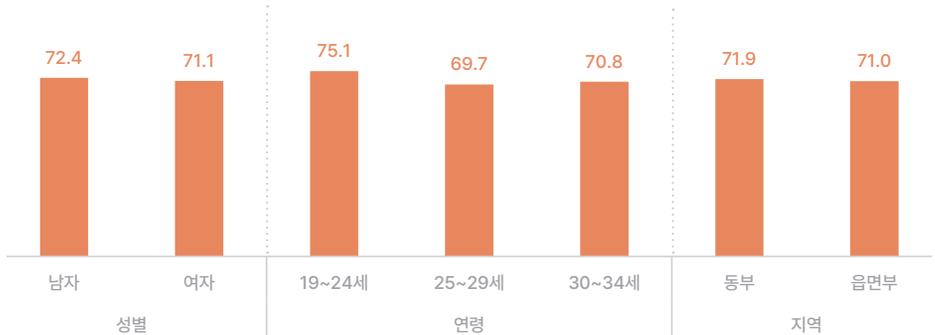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전체 인구는 2010년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임.

성·연령·지역별 가족관계 만족도(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선거투표율

정치활동 효능감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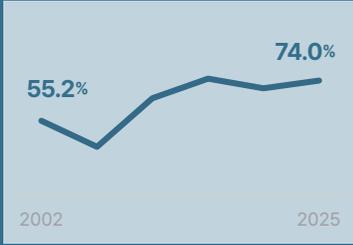


시민참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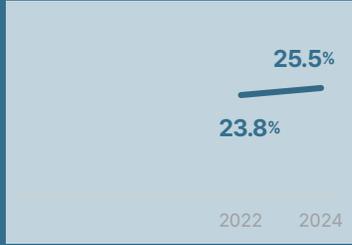
시민참여 영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사회, 시민사회의 균형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높으며, 청년층은 성인으로 진입하면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접하게 되는 시기이다. 시민참여는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지표로 '선거투표율', '정치활동 효능감'을 포함하였고, 사회참여를 보기 위한 지표로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참여율'을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선거투표율 (2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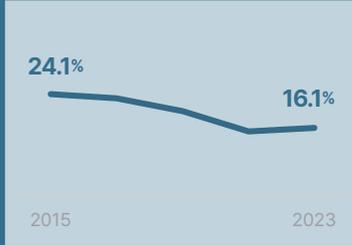
정치활동 효능감 (정치참여 능력, 19~34세)



자원봉사 참여율 (19~34세)



기부 참여율 (19~34세)



선거투표율

Voter Turnout Rate

지표정의 전체 청년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한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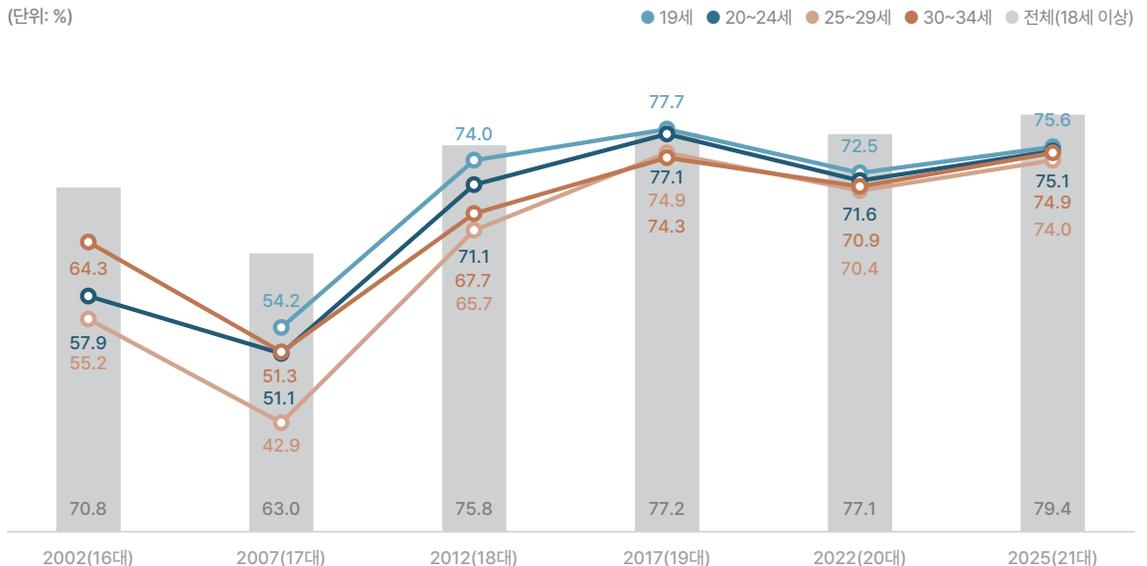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대통령선거 청년 투표자수 ÷ 대통령선거 청년 선거인수) × 100

- 청년층의 선거투표율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최저 투표율(42~54.2%)을 보인 후 2012년과 2017년(74~77%)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에 다소 낮아졌지만,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의 대통령선거 투표율과 유사하다. 최근 2025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22년 대비 3~5%p 가량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연령별로 보면, 25~29세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 특히 2007년에는 42.9%로 다른 청년층에 비해 8%p 이상 낮았으나, 2012년에는 65.7%로 증가하여 다른 청년층과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20~24세와 30~34세 투표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부터는 20~24세의 투표율이 더 높다. 선거투표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2007년부터 포함된 19세는 청년층 중 투표율이 가장 높다. 2007년에 54.2%에서 2012년 74.0%, 2017년 77.7%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대통령선거 투표율(77.2%)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청년의 연령별 투표율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으로,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9~34세 청년층 전체에서 74~75% 내외의 투표율을 보인다.

대통령선거 투표율(2002~2025)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정치활동 효능감

Political Effic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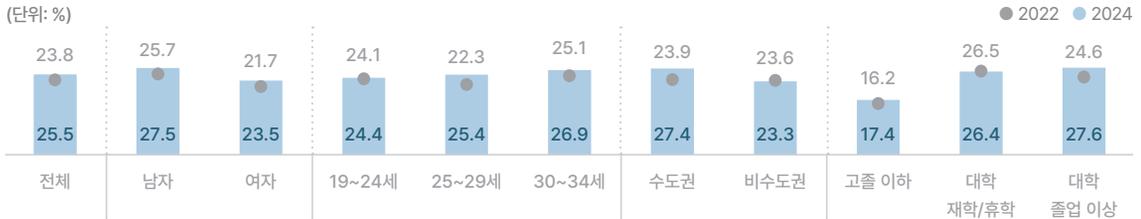
지표정의 자신의 정치 활동(능력)에 대해 효능감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세 가지 문항 ①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②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점 척도) 중 '그렇다'(4~5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참여 능력, 정치발전 영향력 및 타인수용성 세 항목으로 측정된다. 정치참여 능력과 정치발전 영향력은 2024년 각각 25.5%, 21.6%로 2022년 대비 1.7%p, 2.8%p 상승하였다. 특히, 정치참여 능력에서 수도권 지역 청년 인구의 정치참여 능력은 2024년 27.4%로 2022년 대비 3.5%p 상승하였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23.3%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정치참여 능력과 정치발전 영향력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
-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7.0% 2024년 35.8%로 약간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22년에서 2024년 2.7%p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0.5%p 상승하여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가 성별로 증감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19~24세에서 2022년 38.5%에서 2024년 35.2%로 3.3%p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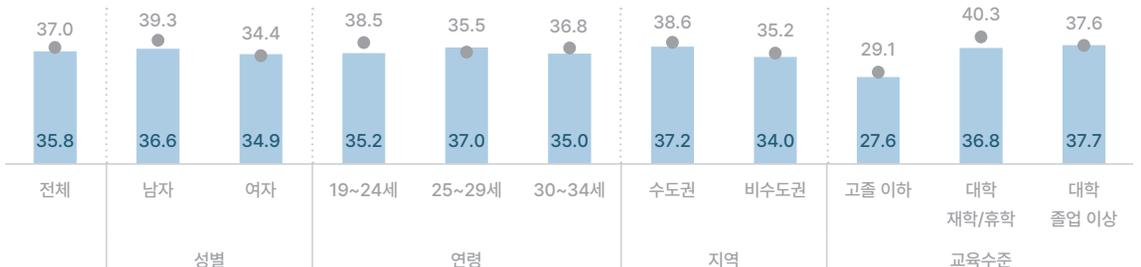
정치참여 능력(2022, 2024)



정치발전 영향력(2022, 2024)



타인수용성(2022, 2024)



자원봉사 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지표정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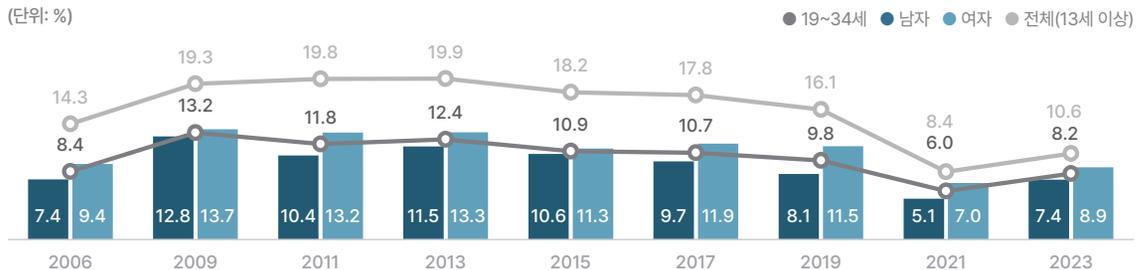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3년 8.2%로 전체 인구(13세 이상)의 참여율인 10.6%보다 낮으며, 2006년 8.4%에서 2009년 13.2%로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6.0%로 2019년(9.8%) 대비 3.8%p 감소하였으며, 2023년 8.2%로 2.2%p 증가하였다.
- 청년층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참여율 변화와 비슷하다.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중고등학생 참여율의 감소로 전체 인구 참여율은 2021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이후 2023년 2.2%p 증가하여 청년과 전체 인구의 참여율 차이는 2019년 6.3%p에서 2023년 2.4%p로 감소하였다.
- 성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남자 7.4%, 여자 8.9%로, 지속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참여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25세 전후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24세의 참여율은 2009년 20.9%에서 감소 추세이나 2021년을 제외하면 10% 이상을 상회하여 2023년 12.4%이다. 반면 25~29세는 2023년 6.4%이며, 30~34세는 2009년을 제외하면 10% 미만으로 2023년 참여율은 5.8%이다.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2006~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전체 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임.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2006~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기부 참여율

Participation in Charitable Do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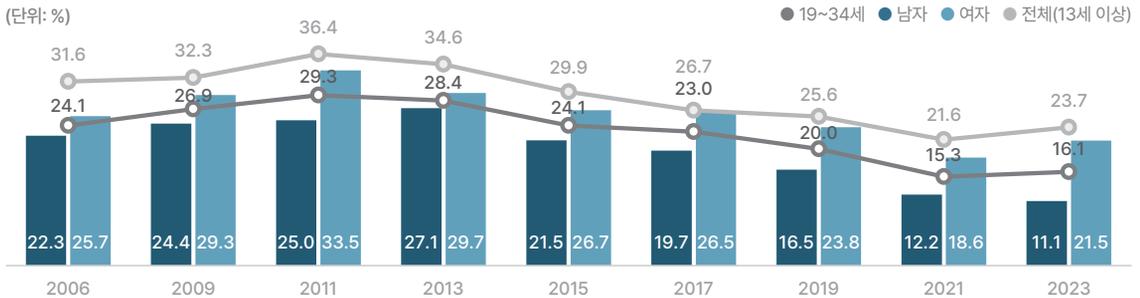
지표정의 기부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기부는 자원봉사 참여와 함께 긍정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과 관련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되는 지표이다. 청년층의 기부 참여율은 2006년 24.1%에서 2011년 29.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21년 15.3%까지 하락하였으며, 2023년 16.1%이다.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는 자원봉사 참여율과 유사하나 자원봉사 참여율(2023년 8.2%)보다 기부 참여율이 두 배 가량 높다.
- 청년의 기부 참여율은 전체 인구(13세 이상)의 기부 참여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2023년 전체 인구의 기부 참여율은 23.7%로 청년보다 7.6%p 높다.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기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 남자 11.1%, 여자 21.5%로 여자가 10.4%p 더 높다.
- 기부 참여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19~24세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2006년 이후 전반적인 변화 추세는 유사하여 19~24세는 2006년 14.6%에서 2013년 18.9%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1.3%이며, 25~29세는 2006년 22.8%에서 2011년 30.6%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5.5%이고, 30~34세는 2006년 33.3%에서 2011년 37.4%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023년 21.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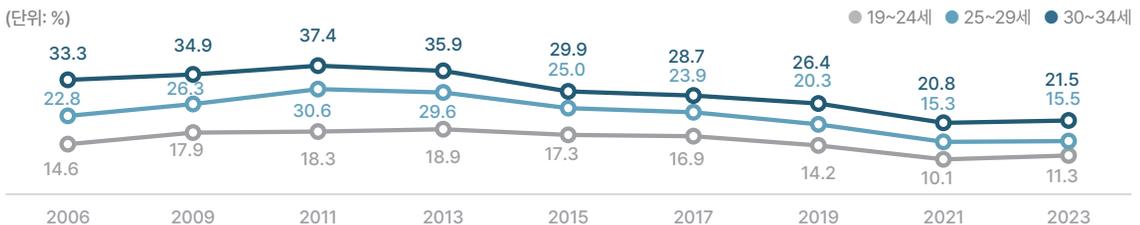
성별 기부 참여율(2006~2023)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전체 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임.

연령별 기부 참여율(2006~2023)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공정성 인식

계층이동 가능성

차별 경험률



신뢰·공정이란?

신뢰·공정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시민참여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시민적 의무와 권리, 정치참여가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신뢰가 이뤄진다고 본다. 신뢰와 공정성은 사회에 진입하거나 이제 막 사회를 진입한 청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청년 세대에게 '공정'은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청년 삶의 질에서는 해당 영역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신뢰·공정 영역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도'와 '기관신뢰도'를 포함하였으며,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인 '공정성 인식',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 '계층이동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 지표를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대인신뢰도 (19~29세)



기관신뢰도 (19~29세)



공정성 인식 (19~29세)



계층이동 가능성 (19~34세)



차별 경험률 (성별, 18~29세)



대인신뢰도

Interpersonal Trust

지표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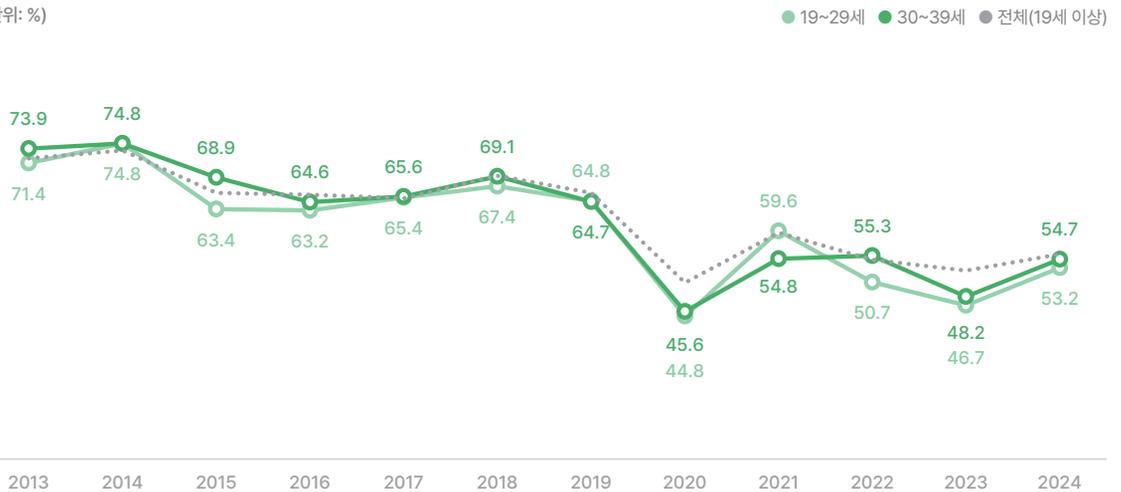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9세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대인신뢰도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낮은 신뢰로 인한 사회적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확대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 청년층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2014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다. 2014년 19~29세와 30~39세의 대인신뢰도는 74.8%였으나 2024년은 각각 53.2%, 54.7%로 약 20%p 가량 하락하였다. 지난 10여년 사이 청년들의 대인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사회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19세 이상 전체 인구의 대인신뢰도는 2014년 73.6%에서 2024년 55.6%로 18%p 감소했다.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청년층의 신뢰도가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인신뢰도의 감소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큰 변화를 보였는데, 2019년까지 65% 전후였던 대인신뢰도는 2020년 45% 전후로 약 20%p 가량 감소했다. 사회적 모임 제한 및 타인으로부터의 감염 위험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21년에는 대인신뢰도가 19~29세 59.6%, 30~39세 54.8%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정체되어 있다.

대인신뢰도(2013~2024)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전체 연령 기준은 2019년까지는 19~69세이고, 2020년부터 19세 이상임.

기관신뢰도

Institutional Trust

지표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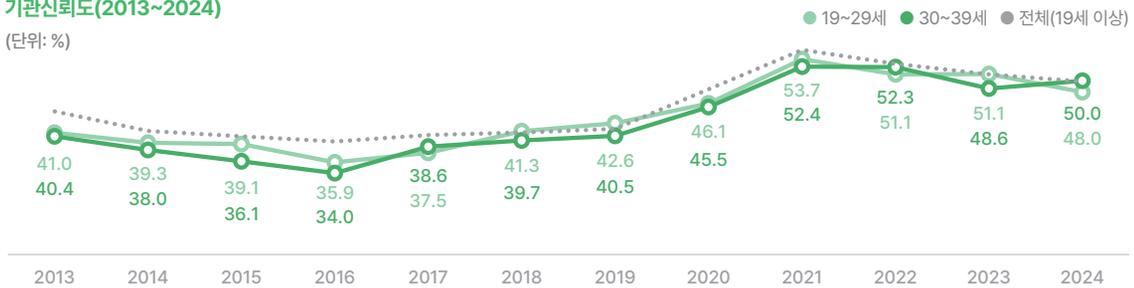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9세

측정방법 17개 기관*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 평균
17개 기관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 기관신뢰도는 사회의 제도 및 기관들의 신뢰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당성과 연결된다. 17개 기관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도는 2013년 40~41%에서 2016년 35% 전후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4년 50% 수준에 이른다.
- 2016년 19~29세 35.9%, 30~39세 34.0%에서 2021년 각각 53.7%, 52.4%까지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4년 19~29세 48.0%, 30~39세 50.0%이다. 2024년에는 30~39세의 기관신뢰도가 19~29세보다 약간 높으나,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인구(19세 이상)의 기관신뢰도는 2024년 49.8%로 청년층과 유사한 수준이다.
- 17개 기관별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국회의 경우 25% 전후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60%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연령대에도 동일하다. 한편 법원, 검찰,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의 경우 19~29세의 신뢰도가 30~39세나 전체 인구(19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관신뢰도(2013~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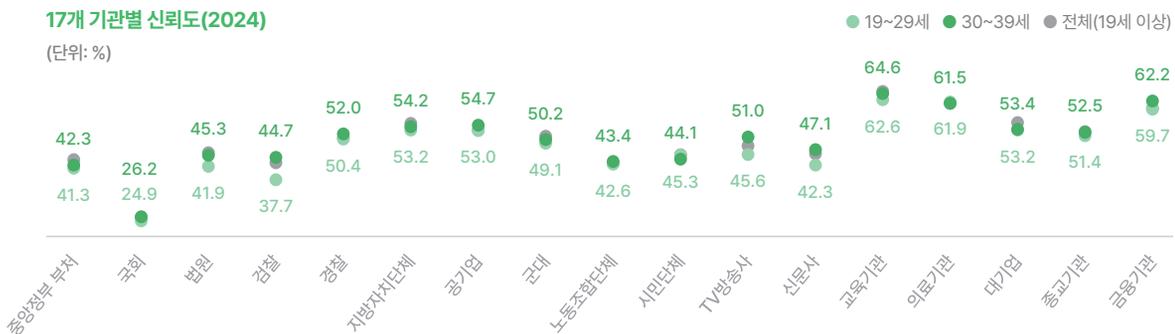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전체 연령 기준은 2019년까지는 19~69세이고, 2020년부터 19세 이상임.

17개 기관별 신뢰도(2024)

(단위: %)



공정성 인식

Perception of Fairness

지표정의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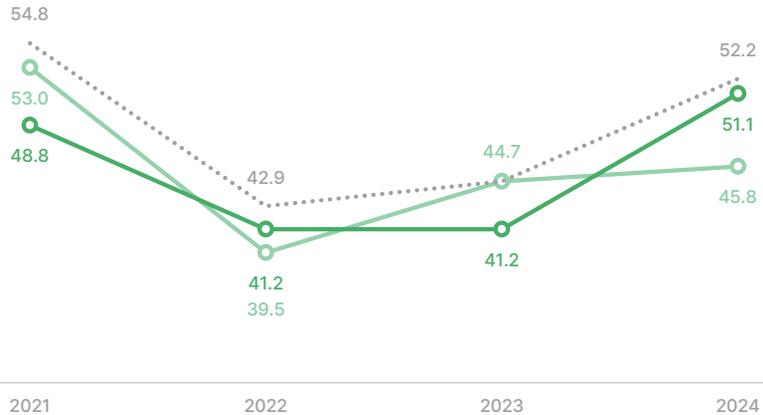
측정방법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공정성은 최근 청년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 하나이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 기회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고, 청년들이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참여 활동이나 미래희망도 높아질 수 있다.
- 청년층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정도는 2021년에는 19~29세가 53.0%, 30~39세가 48.8%에서 2022년에는 각각 39.5%, 41.2%로 감소했으며, 2021년 대비 19~29세의 감소폭이 13.5%p로 크게 나타났다. 30~39세는 2022년과 2023년에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나 2024년 51.1%로 9.9%p 증가한 반면, 19~29세는 2023년 44.7%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2024년(45.8%)에는 30~39세(51.1%)보다 5.3%p 낮다.
- 청년층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은 전체 연령(19세 이상)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정성 인식(2021~2024)

(단위: %)

● 19~29세 ● 30~39세 ● 전체(19세 이상)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계층이동 가능성

Perceived Social Mobility

지표정의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하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4점 척도)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계층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노력을 통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생망', '삼포세대'와 같은 단어들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신조어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계층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19~34세 청년의 비율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27.7%로 높아졌다. 19세 이상 연령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계층이동 가능성(22.7%)에 비해 0.4%p 낮았으나, 2019년부터는 전체 인구보다 높아져 2023년 청년은 27.7%로 전체 인구(26.4%)보다 1.3%p 높다. 청년층이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임에도 전체 인구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다.
- 성별로 보면 여성(26.4%)보다 남성(29.0%)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도시(동부) 지역(27.5%)보다 읍면부 지역(29.4%)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19~24세는 31.3%이나, 30~34세는 24.5%로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재학 이상인 경우 41.7%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는 21.6%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대학졸업자는 26.1%인 반면, 대학재학(휴학) 또는 수료는 32.1%로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계층의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이동 가능성(2017~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성·연령·지역·교육수준별 계층이동 가능성(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차별 경험률

Discrimination Experience Rate

지표정의 성별, 고용형태로 인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8~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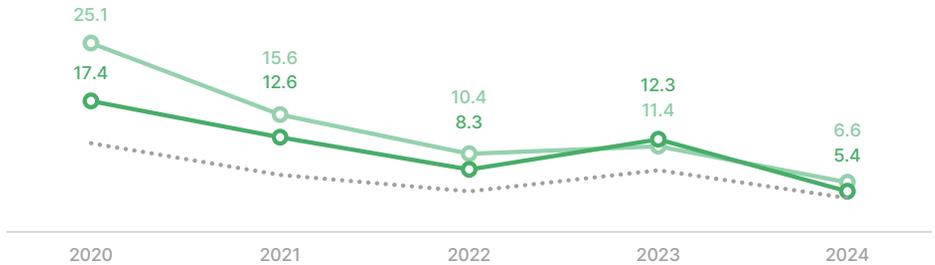
측정방법 지난 1년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차별 경험률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이 지표는 우리 사회에서의 발생하는 차별 수준이 아니라 청년 자신들이 받은 차별 경험을 보여준다. 청년이 경험한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2020년 20대 이하 25.1%, 30대 17.4%에서 2024년 각각 6.6%, 5.4%로 감소하였다. 2024년 20대 이하의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전체 인구(4.5%)에 비해 2.1%p 높다.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2020년 20대 이하 13.2%, 30대 12.9%에서 2024년 각각 4.6%, 3.5%로 감소하였다. 2024년 30대의 차별 경험률(3.5%)은 전체 인구(3.2%)와 거의 비슷한 반면, 20대 이하(4.6%)는 전체 인구에 비해 1.4%p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률(2020~2024)

(단위: %)

● 18~29세 ● 30~39세 ● 전체(18세 이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률(2020~2024)

(단위: %)

● 18~29세 ● 30~39세 ● 전체(18세 이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0

주거

HOUSING

1인당 주거면적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임대료 비율
통근통학 시간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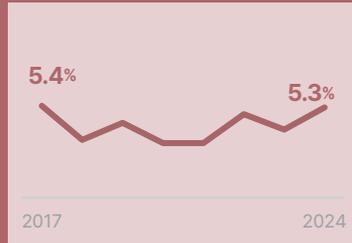
주거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주거의 질과 상태는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청년들은 세대분리가 발생하는 시기로 주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거는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어 독립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주거 영역 지표는 주거의 질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1인당 주거면적',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의 비용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주택임대료 비율',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통근·통학 시간' 지표, 그리고 주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거환경 만족도'로 구성된다. 특히, 주거의 비용과 질은 청년 정책, 주거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 온 이슈에 해당한다.

최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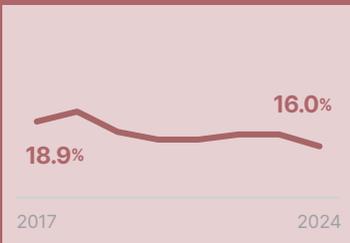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 (19~34세)



주택 이외의 거처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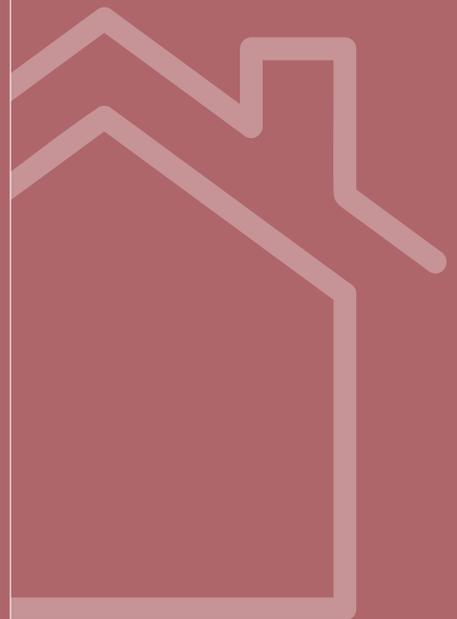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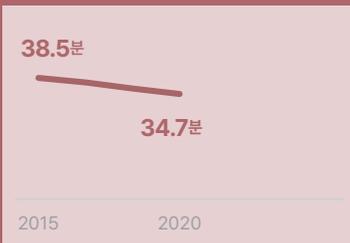
주택임대료 비율 (19~34세)



주거환경 만족도 (19~34세)



통근·통학 시간 (19~34세)



1인당 주거면적

Residential Area per Capita

지표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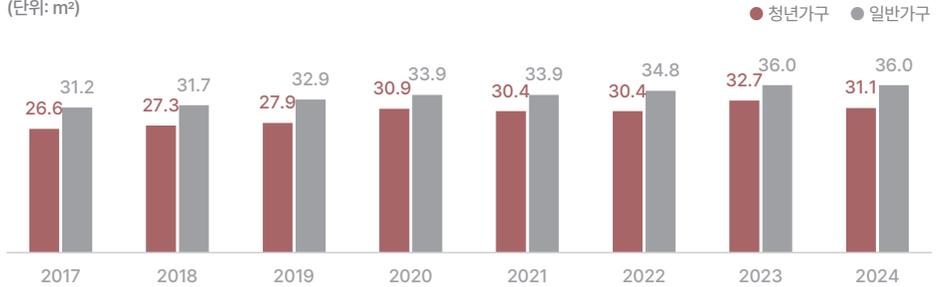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 수)의 평균

-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의 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다.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24년 31.1m²로 전년 대비 1.6m²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감소하였다. 전체 일반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23년 36.0m²로 청년 가구(31.1m²)보다 넓다. 또한 전체 일반가구의 주거면적은 2017년 31.2m²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최근 정체되었다.
-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2024년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9.7m², 비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는 32.8m²이다.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면적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9m²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을 앞질렀으나 2024년 다시 감소하였다. 2024년 청년 가구의 주거면적 감소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면적 감소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20년 이후 큰 폭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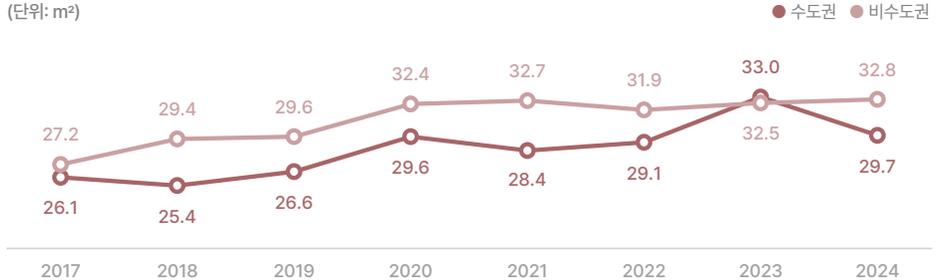
(단위: m²)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2017~2024)

(단위: m²)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 이외의 거처

Non-Housing Accommodation

지표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 가구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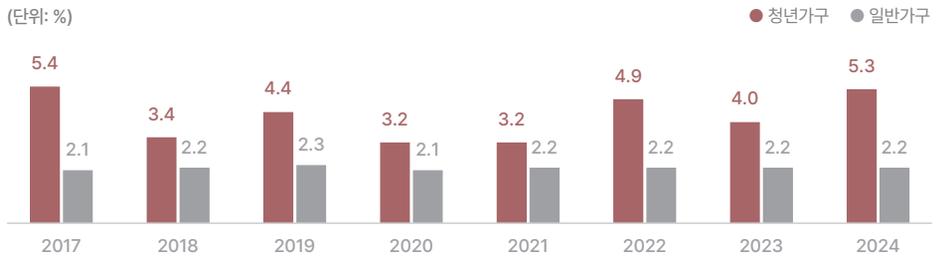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주택 이외 거처 거주 청년 가구 ÷ 청년 가구주 가구) × 100

-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은 청년 주거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오피스텔, 집단시설 가구를 제외한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기타 유형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 청년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오피스텔 제외)은 2024년 5.3%로 일반가구의 주택 이외 거처 비율(2.1~2.3%) 보다 높으며, 2017년 5.4% 이후 2021년 3.2%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2017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은 7.0%로 수도권(3.8%)보다 높았으나, 2019년부터는 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이 더 높아져 2024년에는 5.7%이다. 청년 가구주 가구에서 2024년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이 2023년 2.0%에서 2024년 4.8%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2017~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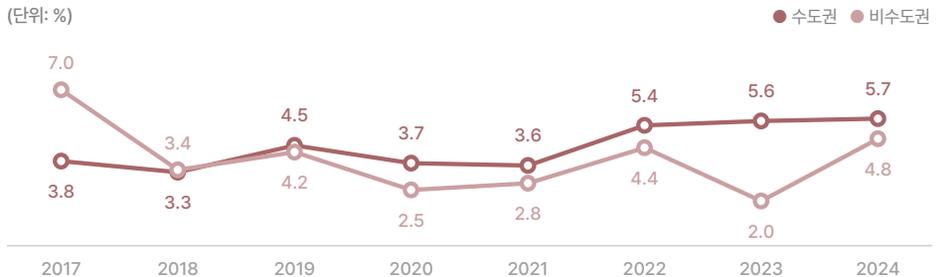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오피스텔, 집단시설가구를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임

지역별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2017~2024)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오피스텔, 집단시설가구를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임

주택임대료 비율

Rent-to-Income Ratio

지표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R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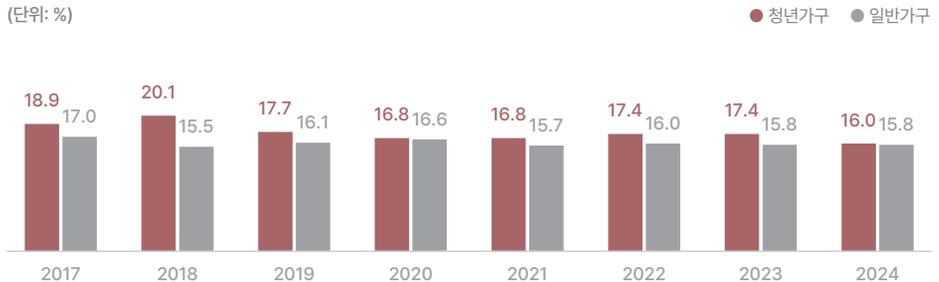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 주택임대료는 가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소득에서 주거비의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주거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청년 가구주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로, 중위월임대료를 중위월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18년 20%를 초과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과 2023년 소폭 상승했으나, 2024년 16.0%로 감소했다. 전체 일반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8%로 2017년 이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전체 일반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 지역별로 보면, 2024년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주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하여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비수도권 거주 청년 주택임대료 비율 15.0%보다 3.3%p 높다.

주택임대료 비율(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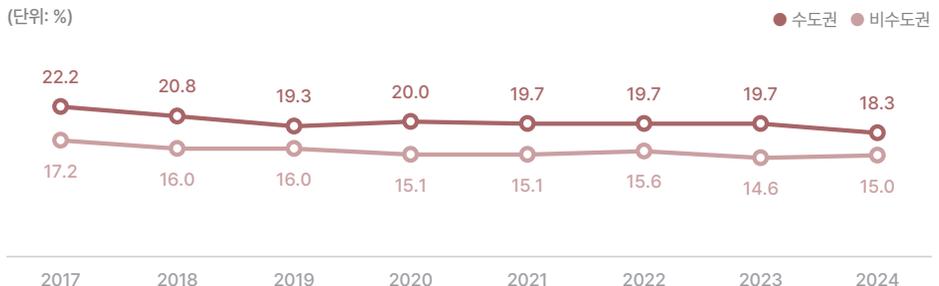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역별 주택 임대료 비율(2017~2024)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근통학 시간

Commuti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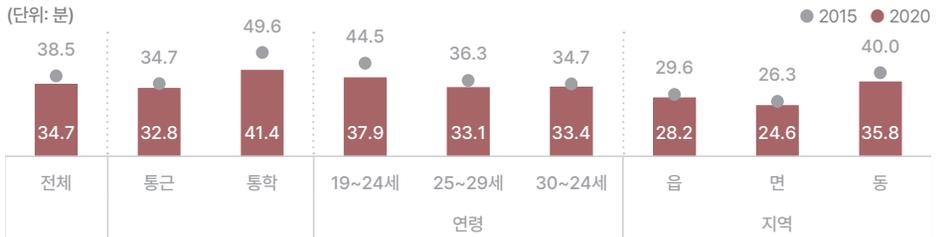
지표정의 청년이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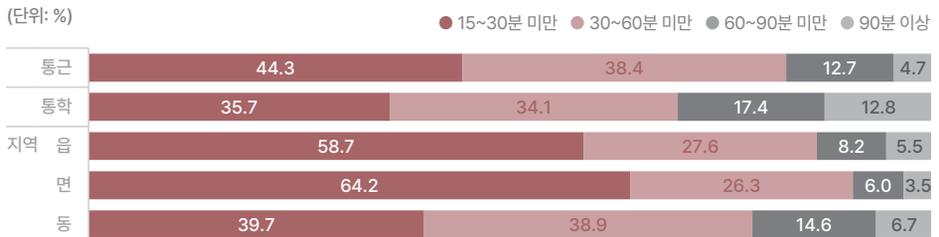
- 통근 및 통학 시간은 매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통근 및 통학시간은 도시의 성장과 주택 가격 상승과 연관되어있다. 특히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장거리 통근 및 통학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020년 통근 및 통학 시간은 34.7분으로 2015년 38.5분에 비해 3.8분 줄어 들었다. 통근과 통학시간을 나누어 보면 통근시간은 32.8분, 통학시간은 41.4분으로 통학시간이 8.6분 더 길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통근시간보다 통학시간의 감소폭이 더 크다.
- 연령별로 보면 통근보다 통학이 많은 19~24세에서 통근통학시간이 37.9분으로 가장 길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의 통근통학 시간이 35.8분으로 가장 길고, 읍지역(28.2분), 면지역(24.6분) 순이다.
- 통학 시간은 한 시간 이상인 비율이 30.2%이고, 90분 이상은 12.8%인 반면, 통근 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 17.4%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인 비율이 21.3%이고, 면지역은 9.5%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통근통학 시간(2015, 2020)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자료)

지역별 통근통학 시간대별 비율(2020)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자료)

주거환경 만족도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지표정의 청년이 거주지 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거주지 내 주거환경 하위항목별 만족정도(4점 척도)의 평균 점수

- 주거의 질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는 주거의 질 지표로 주거환경의 적절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은 주거지 내의 각종 시설의 접근용이성, 보행 안전, 집주변의 소음, 이웃과의 관계, 대기오염 정도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주거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2024년 4점 척도의 평균 3.01점으로 2017년 2.99점에서 2018년 2.95점으로 약간 감소한 이후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 2024년 각 하위항목별 청년 가구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보면 문화시설, 주차시설, 소음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치안문제, 주변청결은 3.1점 정도로 높은 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수도권이 3.00점, 비수도권이 3.03점으로 비슷하나 하위항목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상업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은 수도권에서 만족도가 높고, 주차시설, 보행안전, 교육환경, 소음문제, 대기오염은 비수도권에서 만족도가 높다.

주거환경 만족도(2017~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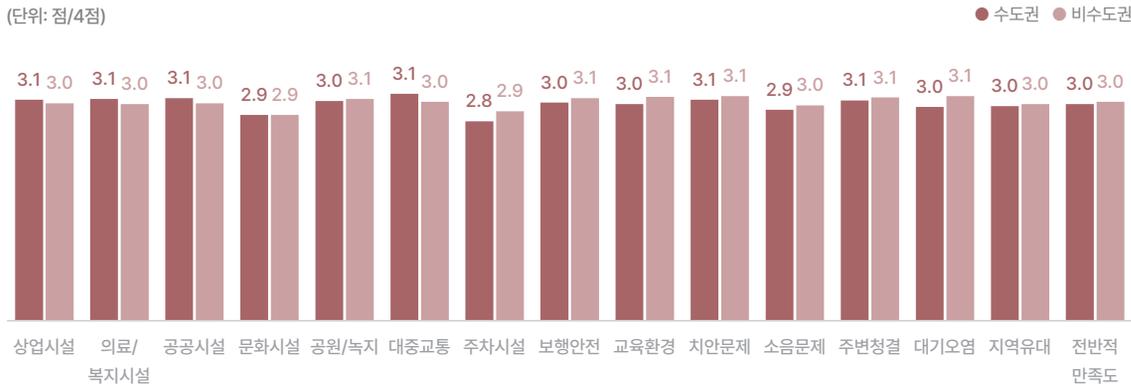
(단위: 점/4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99	2.95	2.98	2.99	2.97	2.99	2.99	3.01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 만족도(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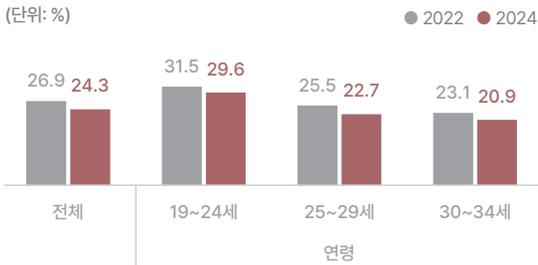
(단위: 점/4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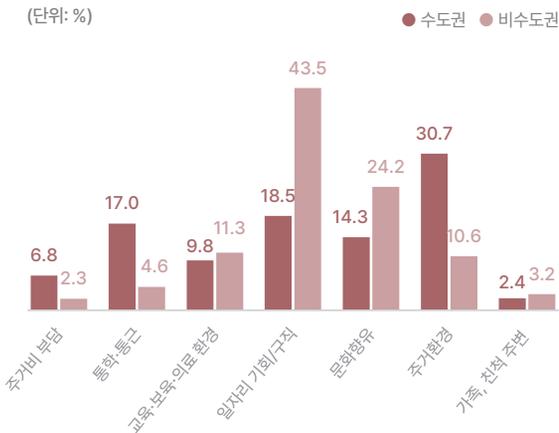
-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는 지역내 거주이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도)에서 계속 살 의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청년의 비율은 2024년 24.3%로 2022년(26.9%)에 비해 감소하였다.
- 타지역 이사이향은 연령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24년 19~24세는 29.6%로 가장 높고, 25~29세 22.7%, 30~34세 20.9%로 낮아진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시도보다 시도지역에서 타지역 이사이향이 높은 편이다. 다만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28.5%로 서울(14.7%)이나 경기(24.8%)보다 높다.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중에서는 대구가 28.6%로 가장 높고, 시도지역의 타지역 이사이향이 3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충북은 27.9%로 낮은 편이다.
- 타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리 기회'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향유와 주거환경도 높으나, 거주지역별로 상이하다. 수도권 지역은 '주거환경'이 30.7%로 가장 높고, '일자리 기회(18.5%)', '통근·통학(17.0%)' 등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 기회'가 43.5%로 가장 높고, '문화향유'도 24.2%로 높다.

연령별 타지역 이사이향(2022,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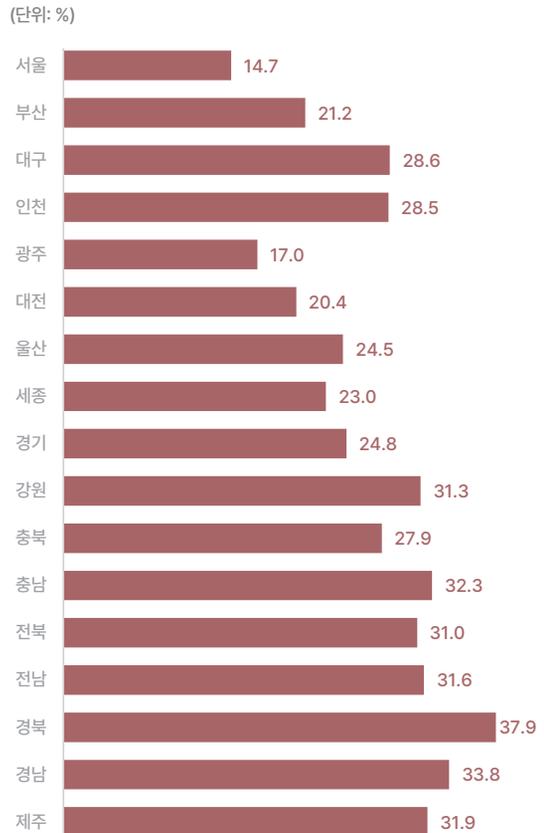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타지역(시도)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비율

타시도 이사이향 이유(2024)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타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
② 기타(0.3%)는 제외함.

17개 시도별 타지역 이사이향(2024)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타지역(시도)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비율

야간보행 불안 인식

범죄 불안 인식

강력범죄 피해율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교제폭력 입건 건수



안전이란?

안전은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삶의 질 측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이다. 안전 관련 내용은 다른 영역들과 관련성이 높아 포괄범위가 넓은 편으로 여기서는 청년층의 안전과 밀접한 지표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청년층에게 더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교제폭력, 여성 청년층에서 체감도가 높은 야간보행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다루는 안전 영역보다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범죄나 사회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불안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야간보행 불안 인식'과 '범죄 불안 인식' 지표, 범죄피해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강력범죄 피해율'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교제폭력 입건 건수' 지표를 포함하였다.

최근 추세

야간보행 불안 인식 (19~34세)



범죄 불안 인식 (19~34세)



강력범죄 피해율 (21~40세)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19~29세)



교제폭력 입건 건수



야간보행 불안 인식

Feeling UnSafe Walking Alone at Night

지표정의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4점 척도)에 대해 '약간 불안' 또는 '매우 불안'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거주지역의 안전 수준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야간보행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청년의 비율로 정의되며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 2024년 기준 청년의 야간보행 불안 인식도는 29.8%로 2022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세부 연령별로는 19~24세 연령대(29.6%)의 야간보행 불안 인식도가 25~29세(29.9%), 30~34세(30.0%)보다 낮았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반면, 남녀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4년 기준 남성 청년은 11.8%가 불안하다고 느낀 데 비해 여성 청년은 절반 정도인 49.4%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이 30.0%로 읍면 지역(28.4%)에 비해 야간보행 불안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보행 불안 인식(2020~2024)

(단위: %)

● 19~34세 ● 전체(13세 이상)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성·연령·지역별 야간보행 불안 인식(2022, 2024)

(단위: %)

● 2022 ●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범죄 불안 인식

Perception of Crime Risk

지표정의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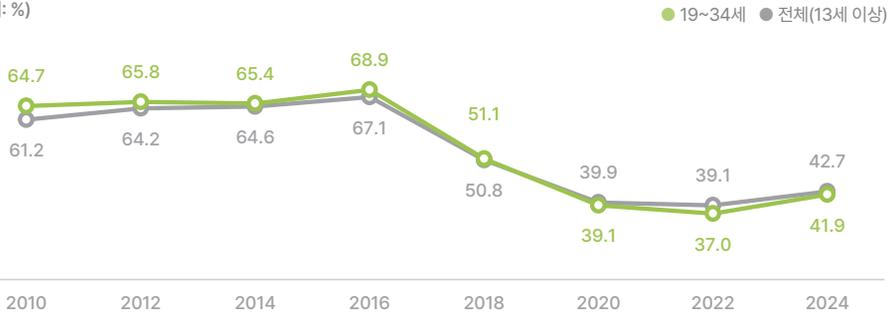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범죄로부터의 안전 정도(5점 척도)에 대해 '약간 불안' 또는 '매우 불안'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범죄로부터의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등 전반적 안전에 대한 주관적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를 자료원으로 하며,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로 산출한다.
-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2024년 41.9%로 2022년 37.0%에 비해 4.9%p 증가했다. 범죄 불안 인식 정도는 2010년 64.7%에서 2016년 68.9%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51.1%, 2022년 37.0%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24년 소폭 상승하였다.
- 세부 연령별로는 2024년 기준 19~24세(38.6%)의 범죄불안 인식이 25~29세(43.3%), 30~34세(43.5%)보다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4년 기준 남성 청년은 31.2%가 불안하다고 느낀 데 비해 여성 청년은 53.5%로 절반 이상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범죄 불안 인식(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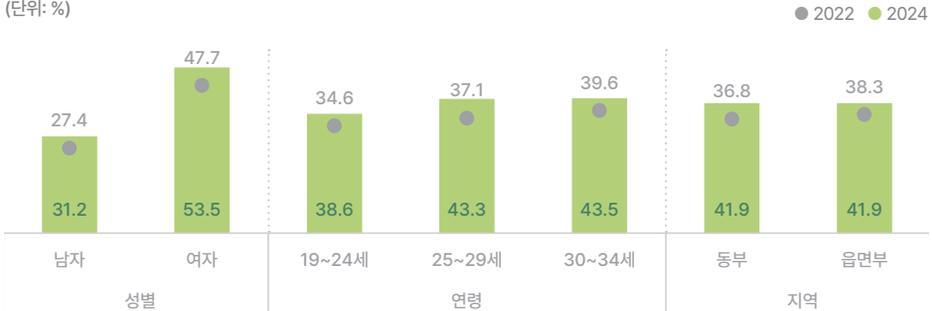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주 전체 인구는 2010년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임.

성·연령·지역별 범죄 불안 인식(2022, 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원자료)

강력범죄 피해율

Victimization Rate of Violent Crime

지표정의 청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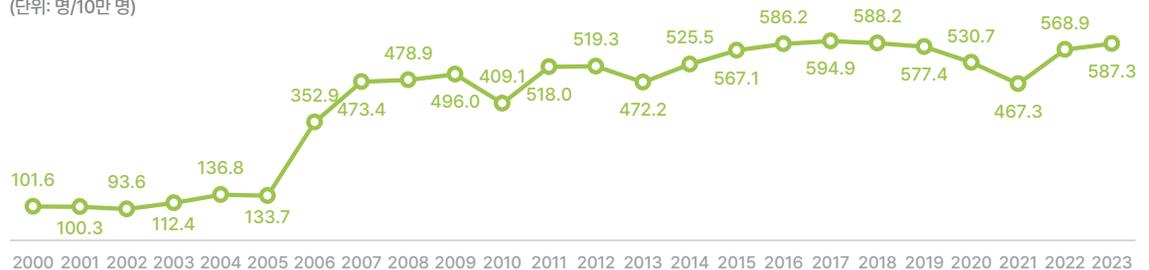
해당연령 21~40세

측정방법 (21~40세 5대 강력범죄 피해자 수 ÷ 21~40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범죄 발생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등의 5대 강력 범죄는 흉악성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에게도 사회 전반의 안전 불안 인식을 확산시켜 개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력범죄 피해율은 범죄분석통계와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21~40세) 인구 10만 명당 5대 강력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로 산출한다. 5대 강력범죄 피해율은 2023년 인구 10만 명당 587.3명으로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에서 2017년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였다.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폭행 및 상해 피해가 인구 10만 명당 423.6명으로 많았으며, 성폭력(159.7명), 강도(1.7명), 살인(1.4명), 방화(1.0명) 순이었다. 2010년대 들어 살인, 강도, 방화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이후로는 성폭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강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장 많이 늘어난 범죄 피해 유형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청년 인구 10만 명당 35.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59.7명을 기록했다.

강력범죄 피해율(2000~2023)

(단위: 명/10만 명)



출처: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강력범죄 유형별 피해율(2005, 2015, 2023)

(단위: 명/10만 명)



출처: 경찰청, 「범죄분석통계」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Digital Violence

지표정의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

해당연령 19~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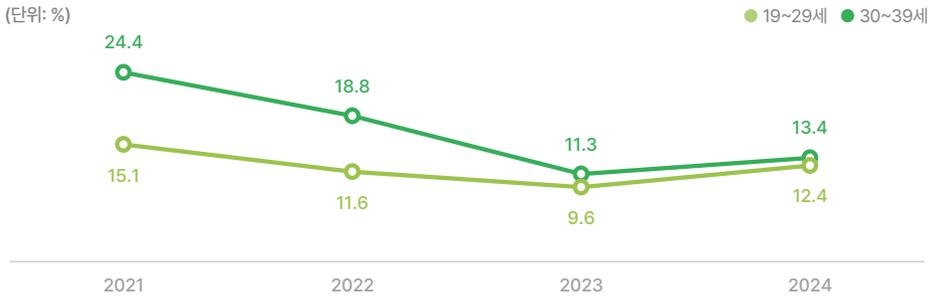
측정방법 지난 1년 간 유형별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

* 유형: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 디지털 폭력은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의 유형별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로 산출한다.
-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대 이하 청년의 폭력 피해 경험이 30대 청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청년의 피해 경험률은 2021년 24.4%에서 2023년 11.3%로 크게 줄었으나 2024년 13.4%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30대 청년은 2021년 15.1%에서 2023년 9.6%로 5.5%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2.4%로 다시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유형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언어폭력이 9.6%로 가장 높고, 명예훼손(5.8%), 스토킹(5.3%), 성폭력(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언어폭력(7.8%), 스토킹(6.3%), 명예훼손(5.0%) 순으로 높았다.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202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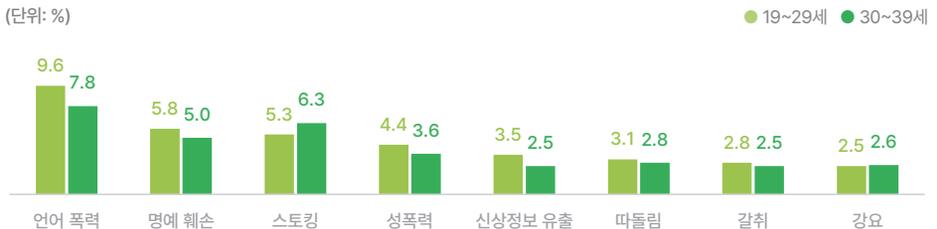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주 2021년은 20~29세임.

유형별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2024)

(단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각 항목별 피해에 대한 중복응답임.

교제폭력 입건 건수

Number of Dating Violence Cases

지표정의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해당연령 전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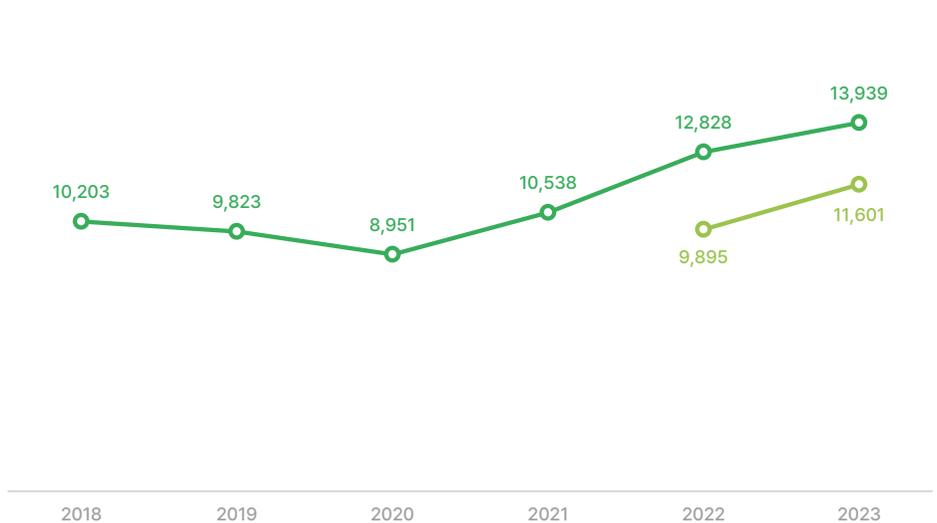
측정방법 경찰청의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한 다양한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여성가족부). 피해자 연령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에서 민감도가 높은 지표일 수 있다.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되며 사회적 신뢰와 자아존중감 등이 크게 저하되게 된다.
- 교제폭력 입건 건수는 경찰청의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자료를 통해 산출한다. 교제폭력 입건 건수는 2018년 10,203건에서 2020년 8,95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 추세로 2023년 13,939건을 기록했다.
-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로 3개월간 880건이 검거되었다. 2022년 9,895건에서 2023년에는 11,60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제폭력 입건 건수 및 스토킹처벌법 검거 건수(2018~2023)

(단위: 건)

●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스토킹 처벌법 검거 건수



출처 경찰청,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경찰청, 「범죄통계」

주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



12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

삶의 자율성 인식

삶의 가치 인식

미래실현 부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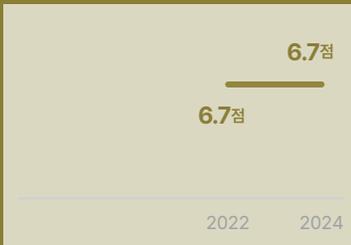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이란?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영역별 삶의 질을 종합하는 최종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 삶의 질 측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영역이다. OECD는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주관적 웰빙 수준 측정을 위해서 자기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특정 시점의 정서적 상태^{affect},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감각^{eudaimonia}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관적 웰빙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자율성 인식’,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삶의 가치 인식’, ‘미래실현 부정 인식’으로 구성하여 주관적 웰빙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하였다.

최근 추세

삶의 만족도 (19~34세)



삶의 자율성 인식 (19~34세)



삶의 가치 인식 (19~29세)



미래실현 부정인식 (19~34세)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지표정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해당연령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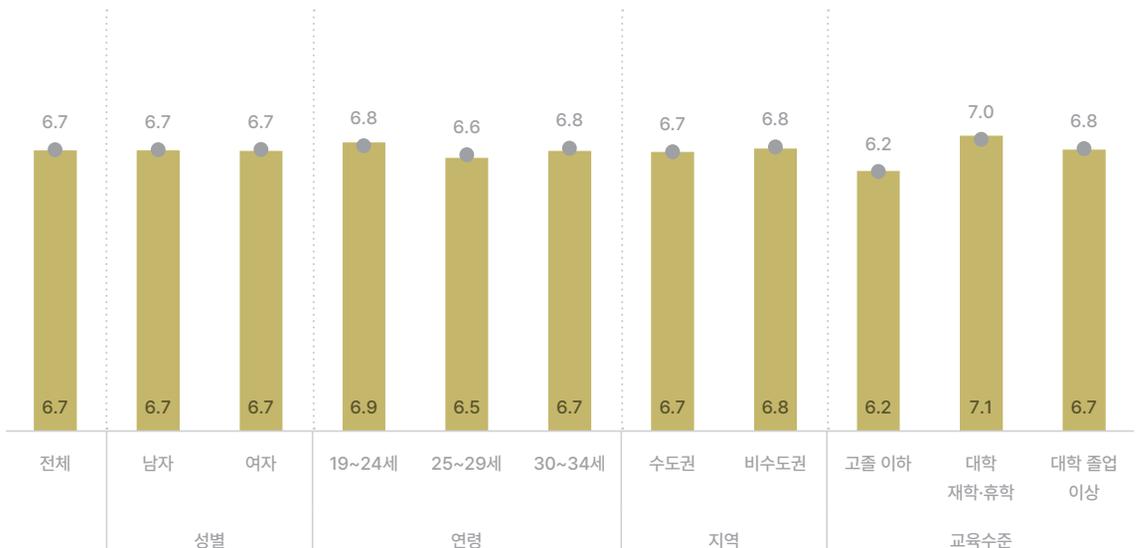
측정방법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 삶의 만족도는 청년들이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청년삶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전반적 만족 정도에 대한 0~10점 척도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청년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7점, 2024년 6.7점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6.4점(2024년 기준, 사회통합실태조사)보다는 약간 높았다.
- 연령별로는 2024년 기준 19~24세 청년이 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34세 청년은 6.7점, 25~29세 청년은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전 조사년도인 2022년과 비교 시 19~24세 청년은 만족도가 0.1점 증가했으나 25~29세 청년과 30~34세 청년은 만족도가 0.1점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24년, 2022년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성별에 따른 청년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0.1점 높았다. 비수도권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8점이었으나 수도권 청년의 만족도는 6.7점이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이 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졸업이상 청년은 6.7점, 고졸 이하 청년은 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만족도(2022, 2024)

(단위: 점/10점)

● 2022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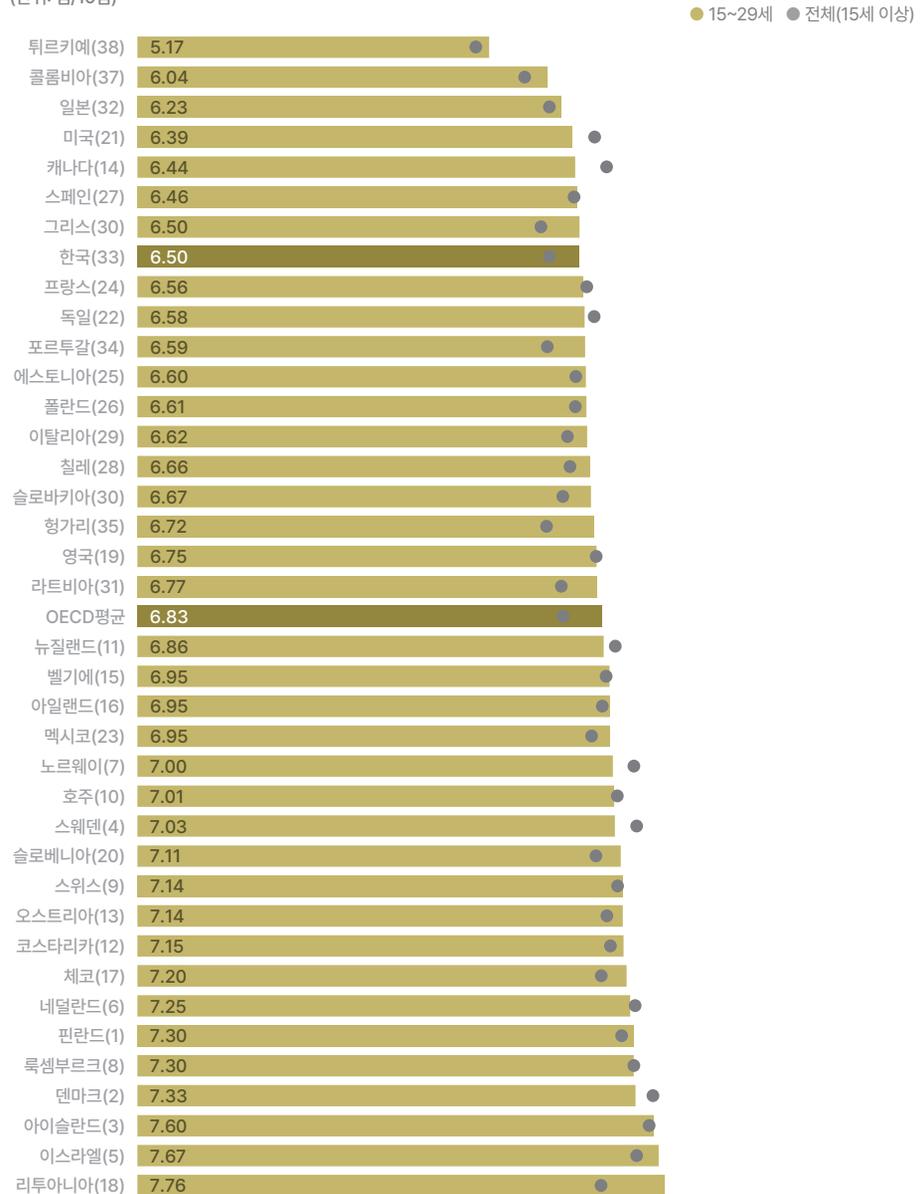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삶의 만족도는 2021~ 2023년 6.50점으로 그리스, 싱가포르, 스페인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상 삶의 만족도가 6.06점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에 비해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전체 인구 삶의 만족도 1위인 핀란드는 30세 미만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6위에 그쳤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도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2021~2023년 평균)

(단위: 점/10점)



출처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주 ① 갤럽월드폴 조사결과로 15세 이상 대상임.

② 삶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0~10점 척도 평균 점수임.

③ 국가명 옆의 숫자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의 OECD 국가 순위임.

④ OECD 평균은 그래프에 제시된 38개국의 삶의 만족도를 평균한 값임.

삶의 자율성 인식

Autonomy

지표정의 청년들이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해당연령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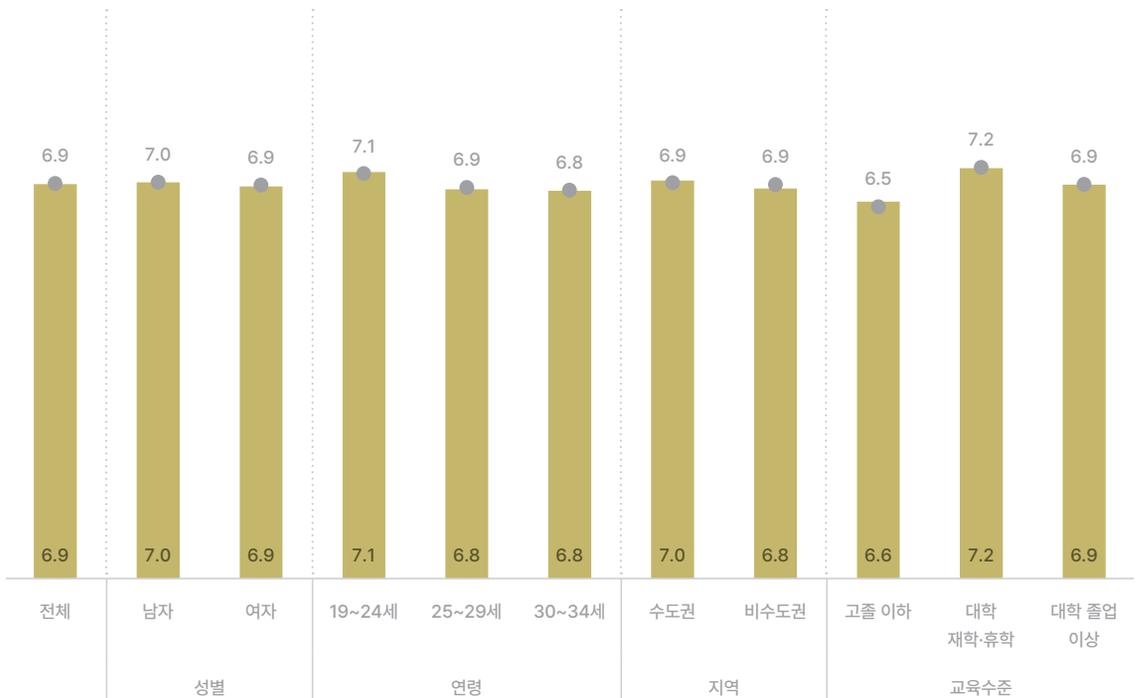
측정방법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 높은 자율성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자율성 인식 정도 측정은 '청년삶실태조사'를 활용하여 0~10점 척도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2024년 청년의 자율성 인식은 6.9점으로 2022년과 동일하다.
- 연령별 자율성 인식 정도는 2024년 19~24세 7.1점, 25~29세 6.8점, 30~34세는 6.8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에서 선택의 자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2024년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자율성 정도가 0.1점 높았다.
- 지역별로는 2024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삶의 자율성 인식 정도가 0.2점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의 삶의 자율성 인식 정도가 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 청년은 6.9점, 고졸 이하 청년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자율성 인식(2022,2024)

(단위: 점/10점)

● 2022 ● 2024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삶의 가치 인식

Eudaimonia

지표정의 청년들의 요즘 하고 있는 일(학업)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

해당연령 19~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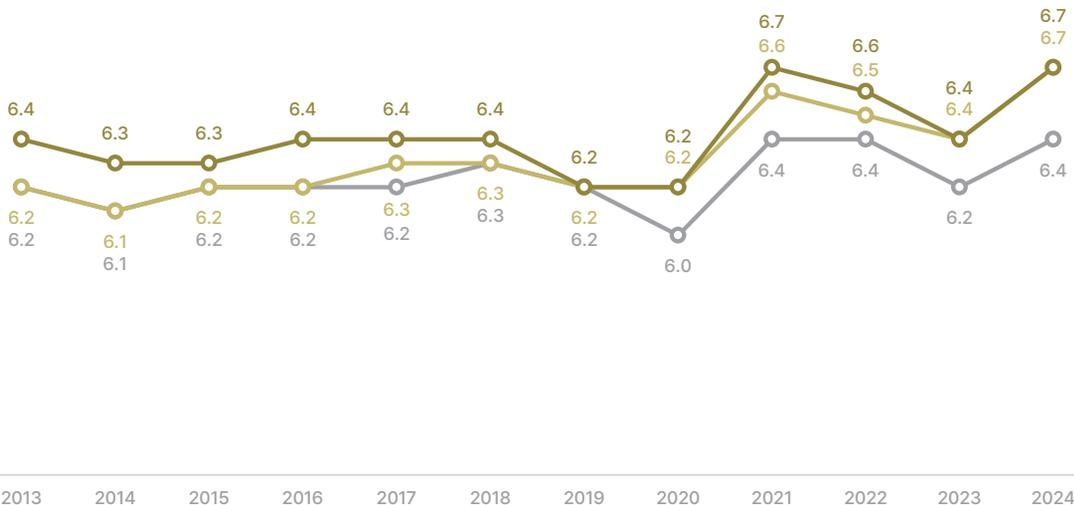
측정방법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 삶의 가치 인식은 삶에 대한 단순한 만족과 행복감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포함하는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느끼는 심리적 상태) 측면을 측정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을 통해 삶의 가치 인식을 파악하였다.
- 청년의 삶의 가치 인식 정도는 2024년 19~29세 및 30~39세 모두 6.7점으로 2023년 6.4점에서 0.3점 증가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시계열을 보면, 19~29세 및 30~39세 모두 6.1점~6.7점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삶의 인식 가치 인식 정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19~29세 연령대의 가치 인식 수준이 30대보다 낮았지만, 2019년 이후로는 19~29세와 30~39세의 차이가 0.1점 정도에 불과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삶의 가치 인식(2013~2024)

(단위: 점/10점)

● 19~29세 ● 30~39세 ● 전체(19세 이상)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미래실현 부정 인식

Pessimism about Future Fulfillment

지표정의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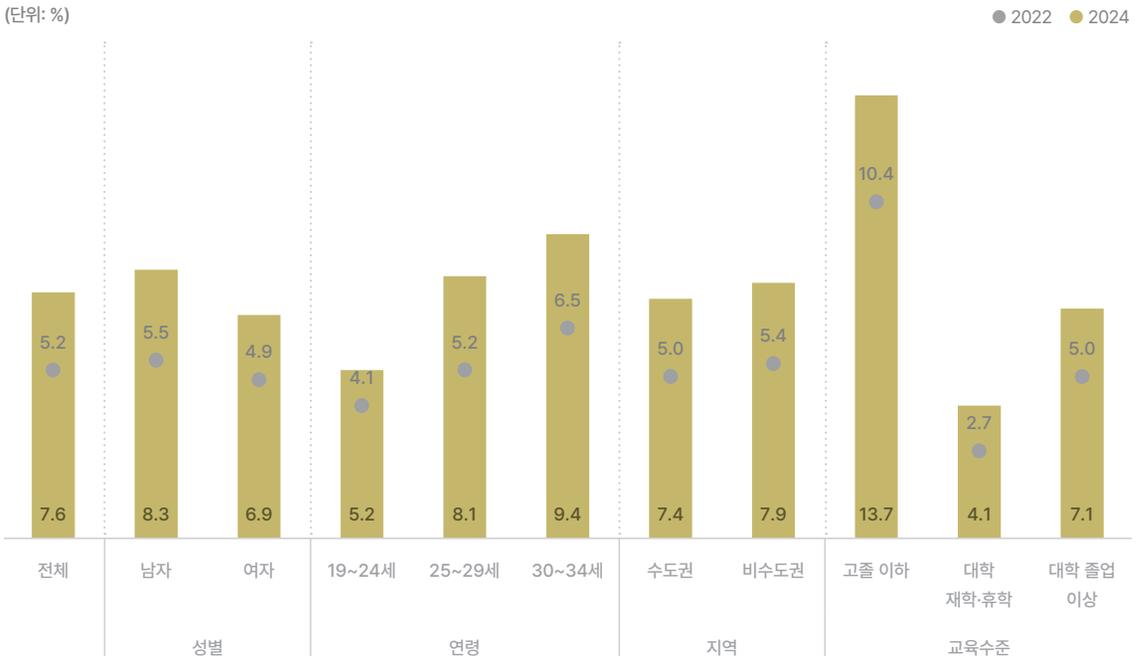
해당연령 19~34세

측정방법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의 실현 정도에 대해 '전혀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청년의 미래실현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인식은 유다이모니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생애 주기 단계 상 어느 연령대 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실현 부정인식은 바라는 미래에 대해 '전혀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되었으며, 2024년 7.6%로 2022년 5.2%에 비해 2.4%p 증가했다.
- 연령별 미래실현에 대한 부정인식은 2024년 19~24세는 5.2%, 25~29세 8.1%, 30~34세 9.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2022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인식 정도가 높아져 취업 등 미래 삶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미래실현에 대한 부정 인식 정도는 2024년 8.3%로 여성의 6.9%에 비해 높았다.
- 지역별로는 2024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부정 인식은 7.9%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부정인식 7.4%보다 0.5%p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24년 고졸 이하 청년의 미래실현에 대한 부정 인식 정도는 13.7%로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도 7.1%로 현재 대학생이나 휴학인 경우(4.1%)보다 높은 편이다.

미래실현 부정 인식(2022, 2024)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PART. 3

이슈 분석

- 01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 OECD 사회적 연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02 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포용성을 중심으로

01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

OECD 사회적 연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적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OECD의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구조, 기능, 질)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가족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대인신뢰도는 하락하였다. 2014년 대비 2024년 청년층의 가족관계 만족도(20대 +7.9%p, 30대 +9.0%p)는 크게 증가하며 가족 중심의 결속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대인 신뢰도(19~29세 -21.5%p, 30~39세 -20.0%p)는 낮아져, 관계 만족도는 높아지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감소하였다. 2015년 대비 2023년,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19~29세 +3.2%p, 30~39세 +3.7%p)이 증가했다. 이는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재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공동체 참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 기반 공동체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단체 참여율(20대 +16.9%p)은 증가했으나, 자원봉사(-2.7%p)와 기부(-7.3%p) 등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참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청년의 사회적 연결성 변화는 일부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회적 연결성이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서적·사회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과 온라인 모두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1. 서론

사회적 관계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Diener, Suh, Lucas, Smith, 1999; Helliwell, Putnam, 2004). 좋은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부정적 요인에 대한 완충재가 되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Vaillant, 2003). 다양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좋은 사회적 관계는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연구 등에서, 그리고 문화권에서의 행복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Diener, E., & Seligman, 2002; Lee & Yoo, 2015; Waldinger & Schulz, 2023). 반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 고립,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높이고, 치매 발병률을 높이며,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lt-Lunstad et al., 2010). 사회적 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개인주의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친밀성과 사회적 교류의 변화까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utnam, 2000; Haidt, 2024).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규범이 되면서 기존의 교류와 연대는 디지털로 전환되거나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연 역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결혼은 늦어지고 있고, 취업은 어려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보다는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개인의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기 쉬운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유민상, 신동훈, 2021).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에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 영역을 별도로 설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화된 사회적 연결성 모듈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사회적 연결성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OECD, 2025).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WHO, 2023). 외로움부 장관으로 알려진 영국과 일본의 외로움 전담 부처 지정은 현실 정책보다는 상징성이 더 강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국가 수준의 사회적 연결성 측정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더 분명한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DCMS, 2018). 이는 청년기 니트(NEET),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은둔(hikikomori)에 대한 개별적 관심보다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현상을 조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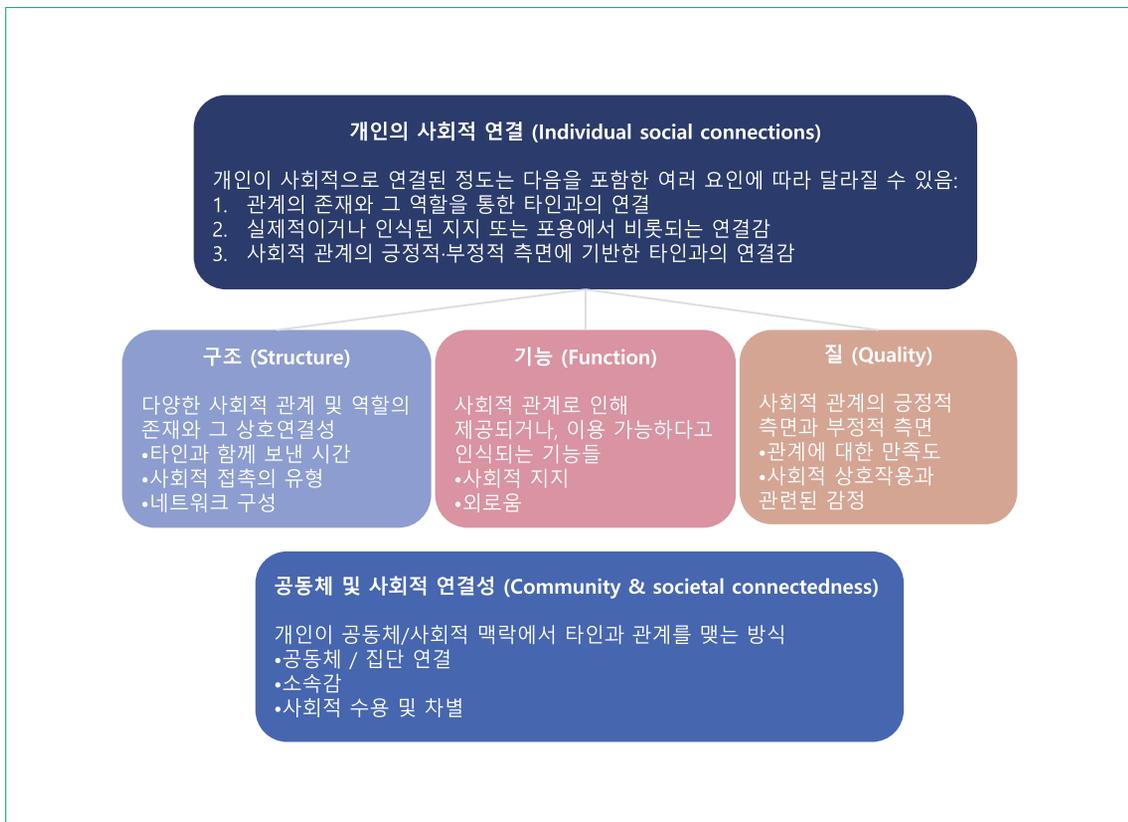
이 원고는 “우리나라 청년의 사회적 관계 수준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 자료와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성의 실태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청년의 사회적 관계 측정 프레임워크(OECD)와 주요 실태조사

사회적 연결성 측정 프레임워크는 OECD에서 제안한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하였다. OECD는 Holt-Lunstad 외(2017)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연결성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Holt-Lunstad, Robles, & Sbarra, 2017; Mahoney, Fleischer, Bottura, Scrivens, 2024).

OECD의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은 구조, 기능, 질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존재 및 이들 간의 상호 연결성(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사회적 접촉의 유형, 네트워크 구성)”, 기능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실제 제공 받거나 제공 받는다고 인식되는 것(사회적 지지, 외로움)”, 질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은 “개인들이 공동체,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공동체적/집단적 연결, 소속감, 사회적 수용과 차별)”이다(Mahoney et al., 2024). OECD의 프레임워크는 아직 초기 단계로 개념적 구성과 하위 요인들의 정합성 등 수 정보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OECD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OECD의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



출처 Mahoney, Fleischer, Bottura, Scrivens(2024)

OEC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청년 사회적 연결성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 요인들에 대표 지표를 추가하였다. 프레임워크와 지표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못하나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연결성 지표들은 부족한 상황이며, 측정에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Mahoney, Fleischer, Bottura, Scrivens, 2024).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OECD가 제안한 측정 프레임워크에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지표들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1. 청년의 사회적 관계 지표 주요 구성 목록

차원	지표	주요 내용	출처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차원	구조	사회적 교류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 혹은 그 이외 사람과 교류	사회조사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대리 지표로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사회조사
	기능	사회적 지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	사회조사
		외로움	간접적인 외로움 측정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직접적인 외로움 측정	사회통합실태조사
	질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조사
		대인 신뢰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회통합실태조사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 차원	소속감	소속감을 느끼는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참여		사회단체, 자원봉사, 기부 참여율	사회조사	

주요한 데이터는 2023년에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국가통계승인번호 제101018호), 2024년에 발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통계승인번호 제417001호), 2021년에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이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나,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국가통계승인번호 제170002호)가 진행되면서 해당 조사에 병합되었다. 2021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를 위해 은둔, 외로움, 소속감 등의 변수를 보완하여 조사하였으나, 「청년삶실태조사」에는 일부 변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가피하게 소속감 지표의 보고나, 사회적 연결성 지표와 삶의 만족도, 우울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¹

3.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현황 및 변화 추이

1)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1) 사회적 연결의 구조 차원

사회적 연결의 구조structure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존재 및 이들 간의 상호 연결성(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사회적 접촉의 유형, 네트워크 구성)”이다(Mahoney et al., 2024). 여기서는 청년들이 누구와 함께 교류하고 있는지, 누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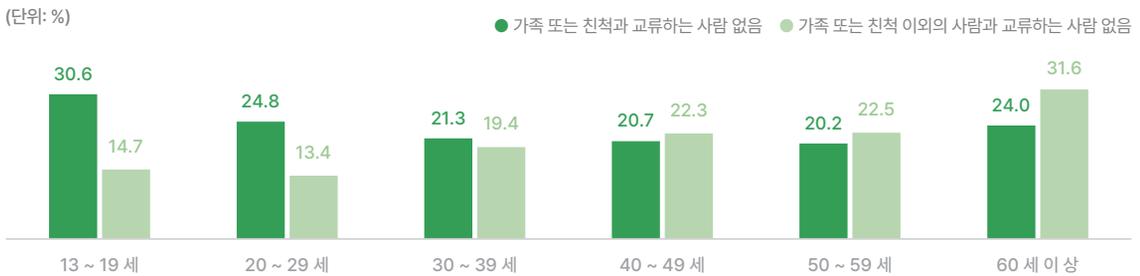
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여가를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류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의 교류 현황을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20~29세는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4.8%로 청년 4명 중 1명꼴로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은 13.4%로 청년 7명 중 1명꼴로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는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1.3%로 청년 5명 중 1명꼴로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은 19.4%로 20~29세 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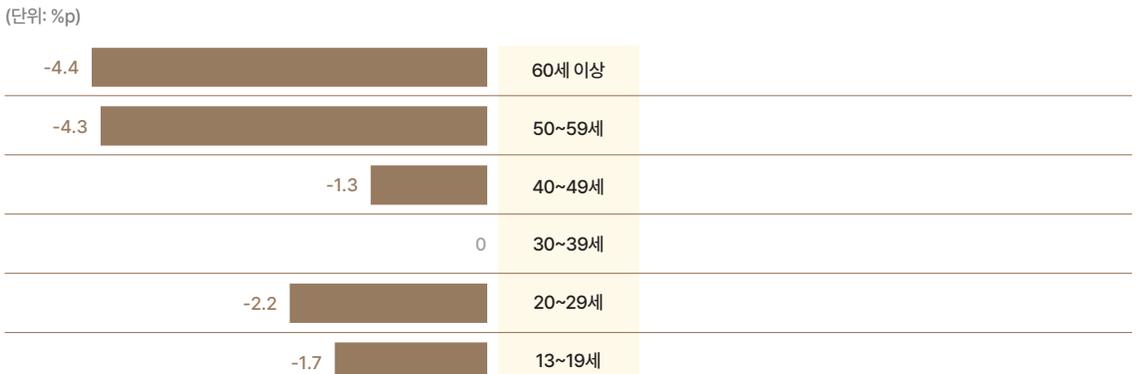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교류(2023)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의 2019년과 2023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비교하여 교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 비교를 해보면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대부분 연령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13~19세에서 2.5%p 증가하였고, 20~29세는 0.2%p, 40~49세에서는 0.9%p 증가하였다. 30~39세만 변화가 없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생애주기별로 다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장년들의 가족 간 교류나 사회적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강화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청년기는 사회적 교류 기회가 감소하여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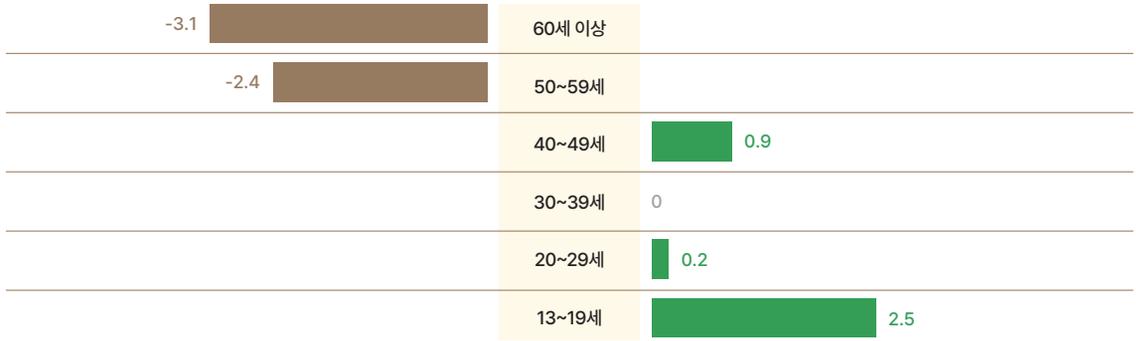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교류 변화: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는 사람 없는 비율 변화(2019년 대비 2023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그림 4. 사회적 교류 변화: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 없는 비율 변화(2019년 대비 2023년)

(단위: %p)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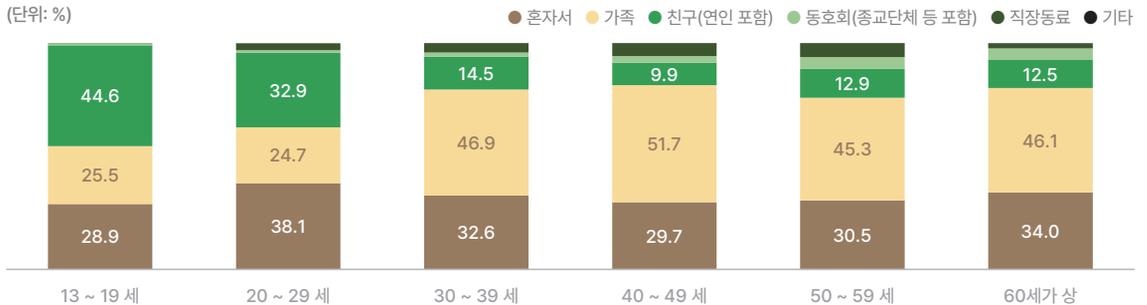
기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중고 및 대학의 학교 폐쇄와 온라인 수업 등 단체생활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

사회적 연결의 구조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대리 지표로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3 데이터를 통해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중의 경우, 20~29세는 ‘혼자서’라는 응답이 38.1%였는데, 이는 전체 연

그림 5.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주중, 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그림 6.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주말이나 휴일,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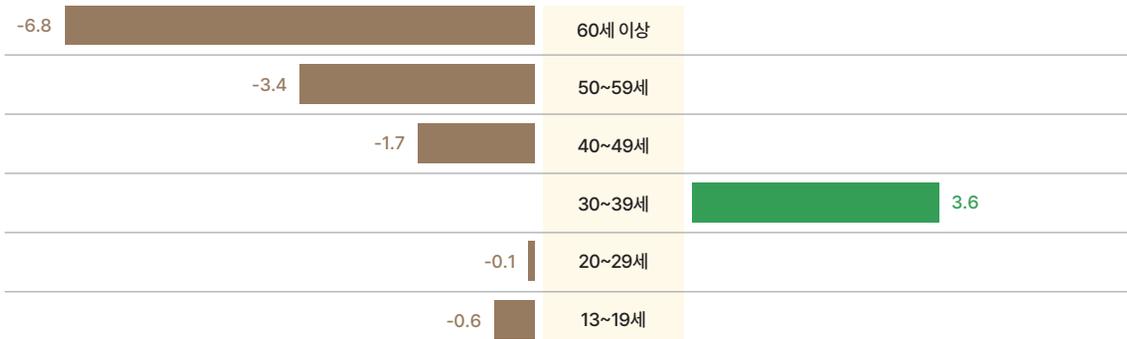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30~39세는 혼자서의 비중은 32.6%였고,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은 46.9%였다. 주말의 경우, 20~29세의 '혼자서'라는 응답은 19.7%로 나타났는데, 이는 13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30~39세의 '혼자서'라는 응답은 14.8%였다.

2015년과 2023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를 비교해보면 다른 연령층들은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는 사람은 감소하였으나, 30~39세에서만 '혼자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30~39세에도 비혼으로 살아가는 청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인율 감소,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추세도 사회적 연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림 7.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는 사람의 비율 변화(주말이나 휴일, 2015년 대비 2023년)

(단위: %p)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 사회적 연결의 기능 차원

사회적 연결의 기능function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실제 제공 받거나 제공 받는다고 인식되는 것(사회적 지지, 외로움)”이다(Mahoney et al., 2024). 청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하는지와 연결을 통해 내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외로움loneliness을 느끼는지의 지표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3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상황을 살펴보았다. 「사회조사」에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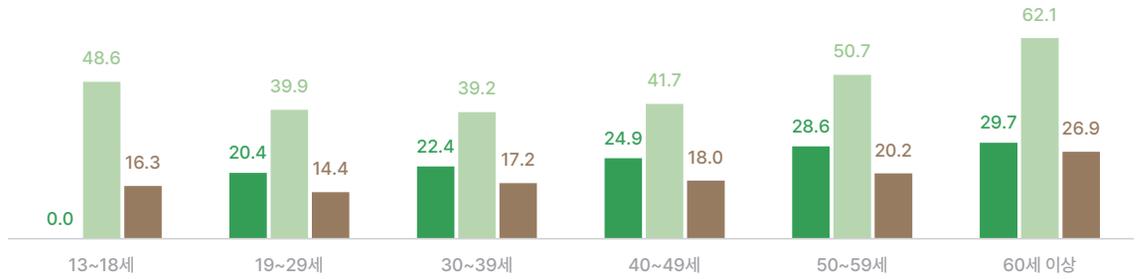
세 가지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는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 응답(49.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 응답(26.0%)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응답(2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29세와 30~39세는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없음’만 유사하였고, 다른 두 가지 항목에서는 19~29세에 비해 30~39세의 ‘없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2023년 「사회조사」를 비교해보면, 변화의 패턴이 보이는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 없음’의 비율은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감소, 29세 이하에서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3~18세의 증가 폭이 12.4%p

그림 8. 사회적 지지체계: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2023)

(단위: %)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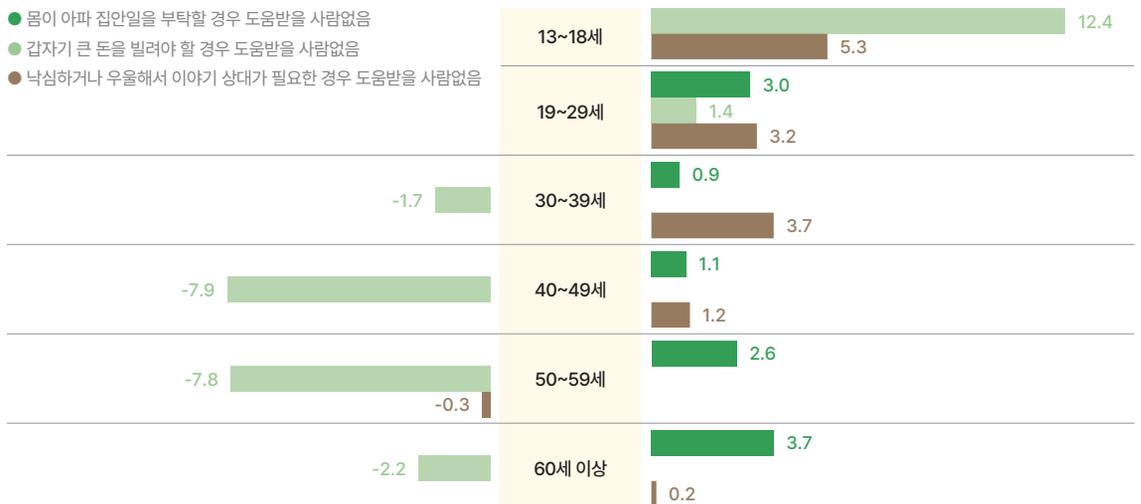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그림 9. 사회적 지지체계 변화: 도움받을 사람 없는 경우의 비율 변화(2015년 대비 2023년)

(단위: %p)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없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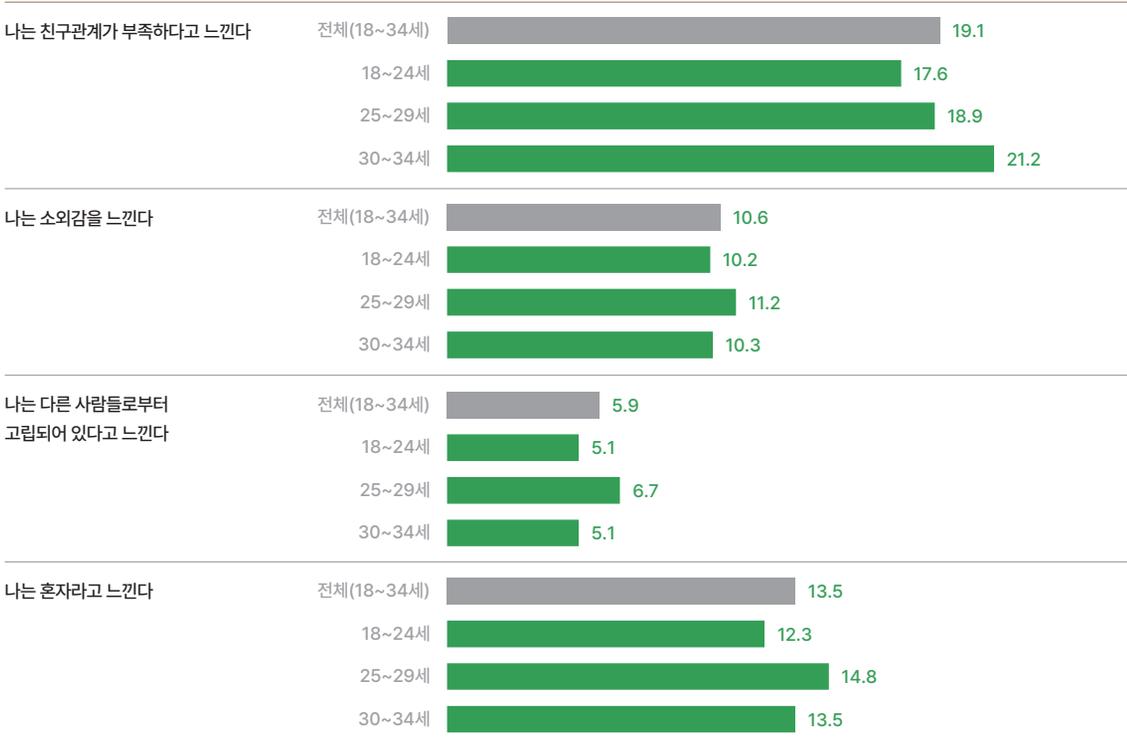
로 꽤 크게 나타났다.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없음’의 비율은 조사되지 않은 13~18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없음’의 비율은 13~18세 5.3%p, 19~29세 3.2%p, 30~39세 3.7%p로 증가하여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외로움

외로움(loneliness)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Holt-Lunstad et al., 2010). 외로움은 최근들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 보통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 수준과 실제 자신의 관계 수준과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 경험으로 해석된다. 외로움은 OECD와 같이 기능 차원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관계의 질과 그로 인한 주관적 결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OECD의 분류를 따르되 개념적 복합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 지표는 두 가지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외로움에 대해 간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2021년에 횡단적으로 조사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외로움에 대해 직접 묻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0. 외로움 경험 비율(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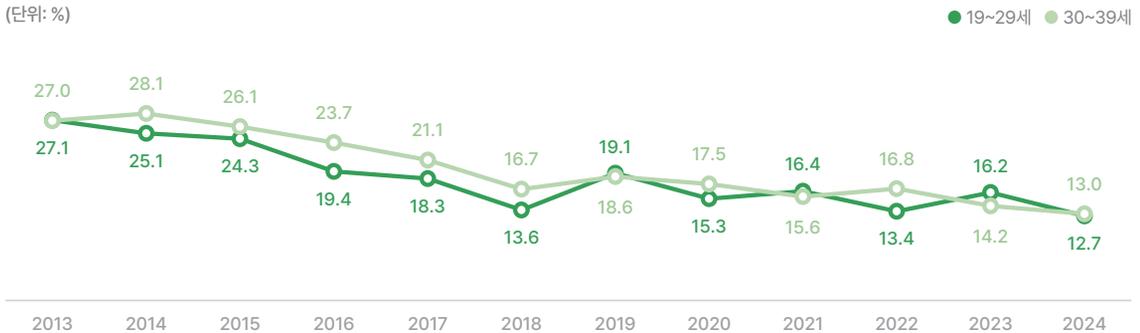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 18~34세 대상이며, 각 항목에 대해 '가끔 그렇다'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먼저 외로움에 대해 간접적으로 묻은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외로움 측정 모듈은 아직 부재하나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이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바 있어 그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을 하는 방식, 즉 간접 측정을 통해 외로움을 측정한다. 그 중 일부를 보면,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 18~34세 청년의 13.5%가 '그렇다(가끔+항상)'고 응답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그림 11. 외로움 경험 비율(2013~2024)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나는 외롭다"라는 문항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다'는 5.9%,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10.6%,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1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9~29세는 12.7%, 30~39세는 13.0%가 '외롭다(약간+매우)'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3년 27.0%, 27.1%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치로 외로움 비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느슨한 연대 증가,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한 혼자 있는 시간의 질적 변화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만 외로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외로움에 대해 향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묻는 방식이 결합된 영국 ONS의 UCLA 외로움 척도 활용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해볼 필요가 있다(ONS, 2018).

(3) 질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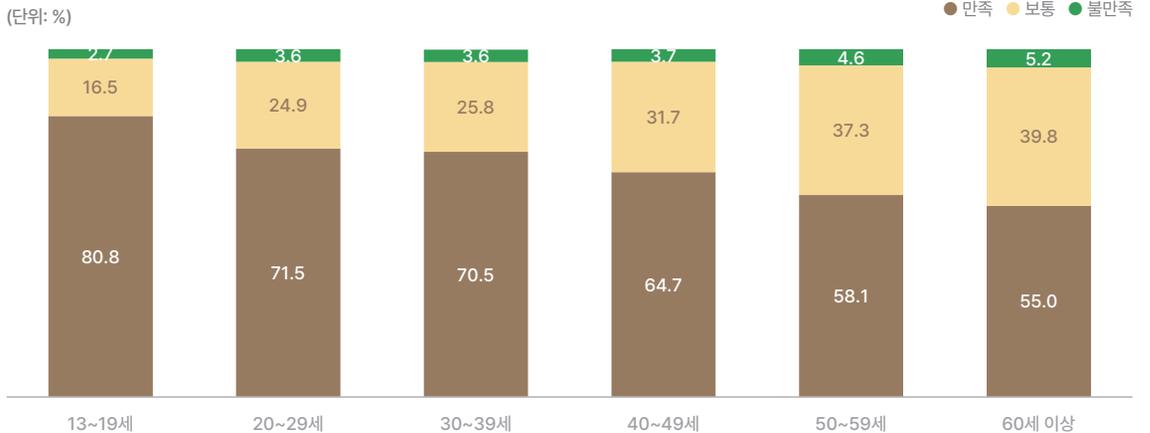
사회적 연결의 질^{quality}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감정)”이다(Mahoney et al., 2024). 청년들이 개인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타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의 질적 차원을 알아본다.

관계 만족도(가족관계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4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10대(13~19세)는 청소년 10명 중 8명(80.8%)이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었고, 20대, 30대는 10명 중 7명(각각 71.5%, 70.5%)이 만족하고 있었다.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불만족 비율을 보면 10대는 100명 중 2~3명 가량(2.7%), 20대와 30대는 100명 중 3~4명가량(3.6%)이 가족관계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가족관계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4년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10대는 10.0%p, 20대는 7.9%p, 30대는 9.0%p 증가하였다. 40대, 50대, 60대에서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의 질적 측면이 가족 차원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가족관계 만족도(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만족은 '매우 만족+약간 만족'의 합산 비율,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의 합산 비율

그림 13. 가족만족도 변화: 가족관계 만족 비율 차이(2014년 대비 2024년)

(단위: %p)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앞서 지표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관계 만족도 이외에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인 신뢰도

대인 신뢰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는 19~29세에서 53.2%, 30~39세에서 54.7%였다. 청년 2명 중 1명 정도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40대는 55.9%, 50대는 56.8%로 청년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각 연령대에서 대인 신뢰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9세는 21.5%p, 30~39세는 20.0%p 낮아졌다. 이는 40~49세 17.4%p, 50~59세 16.9%p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대인 신뢰에 대한 지표는 여러 조사에서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그림 14. 대인 신뢰도(2024)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4).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 대인 신뢰도 변화: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차이(2014년 대비 2024년)

(단위: %p)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은 “개인들이 공동체,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이다(Mahoney et al., 2024). 여기서는 청년들의 소속감과 사회참여 지표를 통해 공동체 및 사회와의 연결성 상황을 알아본다.

소속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21년에 소속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속감은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속감을 느끼는지’였다. 조사 결과, 80.8%의 청년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19.2%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청년들은 공동체와 사회와의 연결 차원에서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6.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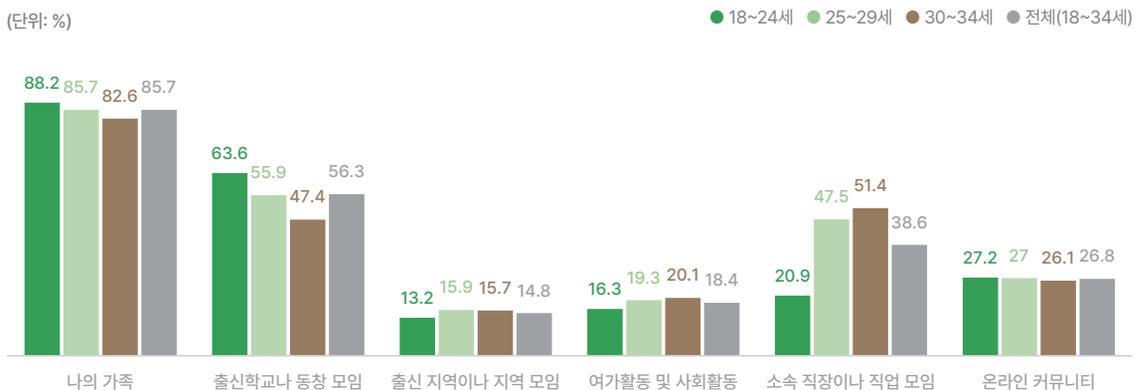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 다중 응답으로 물어보았을 때,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5.7%, 출신학교나 동창 모임 56.3%,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38.6%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26.8%,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이 18.4%, 출신지역이나 지역 모임이 14.8% 순이었다. 청년들은 지역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이 지리적 기반의 동네 커뮤니티보다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커뮤니티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조사된 자료이고, 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없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비율(다중응답, 2021)

(단위: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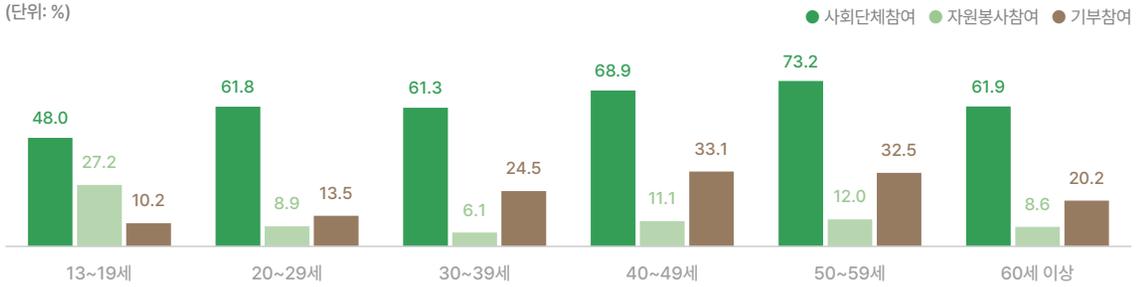
사회참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단체참여², 자원봉사참여, 기부참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단체 참여는 10대(13~19세)는 48.0%였으나, 20대(20~29세) 61.8%, 30대(30~39세)에서는 61.3%로 높아지고, 50대(50~59세)가 73.2%로 연령집단 중 가장 높았다. 기부 참여는 10대(13~19세)는 10.2%, 20대(20~29세) 13.5%, 30대(30~39세) 24.5%로 점차 높아졌으며, 40대(40~49세)에 33.1%로 연령집단 중 가장 높았다.

자원봉사는 10대(13~19세)에 27.2%로 가장 높았으나, 20대(20~29세) 8.9%, 30대(30~39세) 6.1%로 낮게 나타났다. 40대(40~49세) 11.1%, 50대(50~59세) 12.0%로 높아졌으나 다른 참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2015년과 2023년의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참여, 기부참여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참여는 비교적 많이 늘어난 반면, 자원봉사참여, 기부참여는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청년층의 사회단체 참여는 20대(20~29세)

그림 18.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참여, 기부참여 비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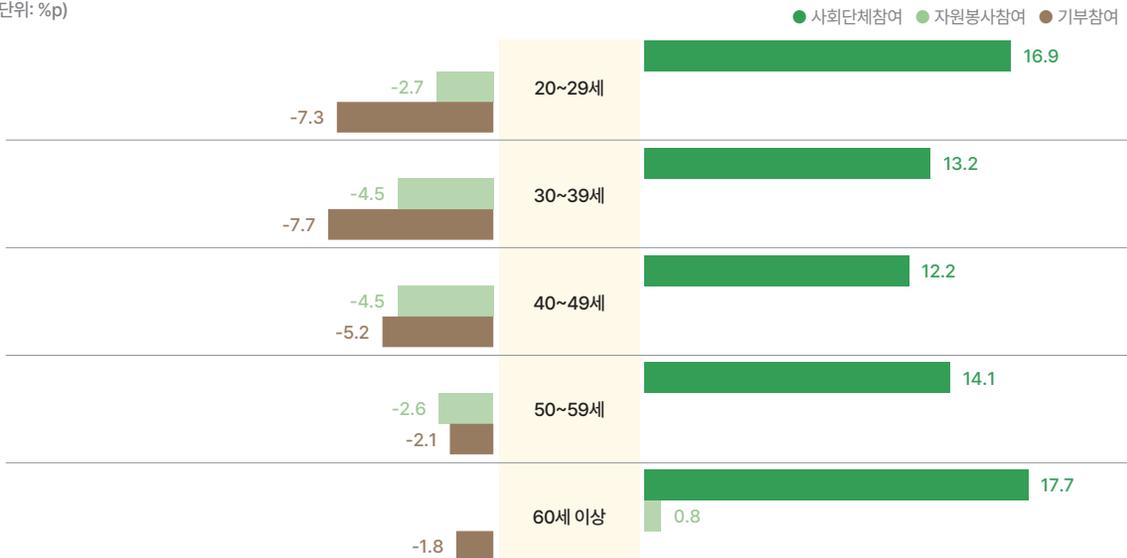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그림 19.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참여, 기부참여 비율 변화(2015년 대비 2023년)

(단위: %p)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² 사회단체란 친목/사교 단체, 취미/스포츠/여가활동단체, 종교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모임 등을 의미함.

16.9%p, 30대(30~39세) 13.2%p로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 참여는 20대(20~29세) 2.7%p, 30대(30~39세) 4.5%p 감소하였고, 기부참여 역시 20대(20~29세) 7.3%p, 30대(30~39세) 7.7%p 감소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나 집단이 늘어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상호 호혜적 활동 참여는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사회단체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상호 호혜성(mutual reciprocity)을 기반으로 한 사회참여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것이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대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년이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웰빙: 사회적 연결성과 웰빙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웰빙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연결성은 개인의 웰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로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만족도, 우울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각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성 지표들과 삶의 만족도, 우울이 포함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연결성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차원에서 구조, 기능, 질로 구성하였으며, 단순화를 위하여 구조는 사회적 교류(가족, 친척, 지인과의 연락 유무), 기능은 사회적 지지(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외로움(가끔, 항상 혼자라고 느끼는지 여부), 질은 관계만족도(일반적 관계에 대해 6점 이상 만족하는지 여부)로 구성하였다.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성 차원에서는 소속감(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속감을 느끼는지 여부), 기타로는 외출(평소에 얼마나 외출하는지 여부)로 변수를 정의하였다. 외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과 같이 사회와 단절된 상태의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만족도, 우울감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로 구성하였다.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점(매우 만족)까지의 11점 척도로 10개의 개별 영역(생활수준, 건강,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일반적 대인 관계,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문항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울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11개 문항 축약형으로 범주는 0점부터 3점까지로 측정되었다. 다만, 삶의 만족도와 비교를 위하여 모든 문항 평균값을 구한 후, 0~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차원과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성 차원으로 각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각 지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이 부재한 상태(각 지표에서 ‘없음’이나 ‘낮음’으로 분류된 상태)는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연결성의 부재는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영역 모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입체적일 수 있다. 몇 가지 사회적 연결성 지표의 ‘부재함’ 집단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볼 때, 특정 고립 지표는 더 취약한 상황을 나타낸다. 관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가족, 친구, 일반적 대인 관계에서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전, 미래 안정성, 삶에서 성취한 것 등 대부분 영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외출하지 않

는 집단은 삶에서 성취한 것, 일반적 관계,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은 낮지만, 가족관계, 시간적 여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은 낮지 않았다. 약한 사회적 연결성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서의 일부 특징일 수도 있고, 중첩되고 교차된 취약성의 현상일 수도 있고, 불이익이 누적된 결과(cumulative disadvantages)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해석, 그리고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표 2. 청년의 사회적 연결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우울 점수 결과(2021)

(단위: 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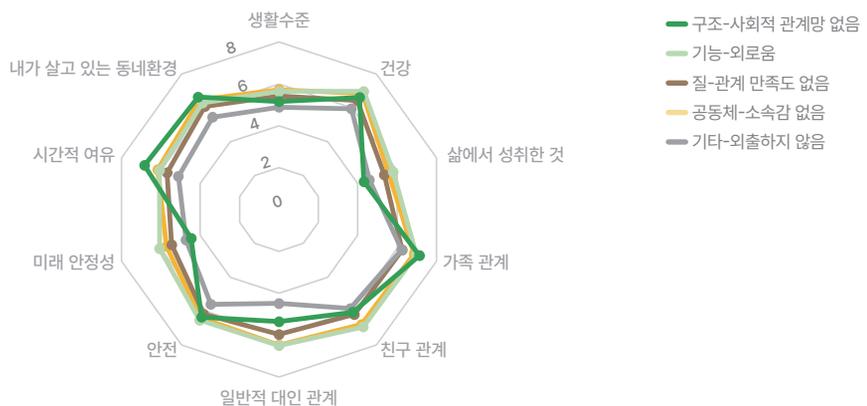
차원	지표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삶의 만족도										우울	
				(1)	(2)	(3)	(4)	(5)	(6)	(7)	(8)	(9)	(10)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 차원	구조	사회적 교류	있음	6.53	6.00	7.30	6.06	7.45	7.36	6.87	6.84	6.22	6.19	6.50	0.95
		없음	6.07	5.72	6.86	5.57	6.86	6.79	6.48	6.40	5.71	6.16	6.48	1.52	
	기능	사회적 지지	있음	6.56	6.03	7.33	6.08	7.47	7.40	6.92	6.86	6.25	6.22	6.55	0.92
			없음	5.69	5.42	6.41	5.31	6.53	6.30	5.83	6.23	5.23	5.79	5.93	1.99
		외로움	없음	6.61	6.07	7.39	6.12	7.58	7.49	6.98	6.91	6.29	6.27	6.56	0.84
			있음	5.77	5.43	6.44	5.35	6.26	6.20	5.97	6.18	5.45	5.68	6.09	2.01
	질	관계 만족도	낮음	5.07	4.89	5.95	4.59	6.23	5.85	4.49	5.60	4.72	5.11	5.45	1.81
			높음	6.86	6.26	7.60	6.38	7.70	7.69	7.44	7.12	6.54	6.46	6.77	0.79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 차원	소속감	있음	6.55	6.06	7.33	6.07	7.51	7.40	6.92	6.87	6.20	6.22	6.55	0.94	
		없음	6.25	5.64	6.97	5.80	6.97	6.93	6.50	6.53	6.06	6.07	6.29	1.27	
기타	외출	있음	6.55	6.03	7.33	6.08	7.41	7.38	6.90	6.84	6.24	6.19	6.51	0.94	
		없음	4.80	5.16	6.62	4.31	7.13	6.07	5.36	6.36	4.46	6.83	6.64	2.2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 영역별 만족도에서 각 숫자는 다음의 삶의 영역(life domain)을 의미하며, 각 숫자는 이 영역의 만족도 평균값: (1) 생활수준, (2) 건강, (3) 삶에서 성취한 것, (4) 가족 관계, (5) 친구 관계, (6) 일반적 대인 관계, (7) 안전, (8) 미래 안정성, (9) 시간적 여유,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

그림 20. 사회적 연결성이 부재한 경우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점수(2021)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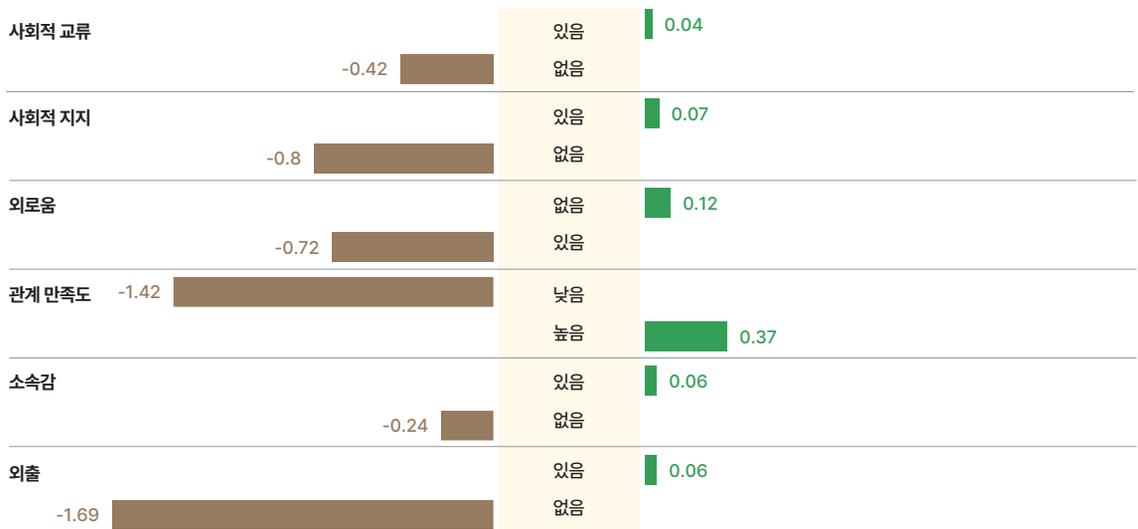
사회적 연결성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전체 평균을 0으로 하고, 사회적 교류, 사회적 지지, 외로움, 관계 만족도, 소속감, 외출의 유무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우울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도식화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성이 없는 경우는 각 항목별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외출하지 않는 경우(-1.69점),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1.42점),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0.8점), 사회적 교류가 없는 경우(-0.42점), 소속감이 없는 경우(-0.24점)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성이 부족하면, 전반적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1. 사회적 연결성 항목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점수 차이(2021)

(단위: 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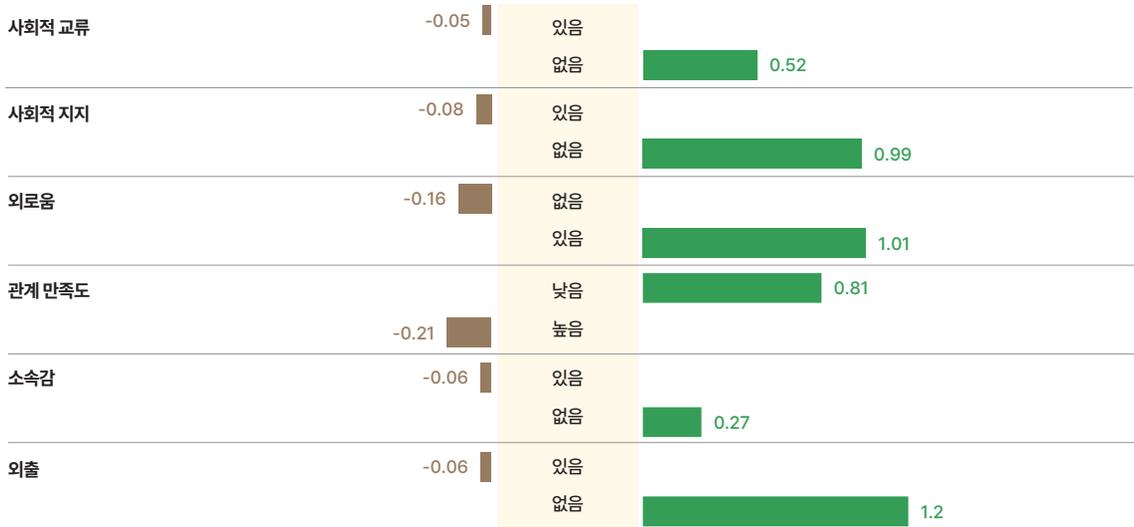
주 0점을 평균으로 했을 때 각 집단이 평균에서 얼마나 음(-)과 양(+)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함.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감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감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이 부재한 경우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성이 없는 경우, 각 항목별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외출하지 않는 경우(1.2점), 외로운 경우(1.01점), 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0.81점),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0.99점), 사회적 교류가 없는 경우(0.52점), 소속감이 없는 경우(0.27점) 순으로 우울감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성이 낮은 집단에서 우울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연결성이 높은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고르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차이는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감 사이에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 강화만으로는 정서 문제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정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집단에서는 사회적 연결성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사회적 처방’은 단일한 방식이 아닌 정서·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22. 사회적 연결성 항목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2021)

(단위: 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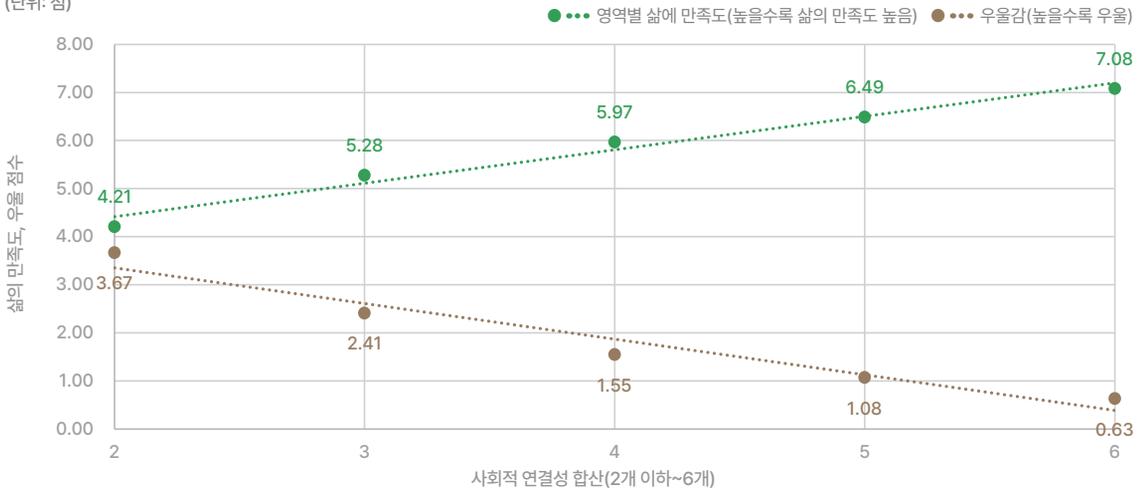
주 0점을 평균으로 했을 때 각 집단이 평균에서 얼마나 음(-)과 양(+)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함.

사회적 연결성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우울감 간의 관계

지금까지 사회적 연결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사회적 교류, 사회적 지지, 외로움, 관계 만족도, 소속감, 외출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사회적 연결성 항목들을 합산한 점수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우울 점수의 관계를 평균 점수로 도출하였다. 삶의 만족도 점수는 영역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합산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평균 내어 사용하였고, 우울점수는 앞에 사용한 것과 같이 11개 항목을 0점부터 10점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연결성 점수에서 0개에서 6개까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6개 중 0, 1의 사례수가 적어 2개 이하로 합산하였다. 0은

그림 23. 사회적 연결성 누적 점수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우울 간의 관계(2021)

(단위: 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 6가지 사회적 연결성 항목의 합산 점수로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성이 높음. 0~2개는 사례 수가 작아 2개 이하로 재구성하였음.

사회적 연결성이 없는 단절된 상태, 6은 모든 항목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사회적 연결성의 합산 점수는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관계, 우울과는 음의 관계에 있었다. 즉, 사회적 연결성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우울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적 연결성이 낮은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우울 점수는 더 높았다. 이는 매우 단순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지만, 사회적 연결성은 개인의 총괄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청년기 사회적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OECD의 사회적 연결성 social connectedness 프레임워크에 따라 사회적 연결성을 개인 차원과 공동체 및 사회 차원으로 나누고 개인 차원을 구조, 기능, 질, 공동체와 사회 차원을 참여와 소속감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청년의 사회적 연결성은 모든 영역이 일관되게 약화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관계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대인신뢰도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며 가족 중심의 연결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큰 하락을 보였다. 이것이 청년의 만족도 상승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조사나 지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통한 안전망이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심리정서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재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참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 기반 공동체보다는 온라인 기반 공동체에 소속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체 및 사회적 참여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는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둔 참여는 약화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와의 연결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이타성과 연대에 기반을 둔 전통적 사회 참여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성 차원에서의 시사점 및 제언은 네 가지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연결성 변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청소년, 청년 세대는 사회적 연결성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세대는 사회적 지지체계나 가족/친척 이외의 교류가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총체적인 웰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느슨한 연대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기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가족간의 교류와 관계는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속형 자본 bonding capital은 강화되면서 교량형 자본 bridging capital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교량형 자본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가도록 사회참여 기회 증대, 사회참여 및 교류 공간과 프로젝트의 증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류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해서 상호 호혜성에 기반을 둔 지역, 사회 참여가 증대되어야 한다. 사회단체참여는 늘어나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 이타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와 기부 같은 호혜적 활동은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연결성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공동체의 '기여자'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 활동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웰빙

이 증진됨과 동시에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지원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측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더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관계의 폭력성과 갈등에 초점을 맞춘 측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 관계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극히 최근이며, 영국에서 2010년대 후반 측정 노력을 기울인 것이 선진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도 사회적 연결성 지표를 마련하여 유사한 대리 지표(proxy indicators)를 취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아직은 정교하고 세밀한 극사실주의 그림보다는 추상화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적 연결성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국제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척도를 중심으로 측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사회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는 개인의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성은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기현, 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GOV.U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b66cf98fa8f54aafb3c333/6.4882_DCMS_Loneliness_Strategy_web_Update_V2.pdf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Haidt, J. (2024).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Penguin.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olt-Lunstad, J., Smith, T. B., & Layton, J. B.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mortality risk: A meta-analytic review. *PLoS Medicine*, 7(7), e1000316.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316>
- Holt-Lunstad, J., Robles, T. F., & Sbarra, D. A. (2017). Advancing social connection as a public health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sychologist*, 72(6), 517.
- Lee, B. J., & Yoo, M. S. (2015).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8(1), 151-175.
- Mahoney, J., Fleischer, L., Bottura, G., & Scrivens, K. (2024).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A scoping review.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28).
- OECD (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df2d6a0-en>.
- ONS(2018).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methodologies/measuringlonelinessguidanceforuseofthenationalindicatorsonsurveys> 에서 2025년 10월 13일 인출.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Schuster.
- Waldinger, R., & Schulz, M. (2023). *The good life: Lessons from the world's longest scientific study of happiness*. Simon and Schuster.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WHO 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s report on the global status of social connec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83824>
- Vaillant, G. E. (2003).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Study of Adult Development*, Little, Brown.

02

청년의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포용성을 중심으로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 사회의 청년이 처한 현실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 「청년삶실태조사」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과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시민참여와 타인에 대한 포용성과의 관계를 기술분석과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봤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시민참여 경험 비율은 2022·2024년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로 측정된 포용성은 2022년(3.14점)에 비해 2024년(3.04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22년과 2024년 각각 6.72점과 6.71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긍정정서는 2022년 6.89점 대비 2024년 6.80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 모두 2022년 대비 2024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시민참여의 가능성이 높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포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컸다.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어느 때보다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다.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 이주민 이슈 등이 뚜렷한 해결 방향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고, 그 틈을 타 극단주의^{extremism}가 지구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같은 시기에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 한켠에 사회통합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폭넓고 느슨한, 타인에 대한 관용성을 지닌 연대라는 의미로, 사회통합은 민주주의의 토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IDEA가 해마다 발간하는 “세계민주주의 현황 2025: 이동하는 민주주의^{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Democracy on the Move}”에 따르면, 2024년 평가대상 국가의 54%에 해당하는 94개국이 5년 전 자체 성과 대비 민주주의 성과 지표 중 최소 한 가지 분야에서 후퇴를 기록했다. 동기간 최소 한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보인 국가는 55개국(32%)에 불과했다(International IDEA, 2025).

이러한 여건 속에서 청년세대의 정치·사회 의식을 다루는 기사나 조사결과들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이행기에서 직면하고 있는 세대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담지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매체인 가디언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16~26세 청년 6,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48%, 독일 청년의 61%가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다고 답했음을 밝힌 바 있다(Cole, D., 2025. 7. 4.).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전혀 믿지 않는다’와 ‘별로 믿지 않는다’를 선택한 비율은 19~29세는 50.0%, 30~39세는 49.0%로 전체 45.7%에 비해 높다(국가통계포털, 2025a). 같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와 ‘별로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19~29세는 2013년 28.6%에서 2024년 46.7%로, 30~39세는 2013년 26.1%에서 2024년 45.3%로 증가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2013년에는 27.8%, 2024년에는 44.3%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전체 49.4%, 19~29세 55.1%, 30~34세 54.4%) 이후 감소했으나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국가통계포털, 2025b), 2013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주관적 웰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의 서술로 대신하고자 한다. OECD(2025)는 2013년 주관적 웰빙의 측정 지침을 발간한 이후 2025년 최신의 지침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관적 웰빙에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도전적 과제(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갈등,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 청년세대의 삶을 악화시킨 구조적 변화 요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관적 웰빙이 사회적 결과에 갖는 가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de Neve et al.(2013)은 ‘주관적 웰빙의 객관적 혜택^{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건강과 수명, 소득, 생산성, 조직 행동, 개인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으며, 행복은 지연된 보상을 감안한 의사결정^(considering benefits over a long time period) 혹은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Oishi et al. (2007)은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주관적 웰빙의 격차가 정치·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Ward(2019), Ward et al. (2021)은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행복), 삶에 대한 기대와 같은 주관적 웰빙이 자선, 자원봉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urs}, 즉 시민참여뿐 아니라 투표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기도 했다. 낮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은 주어진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

게끔 하여(Ward et al., 2021) 포폴리스트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청년이 처한 현실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나아갈 바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시민참여와 타인에 대한 포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개념 고찰 및 변수의 정의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개념의 정책적 활용성에 주목하여 국가기구나 국제기구에서도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는 초기 사회학에서부터 이뤄져 왔다. 일찍이 뒤르켐(Durkehm, 1893; OECD, 2011에서 재인용)은 그의 저서에서 구성원들의 활동이 동질적인 전통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기계적 결속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사회가 분업화되면서 유기적 연대로 전환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책적 활용성에 주목한 대표적 사례로는 OECD를 들 수 있다. OECD(2011)는 사회통합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은 신뢰, 다양한 형태의 참여,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배제의 차원, 사회적 이동성은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지위 변화 가능성을 일컫는다. OECD는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사회마다의 맥락 하에서 서로 다른 차원이 강조되기도 하고, 한 차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차원에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회통합은 유기적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폭넓고 느슨한,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관용성을 지닌 연대라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복잡한 도전적 과제가 놓여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Fonseca et al. (2019)는 1897년 뒤르켐으로부터 2013년 파슨스의 사회통합 논의를 고찰하여 오늘날의 사회통합 개념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OECD, 2025)을 의미하며, 삶에 대한 평가, 정서^{affect}, 유다이모니아^{eudaimonia}를 포함한다. 삶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삶 또는 특정 측면의 평가로써 삶의 만족도, 직업 만족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정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감정적 상태로 행복, 평온함 등과 같은 긍정정서와 걱정, 고통^{pain}과 같은 부정정서로 구분된다. 유다이모니아는 삶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지를 질문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 고찰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은 시민참여와 포용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참여는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 혹은 투표 참여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포용성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자원봉사와 기부가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라면, 포용성은 사회적 포용의 구성 요소라 볼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OECD(2025) 관점에서는 삶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 자료, 방법 및 변수 측정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청년삶실태조사」이다. 동 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는 법정 조사이자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70002호)로 매 2년마다 전국 15,000명의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2년 최초, 2024년 두 번째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9~34세 15,000명이며, 2022년에는 총 14,966명, 2024년에는 15,098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는 일반사항, 건강, 주거, 고용 등과 같은 실태와 더불어 참여 및 관계, 사회·미래 인식과 관련된 약 200개의 문항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청년삶실태조사」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표준오차를 감소시키고 사례 수가 적은 하위 집단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모형에 연도 변수를 포함하여 시간적 요인을 통제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과 미래 실현에 대한 기대 정도의 분포를 염두에 두어 통합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술분석과 순서형 로짓 분석을 시행하고 제시한다.

<표 1>은 시민참여와 포용성, 주관적 웰빙의 변수와 측정용, <표 2>는 순서형로짓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할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측정을 정리한 것이다.

시민참여는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에 대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했다. 보기의 구성이 ‘①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②지난 1년 동안 1~2번’, ‘③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④전혀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③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과 ‘④전혀 없음’은 0, ‘②지난 1년 동안 1~2번’을 1, ‘①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은 2로 재코딩하여 사용했다.

포용성은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 시민참여, 포용성, 주관적 웰빙의 측정

구분	조사 내용	보기 구성	측정
사회통합	시민참여	①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② 지난 1년 동안 1~2번 ③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④ 전혀 없음	0: 비참여(④ 또는 ③) 1: 지난 1년 동안 1~2번(②) 2: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①)
	포용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매우 만족한다	z-score 변환
	긍정 정서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⑤ 매우 행복했다	z-score 변환
	미래에 대한 기대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z-score 변환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어제 행복), 미래에 대한 기대로 측정했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는 0~10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상태를 의미)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3점 척도(①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③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통제변수(표 2)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계층, 가구소득(자연로그)이 있으며, 지역과 연도 또한 통제하였다.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측정

구분	측정
성별	①남성, ②여성
연령	①19~24세, ②25~29세, ③30~34세
교육 수준	①고졸이하, ②대학 재학, 휴학, ③대학 수료, 졸업 이상
배우자 유무	①배우자 없음, ②배우자 있음
주관적 계층	①하층, ②중하층, ③중간층, ④중상층, ⑤상층
가구소득	연간 가구소득(만원 단위로 조사) → 자연로그로 변환
지역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연도	2022년, 2024년

3) 기술 분석

(1) 사회통합: 시민참여, 포용성

<표 3>과 <표 4>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이자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참여와 포용성을 기술분석한 결과이다. 시민참여와 포용성은 2022년 대비 2024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시민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②+③)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2022년 4.35%, 2024년 4.51%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줄어들었고, 연령별로는 30~34세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25~29세, 19~24세의 순이었다. 시민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1~2번 했다는 응답이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했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포용성에 해당하는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평균하여 살펴보면(표 4), 2024년은 3.04점으로 2022년 3.14점 대비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는 하위 집단별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에 비해 포용성이 낮은 하위 범주는 여성(3.01점), 19~24세(3.01점), 비수도권(3.03점), 고졸 이하(2.95점)였다. 전반적으로 3점대를 보이는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에만 2022년과 2024년 모두 2점대라는 것은 해당 집단의 다양한 삶의 여건을 살펴볼 필요를 시사한다.

표 3. 시민참여 기술분석 결과

(단위: %)

구분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2022 (n=14,966명)				2024 (n=15,098명)			
		㉠ 비참여	㉡ 지난 1년 동안 1~2번	㉢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	㉠ 비참여	㉡ 지난 1년 동안 1~2번	㉢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
전체		95.65	2.44	1.91	4.35	95.49	2.77	1.74	4.51
성별	남성	96.02	2.48	1.51	3.99	95.49	2.67	1.84	4.51
	여성	95.25	2.40	2.35	4.75	95.48	2.89	1.63	4.52
연령	19~24세	95.98	2.22	1.80	4.02	95.81	2.43	1.76	4.19
	25~29세	95.53	2.43	2.04	4.47	95.46	3.00	1.54	4.54
	30~34세	95.41	2.71	1.88	4.59	95.19	2.88	1.92	4.80
지역	수도권	94.92	2.73	2.34	5.07	95.58	2.66	1.76	4.42
	비수도권	96.47	2.11	1.42	3.53	95.19	2.92	1.89	4.81
교육수준	고졸 이하	96.53	2.25	1.22	3.47	96.85	1.65	1.49	3.14
	대학 재학·휴학	95.38	2.30	2.31	4.61	95.54	2.71	1.75	4.46
	대학 졸업 이상	95.55	2.54	1.91	4.45	95.08	3.11	1.81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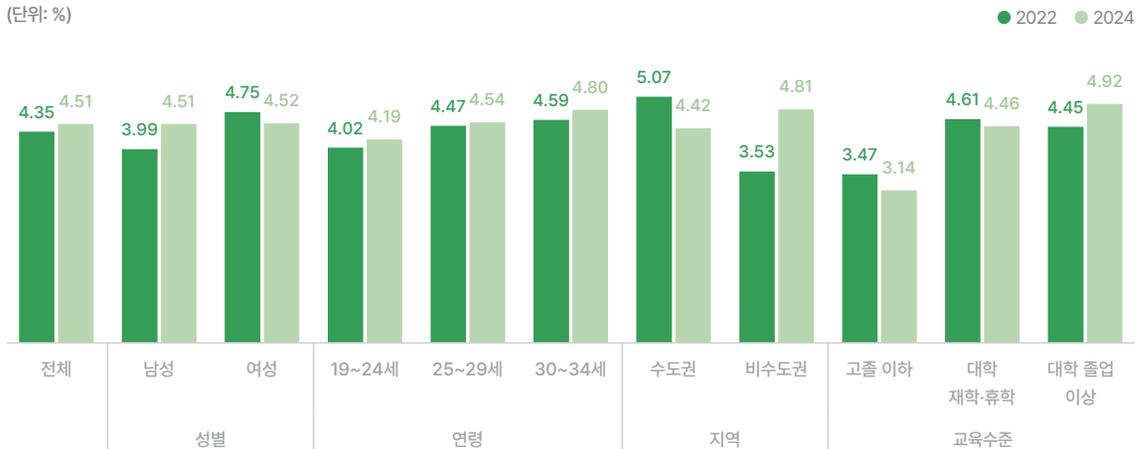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 '전혀 없음'과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은 비참여임.

㉡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그림 1. 시민참여: 정치·사회현안 대응 기부 또는 자원봉사 참여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1~2번' 또는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응답한 비율임.

㉡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표 4. 포용성 기술분석 결과

(단위: 점)

구분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2022 (n=14,966명)	2024 (n=15,098명)
		평균	평균
전체		3.14	3.04
성별	남성	3.18	3.07
	여성	3.09	3.01
연령	19~24세	3.16	3.00
	25~29세	3.12	3.08
	30~34세	3.13	3.05
지역	수도권	3.16	3.08
	비수도권	3.11	3.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94	2.85
	대학 재학·휴학	3.20	3.04
	대학 졸업 이상	3.16	3.10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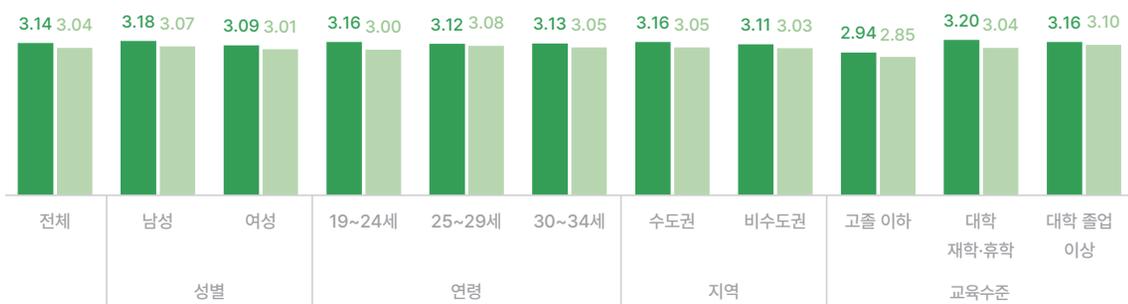
주 ①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그림 2. 포용성

(단위: 점)

● 2022 ● 2024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응답의 평균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포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2)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

다음은 주관적 웰빙을 기술분석한 결과로, 주관적 웰빙은 대체로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표 5)는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가운데, 2022년은 6.72점, 2024점은 6.71점으로 분석됐으며, 2024년의 경우 하위 집단 중 대학 재학·휴학에 해당하는 집단이 유일하게 7점 이상(7.06점)으로 나타났다.

표 5. 삶의 만족도 기술분석 결과

(단위: 점)

구분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022 (n=14,966명)	2024 (n=15,098명)
		평균	평균
전체		6.72	6.71
성별	남성	6.72	6.71
	여성	6.73	6.70
연령	19~24세	6.82	6.90
	25~29세	6.60	6.53
	30~34세	6.76	6.70
지역	수도권	6.67	6.67
	비수도권	6.79	6.75
교육수준	고졸 이하	6.20	6.22
	대학 재학·휴학	6.97	7.06
	대학 졸업 이상	6.75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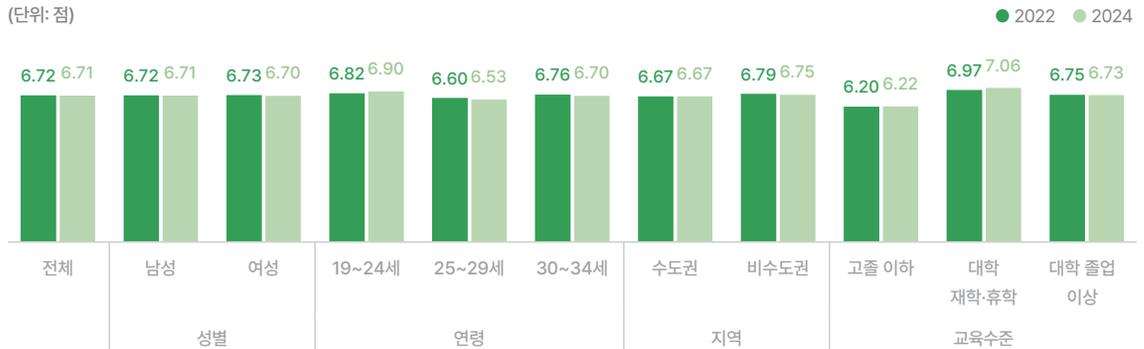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그림 3.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해서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것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포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과 2024년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6.72점과 6.71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9~24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30~34세, 25~29세 순으로 분석됐다. 학력별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대학 재학·휴학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그다음이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하의 순이었다.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정서 또한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정서의 측정은 어제의 행복 정도를 질문하도록 구성돼 있다. OECD(2025)는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를 이해하려는 경우 회상 편향을 줄이기 위해 “어제”의 정서 상태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6.89점에 비해 2024년은 6.80점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정서는 대학 재학·휴학 집단의 경우에만 7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평균(6.80점)에 비해 낮은 집단은 남성(6.78점), 25~29세(6.63점), 수도권(6.76점), 고졸 이하(6.34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3점 척도(①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③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표 6. 긍정정서 기술분석 결과

(단위: 점)

구분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2022 (n=14,966명)	2024 (n=15,098명)
		평균	평균
전체		6.89	6.80
성별	남성	6.86	6.78
	여성	6.93	6.82
연령	19~24세	6.94	6.96
	25~29세	6.78	6.63
	30~34세	6.97	6.82
지역	수도권	6.86	6.76
	비수도권	6.93	6.86
교육수준	고졸 이하	6.39	6.34
	대학 재학·휴학	7.06	7.10
	대학 졸업 이상	6.95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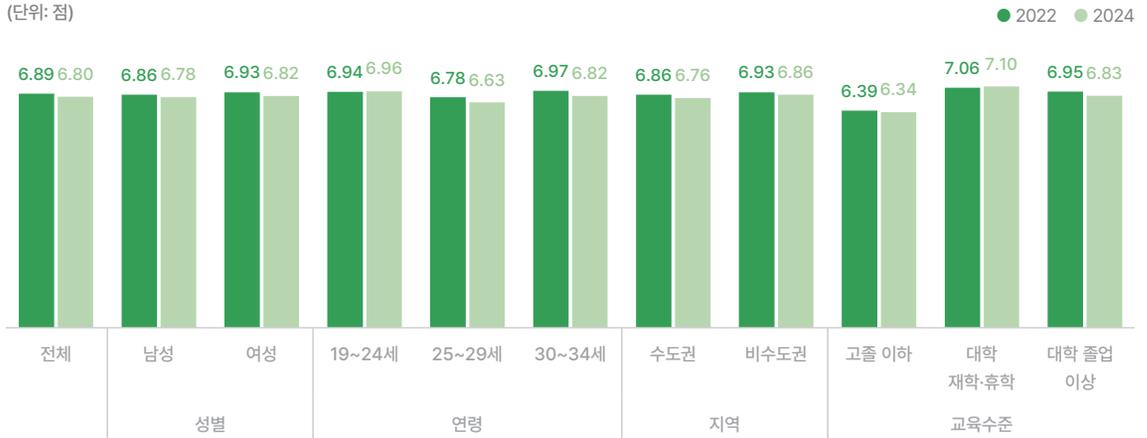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매우 행복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그림 4. 긍정정서

(단위: 점)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매우 행복했다'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높음을 의미함.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증가(2.39%p),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감소(-1.52%p)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2022년 대비 2024년 응답이 전체(+2.39%p)보다 더 크게 증가한 집단은 남성(+2.73%p), 25~29세(+2.94%p), 30~34세(+2.89%p), 비수도권(+2.45%p), 고졸 이하(+3.25%p) 집단이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2022년 대비 2024년 응답이 전체(-1.52%p)보다 더 감소한 집단은 여성(-2.24%p), 30~34세(-2.31%p), 수도권(-2.30%p), 대학 졸업 이상(-1.81%p) 집단이다.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 모두 전체보다 증가하는 즉, 미래에 대한 양극화 경향이 포착되는 집단은 남성과 25~29세, 비수도권, 고졸 이하 집단이었다.

앞서 살펴본 고졸 이하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기대 정도가 가장 비관적이었다. 살펴본 하위 집단 중 유일하게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이 2022년(10.42%)과 2024년(13.67%) 모두 10% 이상이었음을 강조해 둔다.

참고로 OECD(2025)는 주관적 웰빙을 0~10점 수치 척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0~10점의 범주는 응답자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응답 nuanced responses 을 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고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분석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삶실태조사」에서도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로 응답 범주를 변경한다면 청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인식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미래에 대한 기대 기술분석 결과

(단위: %)

구분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 (n=14,966명)			2024 (n=15,098명)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전체		5.23	87.55	7.22	7.62	86.68	5.70
성별	남성	5.54	87.00	7.45	8.27	85.15	6.58
	여성	4.88	88.16	6.96	6.91	88.38	4.72
연령	19~24세	4.12	87.87	8.01	5.23	87.52	7.26
	25~29세	5.20	88.16	6.64	8.14	86.62	5.24
	30~34세	6.53	86.51	6.95	9.42	85.93	4.64
지역	수도권	5.03	87.92	7.05	7.42	87.68	4.90
	비수도권	5.45	87.14	7.41	7.87	85.47	6.66
교육수준	고졸 이하	10.42	83.40	6.19	13.67	80.79	5.54
	대학 재학·휴학	2.73	88.47	8.80	4.05	88.18	7.77
	대학 졸업 이상	4.97	88.18	6.85	7.12	87.84	5.04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그림 5. 미래 실현 정도에 대한 부정 인식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주 ①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①전혀 실현할 수 없다' ② 어느정도 실현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 ③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중 '①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3) 순서로짓 모형 분석 결과

2022년, 2024년 「청년삶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pooled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의 결괏값은 승산비 *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승산과 승산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승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 즉, 사건이 발생할 상대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승산비는 어떤 사건이 한 집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승산, 승산비

$$\text{승산 (odds)} = \frac{\text{사건이 일어날 확률}}{\text{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 \frac{p}{1-p}, \quad \text{승산비 (odds ratio)} = \frac{\text{odds}_A}{\text{odds}_B}$$

odds_A : A집단의 승산, odds_B : B집단의 승산

분석모형에서 주관적 웰빙은 계수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로 표준화하였다. z-score는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변환하여, 단위가 다른 척도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가구소득은 순서형 로짓모형 안에서 자연로그를 취하였는데 이는 소득 분포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자연로그를 취할 경우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2년 가구소득이 0원인 140명과 2024년 가구소득이 0원인 62명 총 202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8),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시민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모형 (2)). 그에 반해, 미래에 대한 기대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친사회행동 참여의 승산비가 약 22.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모형 (3)). 분석 결과는 수치적으로는 크지 않더라도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시민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통제 변수의 경우,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19~24세에 비해 30~34세가, 고졸 이하에 비해 대학 재학·휴학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관적 계층이 중간층인 경우에 비해 중상층이거나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시민참여의 승산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계층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반면 가구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해석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웰빙과 포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9),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포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모형 (1), 모형 (2), 모형 (3)). 삶의 만족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포용성의 승산비가 약 5.1% 증가했으며, 긍정 정서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는 포용성의 승산비가 약 8.6% 증가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는 포용성의 승산비가 약 17.2%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모형 (3)).

통제 변수의 경우,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봤다. 기술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포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령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에 비해

대학 재학·휴학 또는 대학 수료·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관적 계층이 중간층인 경우에 비해, 중상층, 상층이라 응답한 경우에 포용성의 승산비가 컸으며, 하층인 경우에는 포용성의 승산비가 작았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포용성의 승산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도 또한 2022년에 비해 2024년의 포용성의 승산비가 크게 나타났다.

표 8.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에 대한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2022년, 2024년		pooled logit 특정 정치·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나 활동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하기 (0: 비참여, 1: 지난 1년 동안 1~2번, 2: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1) Odds ratio	(2) Odds ratio	(3) Odds ratio
주관적 웰빙(z-score)	삶의 만족도	1.019		
	긍정 정서		0.979	
	미래에 대한 기대			1.224***
성별(기준: 남성)	여성	1.091	1.090	1.100
연령(기준: 19~24세)	25~29세	1.233+	1.229+	1.243+
	30~34세	1.405**	1.402**	1.431**
지역(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868*	0.870*	0.862*
교육수준(기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1.403*	1.416*	1.379*
	대학 수료·졸업 이상	1.275+	1.284*	1.264+
혼인상태(기준: 무배우)	유배우	0.844	0.855	0.830
주관적 계층(기준: 중간층)	하층	0.725+	0.701*	0.791
	중하층	0.986	0.970	1.029
	중상층	1.846***	1.866***	1.773***
	상층	2.413*	2.477*	2.194*
ln_가구소득		0.943	0.945	0.946
연도(기준: 2022)	2024	1.050	1.051	1.065
n		29,862		

주 ① *** p<0.001, ** p<0.01, * p<0.05, +p<0.1이며, +p<0.1는 참고로만 제시하고 별도로 해석하지 않음.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③ 가구소득을 자연로그화하여 가구소득이 0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표 9. 주관적 웰빙과 포용성에 대한 순서형 로짓 분석 결과

2022년, 2024년		pooled logit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Odds ratio	(2) Odds ratio	(3) Odds ratio
주관적 웰빙(z-score)	삶의 만족도	1.051**		
	긍정 정서		1.086***	
	미래에 대한 기대			1.172***
성별(기준: 남성)	여성	0.836***	0.835***	0.835***
연령 (기준: 19~24세)	25~29세	1.043	1.046	1.045
	30~34세	1.019	1.022	1.031
지역(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896***	0.895***	0.896***
교육수준(기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휴학	1.383***	1.376***	1.368***
	대학 수료.졸업 이상	1.423***	1.416***	1.415***
혼인상태(기준: 무배우)	유배우	1.047	1.033	1.045
주관적 계층(기준: 중간층)	하층	0.705***	0.720***	0.745***
	중하층	0.923*	0.932*	0.942+
	중상층	1.532***	1.518***	1.510***
	상층	2.663***	2.611***	2.592***
ln_가구소득		1.050**	1.048**	1.052**
연도(기준: 2022)	2024	0.898***	0.901***	0.911**
n		29,862		

주 ① *** p<0.001, ** p<0.01, * p<0.05, +p<0.1이며, +p<0.1는 참고로만 제시하고 별도로 해석하지 않음.
 ② 표본 수(n)는 가중치 전 사례 수,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된 수치임.
 ③ 가구소득을 자연로그화하여 가구소득이 0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3.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시민참여와 타인에 대한 포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 및 포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래에 대한 낙관은 시민참여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미래에 대한 낙관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과 포용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에서 가구소득은 시민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포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에, 고졸 이하에 비해 대학 재학·휴학인 경우, 주관적 계층이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중상층,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시민참여와 포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기대(life expectancy,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 등으로 측정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포퓰리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최근의 주요 선행 연구(Ward, 2019; Ward et al., 2021)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통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기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시민참여 경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포용성 수준과 더불어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인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2022년 대비 2024년에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기대 정도가 가장 비관적이었다는 점도 염두에 뒤야 한다.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살펴본 하위 집단 중 유일하게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이 2022년(10.42%)과 2024년(13.67%) 모두 10% 이상이었음을 강조해 둔다. 또한 '전혀 실현할 수 없다'는 응답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응답 모두 전체보다 증가하는 즉, 미래에 대한 양극화 경향은 남성과 25~29세, 비수도권, 고졸 이하 집단에서 포착됐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는 청년들의 주관적 웰빙, 시민참여, 가치관과 신념이 다른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국가 차원, 이를테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정책 지표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척도의 측면에서는 「청년삶실태조사」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 정도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현재 3점 척도에서 11점 척도로 변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와 기부는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은 횡단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주관적 웰빙과 포용성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유관성(Laguna et al., 2022), 미래에 대한 낙관이 포퓰리즘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Ward et al., 2021)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이론적 정당성과 분석의 타당성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25a).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데이터 세트],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_0&conn_path=I2
- 국가통계포털.(2025b).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데이터 세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2
-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2024년 원자료 [데이터 세트]. <https://mdis.kostat.go.kr/index.do>
- De Neve, J. E., Diener, E., Tay, L., & Xuereb, C. (2013). 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06651
- Durkheim, E.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L. A. Coser, Trans.),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1997). Free Press.
- Fonseca, X., Lukosch, S., & Brazier, F. (2019).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2), 231–253.
- International IDEA. (2025).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5: Democracy on the move*.
- Laguna, M., De Longis, E., Mazur-Socha, Z., & Alessandri, G. (2022). Explaining prosocial behavior from the inter- and within-individual perspectives: A role of positive orientation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4), 1599–1615. <https://doi.org/10.1007/s10902-021-00464-4>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persp_glob_dev-2012-en
- OECD. (2025).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25 editio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567890-en>
- Oishi, S., Diener, E., & Lucas, R. E. (2007). The optimum level of well-being: Can people be too happ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346–360.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7.00048.x>
- Ward, G. (2019). Happiness and voting behaviour. In J. F.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9* (pp. 46–65).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files.worldhappiness.report/WHR19_Ch03.pdf
- Ward, G., De Neve, J. E., Ungar, L. H., & Eichstaedt, J. C. (2021). (Un)happiness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2), 370–383. <https://doi.org/10.1037/pspi0000249>

부록

지표정의서

(청년분과)삶의 질 지표 검토위원회

지표정의서

01. 인구학적 배경

청년 인구

정의 총 인구 중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19\sim 34\text{세 인구 수} \div \text{총 인구 수})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청년 가구

정의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text{가구주 연령이 } 20\sim 34\text{세인 가구 수} \div \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4세

혼자 사는 청년 비율

정의 청년 인구 중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20\sim 34\text{세 1인 가구원} \div 20\sim 34\text{세 일반가구원}) \times 100$
*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 제외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4세

청년 인구 순이동

정의 청년 인구의 광역시도 간 전입과 전출의 차이 및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측정방법 순인구이동 = 시도 전입인구 수 - 시도 전출인구 수
순인구이동률 = $\{(시도 전입인구 수 - 시도 전출인구 수) \div \text{시도별 주민등록연안인구}\}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시도별 청년 인구

정의 각 시도별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시도별 $(19\sim 34\text{세 인구 수} \div \text{인구 수})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청년 혼인상태

정의 청년 인구의 혼인상태 구성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20\sim 34\text{세 미혼인 사람 수} \div 20\sim 34\text{세 인구 수}) \times 100$
 $(20\sim 34\text{세 유배우 사람 수} \div 20\sim 34\text{세 인구 수}) \times 100$
 $(20\sim 34\text{세 사별 및 이혼 사람 수} \div 20\sim 34\text{세 인구 수})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4세

초혼연령

정의 처음 결혼하는 연령의 평균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측정방법 처음 결혼하는 사람의 연령의 합 ÷ 처음 결혼하는 사람의 수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전체

첫 출산연령

정의 첫 아이 출산 산모의 평균 연령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측정방법 첫 출산하는 산모의 연령의 합 ÷ 첫 출산하는 사람의 수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전체

02. 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짹수 연도)
측정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5점 척도)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건강 평가

4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신체활동 실천율

정의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한 청년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측정방법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에 해당) 실천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3. 앞서 말한 일과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1. 평소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예시 카드를 참고 하세요]

※예: 달리기, 줄넘기, 등산, 농구 시합, 수영, 배드민턴 등

① 예 → 3-2. 평소 일주일 동안,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일주일에 일

② 아니오 3-3. 평소 하루에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시간 분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03. 교육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정의 18~21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측정방법 $(18\sim 21\text{세 재적학생 수} \div 18\sim 21\text{세 인구수})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8~21세

교육 이수율

정의 청년층의 고등학교 과정 미만, 고등학교, 고등교육 과정 이수율
출처 교육부, 「OECD 교육지표」
측정방법 $(25\sim 34\text{세 해당 학력* 소지 인구} \div 25\sim 34\text{세 전체 인구}) \times 100$
* 후기중등교육 미만(중학교 이하), 후기중등교육 또는 중등후 비고등교육(고등학교 또는 고졸 이후 비학위 직업 훈련과정),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5~34세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 및 진학률

정의 직업계고(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청년의 졸업 후 취업 및 진학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측정방법 $\text{취업률} = \{ \text{취업자} \div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제외인정자})) \} \times 100$
 $\text{진학률} = (\text{진학자} \div \text{졸업자}) \times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전체

대학 졸업 취업률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측정방법 $(\text{취업자} \div \text{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times 100$
*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전체

04. 여가

여가시간

정의 청년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 평균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측정방법 $\{ (\text{청년의 평일 여가시간} \times 5\text{일}) + (\text{청년의 휴일 여가시간} \times 2\text{일}) \} \div 7\text{일}$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9세

조사표 항목

구분	(1) 평일	(2) 휴일(휴가, 연휴)
10-1 지난 1년 동안(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② 휴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여가비용 충분도

정의 여가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비용의 충분 정도(7점 척도)에 대해 '충분했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9세

조사표 항목

8 지난 1년 동안(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귀하는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월 평균 원

8-1 지난 1년 동안(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지출한 전체 여가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여가시설 충분도

정의 공공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측정방법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은 이용하는 데 충분하냐(7점 척도)에 대해 '충분하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9세

조사표 항목

14 다음은 귀하의 생활권 내의 공공 문화여가시설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우리나라 공공 문화여가시설에 대하여 느낀 점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생활권 내의 어떠한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의 생활권 내의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의 생활권 내의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의 생활권 내의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은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생활 만족도

정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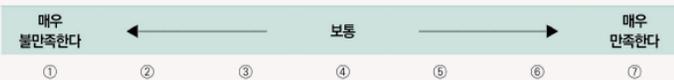
측정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는지(7점 척도)에 대해 '만족한다'(5~7점)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9세

조사표 항목

23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정의 삶에서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대한 균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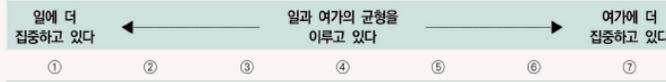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측정방법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7점 척도)에 대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㉔)'에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0~39세

조사표 항목 21 귀하는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05. 고용·임금

고용률

정의 청년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측정방법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포함)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5~34세

조사표 항목 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1. 예 → (9) 번으로
- 2. 아니오

실업률

정의 청년 인구 중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측정방법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5~34세

조사표 항목 29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1. 구해 보았음
 - 2. 구해 보지 않았음 → (33) 번으로
-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30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 (37) 번으로

[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

정의 실업률에 실업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거나 추가 취업의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측정방법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 *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5~29세

첫 취업 소요기간

- 정의**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15~29세 부가조사)
- 측정방법** 최종 학교 졸업자(중퇴자)의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개월 수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15~29세

시간당 임금

- 정의** 청년의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측정방법**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9~34세 근로자의 6월 기준 한달간 시간당 임금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19~34세

업무자율성 정도

- 정의** 일자리에서 자신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청년의 비율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 측정방법**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양, 일하는 순서, 일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① 결정, 변경 불가 ②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③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④ 전적으로 내가 결정)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②, ③, ④)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작성주기** 2년
- 해당연령** 19~34세
- 조사표 항목** E11 귀하는 일자리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습니까?

※ 자율성을 가진다는 뜻은 본인이 원할 때 일하는 시간, 장소, 양 등을 본인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1) 일하는 시간	①	②	③	④
2) 일하는 장소	①	②	③	④
3) 일의 양	①	②	③	④
4) 일하는 순서	①	②	③	④
5)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일자리 만족도

-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청년 인구의 비율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 측정방법**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만족정도(5점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작성주기** 2년
- 해당연령** 19~34세
- 조사표 항목** 근로 여건 만족도

60 귀하는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항목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모르겠다	⑦ 해당 없다
1.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2. 복리 후생							
3.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							
4. 근로 시간							

5. 하는 일								
6. 정래성								
7.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8.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9. 직장내 일·가정 양립 문화								
10.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1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06. 소득·소비·자산

가구 중위소득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값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측정방법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금액의 19~34세 개인 단위 중위값임(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실질금액)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가구부채 비율

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구 부채총액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측정방법 (19~34세 가구주 가구의 부채총액 평균 ÷ 19~34세 가구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평균)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상대적 빈곤율

정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측정방법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 이하 19~34세 인구 ÷ 19~34세 인구)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소득 만족도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소득이 있는 청년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소득 만족도

48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매우 만족한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소비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소비 생활 만족도

49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07. 가족·공동체

사회적 교류

정의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을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 여부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평소에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과 교류하는 평균 인원 수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23-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 있다()명 ② 없다

사회적 지지

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명 ② 없다

외로움 경험률

정의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측정방법 '나는 외롭다'에 대한 질문(4점 척도)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27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대인관계 만족도

정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만족 정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21 귀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자신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짝수 연도)
측정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만족 정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가족 관계 만족도

52 귀하는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해당 없다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자기 부모와의 관계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5.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6.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7. 전반적인 가족 관계						

08.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정의 전체 청년 선거인 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청년의 비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조사표 항목

기부 여부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 5. 17.~2023. 5. 16.)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기부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있다 → 26 항목 ② 없다 → 27 항목

09. 신뢰·공정

대인신뢰도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28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별로 믿을 수 없다 ③ 약간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

기관신뢰도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측정방법 17개 기관*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의 평균.

* 17개 기관: 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31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항 목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①	②	③	④
(7) 공기업	①	②	③	④
(8) 군대	①	②	③	④
(9) 노동조합단체	①	②	③	④
(10)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11) TV방송사	①	②	③	④
(12) 신문사	①	②	③	④
(13) 교육기관	①	②	③	④
(14) 의료기관	①	②	③	④
(15) 대기업	①	②	③	④
(16) 종교기관	①	②	③	④
(17)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공정성 인식

정의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측정방법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4점 척도)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35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 ③ 약간 공정하다
- ④ 매우 공정하다

계층이동성

정의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하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홀수 연도)

측정방법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4점 척도)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계층 이동

35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비교적 높다
- ③ 비교적 낮다
- ④ 매우 낮다
- ⑤ 모르겠다

차별 경험률

정의 성별, 고용형태로 인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측정방법 지난 1년 동안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8~39세

10.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측정방법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 수)의 평균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문 21 귀 댁이 거주하시는 곳의 주택면적은 얼마입니까?

모두 응답	1)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
일반·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자가 소유자만 응답	2) 주택총면적(연면적)	㎡
	3) 대지총면적	㎡

주택 이외의 거처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 가구주의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측정방법 (주택 이외 거처 거주 청년 가구 ÷ 청년 가구주 가구) × 100

* 주택 이외 거처: 오피스텔, 집단시설가구를 제외한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현재주택 유형

문 4 귀댁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 ② 다가구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④ 아파트

주택임대료 비율

정의 청년 가구주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RIR)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측정방법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문 1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곳에만 기입)

구 분	금 액	
1) 전 세	전세보증금 :	_____억 _____만 원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 증 금 :	_____억 _____만 원
	월 세 :	월 _____만 원
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월 세 :	월 _____만 원

통근통학 시간

정의 청년이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측정방법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작성주기 5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19 집에서 나와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 통근 또는 통학 중간에 정기적으로 다른 곳을 경유할 경우에는 경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시간 분

주거환경 만족도

정의 청년이 거주지 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측정방법 거주지 내 주거환경 하위항목별 만족정도(4점 척도)의 평균 점수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문 25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보조지표] 타시도 이사 의향

정의 타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청년의 비율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측정방법 현재 살고있는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11. 안전

야간보행 불안 인식

정의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짚수 연도)

측정방법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4점 척도)에 대해 '약간 불안' 또는 '매우 불안'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야간 보행의 안전도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p>36 귀하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p> <p>①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p> <p>②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다</p> <p>③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다</p> <p>④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p> <p>→ 37항으로</p> <p>→ 36-1항으로</p>	<p>36-1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생활권 내에 가로등, 시시티브이(CCTV) 등 야간 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해서</p> <p>② 생활권 내에 경찰서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해서</p> <p>③ 생활권 내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p> <p>④ 생활권 내에 우범 지역이 있어서</p> <p>⑤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p> <p>⑥ 기타()</p>

범죄 불안 인식

정의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짚수 연도)

측정방법 범죄로부터의 안전 정도(5점 척도)에 대해 '약간 불안' 또는 '매우 불안'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p>30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p> <p>① 매우 안전하다 ② 비교적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하지 않다</p> <p>11. 범죄(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p>

강력범죄 피해율

정의 청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측정방법 (21~40세 5대 강력범죄 피해자수 ÷ 21~40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21~40세

디지털 폭력 피해 경험률

정의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측정방법 지난 1년간 유형별 디지털 폭력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

* 유형: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문7 최근 1년간(2023. 9. 1.~2024. 8. 31.) 온라인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의 내용과 같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내용	전혀 없음	1년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거의 매일
	⑨	①	②	③	④
1)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2)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3)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나에게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내 블로그, SNS 등을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4) 누군가가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선정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5) 누군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개인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7) 누군가가 나의 사이버 게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 ID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8) 누군가가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나에게 강요한 적이 있다.					

▷ 1)~8) 항목에 '하나라도 ①~④' 응답 → [7-1번] / ▶ 1)~8) 항목에 모두 '⑨전혀 없음' 응답 → [8번으로]

교제폭력 입건 건수

- 정의**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출처** 경찰청,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측정방법** 경찰청의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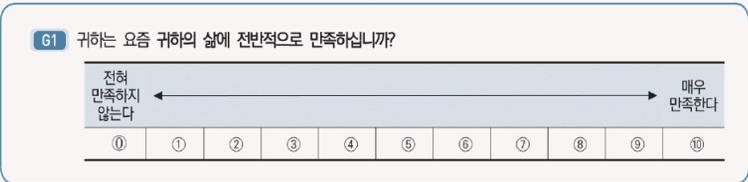
[보조지표] 스토킹 검거건수

- 정의** 스토킹처벌법 검거 건수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 측정방법** 스토킹처벌법 검거 건수
- 작성주기** 1년
- 해당연령** 전체

12.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정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 측정방법**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
- 작성주기** 2년
- 해당연령** 19~34세
- 조사표 항목**



삶의 자율성 인식

정의 청년들이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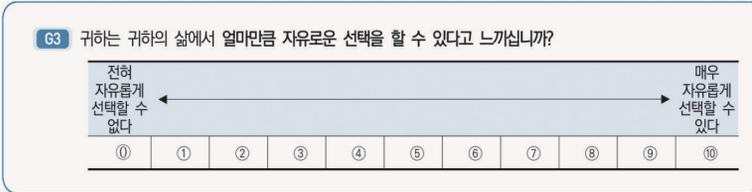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측정방법 청년이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삶의 가치 인식

정의 청년들의 요즘 하고 있는 일(학업)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측정방법 요즘 자신이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

작성주기 1년

해당연령 19~39세

조사표 항목



미래실현 부정 인식

정의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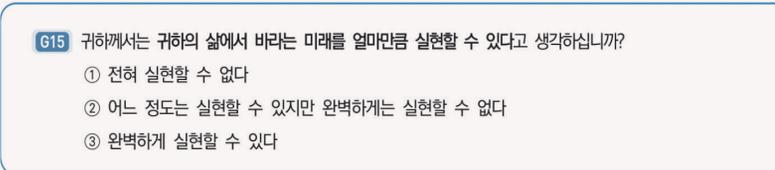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측정방법 자신이 삶에서 바라는 미래의 실현 정도에 대해 '전혀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작성주기 2년

해당연령 19~34세

조사표 항목



(청년분과) 삶의 질 지표 검토위원회

분과위원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분과위원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배정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삶의 질 2025

집필진 우한수 사무관, 이나리 주무관, 심수진 사무관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김진, 국가통계연구원장
발행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통계센터 8층
042-366-7133
디자인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ISBN 978-89-5801-548-2 03310